현대불교

제 786 호 구독신청 (02)2004-8200 Buddhanews.com 2010년 6월 2일 수요일 (음력 4월 20일 · 불기 2554년 · 주간)





“자기 목소리를 내놓아라”

5월 28일 전국 100여 선원 하안거 결제

봉암사 태고선원 등 전국 100여 선원은 5월 28일(음 4. 15) 오전 불기 2554년 하안거 결제법회를 봉행하고 100일 동안의 정진에 돌입했다. 조계종 총무원은 이번 안거에 2200여 명의 스님들이 동참했다고 밝혔다. 8월 24일(음 7. 15) 해제한다.

이날 조계종 종정 법전 스님과 고불총림 방장 수산 스님, 조계총림 방장 보성 스님, 덕숭총림 방장 설정 스님, 영축총림 방장 원명 스님, 태고종 종정 혜초 스님은 하안거 결제 법어를 내려 수행을 격려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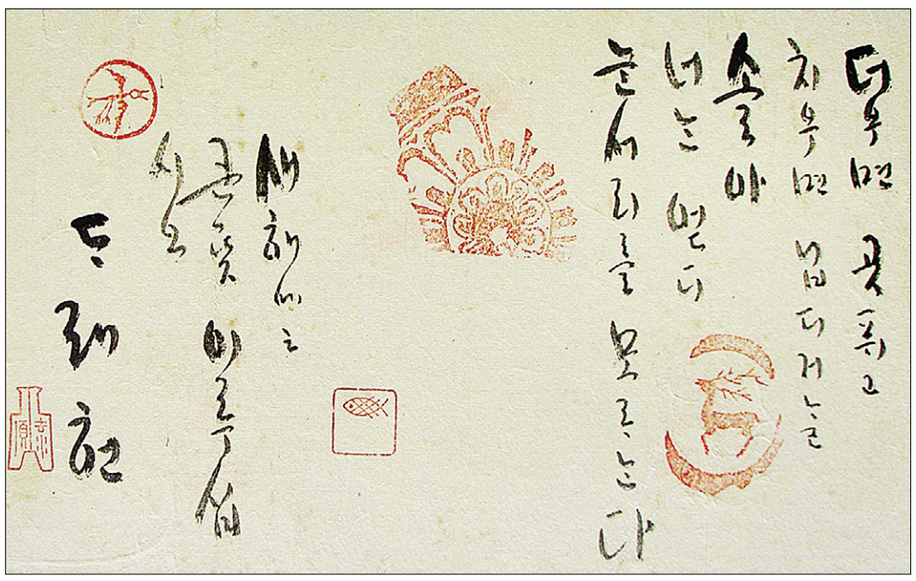
문경 대승사(주지 철산)에는 28일 조계종 원로의원 월탄 스님, 종회의원 무애 스님 등 30여 스님이 안거를 시작했다.

조계종 종정 법전 스님은 결제법어에서 부처님과 문수보살의 일화를 예로 들며 “세존께서 법좌에 오르자마자 내려오신 뜻이 무엇인지 결제 대중은 하안거 내내 잘 참구해 보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법전 스님은 또 “문수처럼 뭔가 한마디 자기 목소리를 내놓을 수 있도록 90일 동안 용맹심을 가지고 열심히 정진해야 할 것”이라며 “초전타착(燋甎打着)하니/연저동(連底凍)이로다[뜨거운 벽돌로 쳤는데/밑바닥까지 얼었구나]”라는 법어를 내렸다.

태고종 종정 혜초 스님은 “해 뜨고 달 지듯이, 꽃이 피고 열매 떨어지듯이 경계를 당했을 때 평화롭고 담담하려면 앉을 때 앉고 설 때 서면서 부지런히 참구하라”고 격려했다.

태고종은 순천 선암사 칠전선원과 금둔선원 등에 120여 수좌들이 방부를 들이고 정진에 들어갔다.

이상언 기자



3월 입적한 법정 스님이 지인들에게 보낸 편지글과 그림 30여 점이 보성 대원사(주지 현장) 내 티벳박물관에서 6월 20일까지 공개된다. 사진은 현장 스님에게 보낸 편지로 고산 윤선도의 ‘오우가’ 중 소나무 부분을 인용한 후 “새해에는 큰 뜻 이루십시오”라고 덕담을 건넸다. 관련기사 5면 ·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4대강 공사현장서 용맹정진”

선원수좌회 성명… 4대종단 대표들도 중단 촉구

정부가 4대강 공사를 전담할 군부대까지 창설해 사업을 강행키로 한 가운데, 불교 가톨릭 원불교 개신교 등 4대종교 대표자가 기도회를 열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특히, 조계종 선원수좌 2000여 명도 하안거 결제에 앞서 성명서를 통해 4대강 사업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전국선원수좌회(공동대표 대원 · 현산 · 지환, 이어 수좌회)는 5월 27일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지속적으로 강행할 경우 2000여 수좌와 사부대중이 4대강 공사현장에서 용맹정진으로 4대강 사업을 저지하겠다”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수좌회는 4대강 반대와 정부 비판에 앞서 참회로 성명을 시작했다. 수좌회는 “무정설법의 이치를 대중들에게 이해시키지 못한 것을 참회하고 어떻게 이해시킬 것인가를 하안거 화두로 삼아 용맹정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좌회는 “사회문제에 일정한 거리를 두고 수행에만 전념해온 납자들은 현정부의 오만과 독선에 찬 반민주적 정책집행으로 인한 민주주의의 퇴행이라는 암울한 소식이었다”고 토로했다.

수좌회는 “홍수예방과 오염정화라는 미명아래 강행되는 4대강 개발은 자연의 순리에 역행함은 물론 국민간 대립과 갈등을 불러일으켜 소통을 차단하고 있다”며 △화해와 소통의 상생정치 △4대강사업을 즉각 중단과 국민을 섬기는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이에 앞선 25일, 불교 가톨릭 개신교 원불교 등 4대 종단 대표자들은 서울 성공회 대성당 프란시스홀에서 4대강 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4대강 저지를 위한 결의를 다졌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보선 스님, 대한성공회 서울교구장 김근상 주교, 원불교 중앙교구장 김현 교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 전병호 목사,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의장 강우일 주교 대리로 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총무 박정우 신부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4대 종단 대표자들은 결의문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는 뭇 생명의 근원인 ‘강의 마음’을 생각해 4대강 사업을 중단하고 모두를 살리는 길을 냉철하게 검토하고 연구해 줄 것을 제안한다”며 “4대강 개발이 멈출 때까지 종교와 신앙차원에서의 반대 운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보선 스님은 각 종단 입장을 밝히는 자리에서 “다른 생명을 담보로 해서 사람들이 편안하게 살자고 하는 것을 가만히 두고볼 수 없다. 뭇 생명 보호를 위해 종교인들이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불교환경연대 집행위원장 현각 스님은 “탐욕에 눈이 멀어 생명을 경시하는 위정자들이 부끄럽다. 국토의 기형을 초래하고 전통을 파괴하는 4대강 사업을 강행해 간다면 엄정한 평가를 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날, 여주 신륵사 남한강변 여강선원에서는 정부의 4대강 사업 공사 중단을 촉구하는 4대 종교인 기도회가 열렸다. 관련기사 7면

이상언 기자 un82@buddhapia.com

서울선원 개원… 4대강 기도 입재

서울 중심가에 4대강 생명살림을 위한 기도도량 서울선원이 문을 열었다. 이날 개원식 후 선원장 지관 스님은 4대강 생명살림을 위해 28일간 단식기도를, 대중은 21일간 참회정진 기도를 입재했다.

4대강생명살림불교연대는 5월 25일 서울 조계사에 서울선원을 개원했다.

행사에는 선원장 지관 스님(김포 용화사 주지), 여주 여강선원 선원장 수경 스님(화계사 주지),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의장 퇴휴 스님, 공주 금강선원 대책위원장 혜우 스님, 조계종 환경위원회 위원장 주경 스님과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양재성 목사, 천주교 환경연대 조해붕 신부, 집행위원장 서상진 신부 등이 참석했다.

4대강생명살림불교연대는 개원 취지에 대해 “서울선원은 전 국민과 모든 불자들에게 4대강 개발사업에 대한 진상을 정확히 알리고 합리적 방식으로 4대강 사업이 다루어 질 때까지 종교 · 시민사회단체가 결집해 총력을 기울이기 위한 공간”이라고 설명했다. 이상언 기자

국토해양부 제안 생색내기 비판

국토해양부가 최근 종교환경단체와 언론사 등에 제안한 4대강 사업 관련한 토론이 생색내기용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5월 19일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에 공문을 보내 △생방송 공개토론회 진행 △홍수와 가뭄, 생태, 수질, 경제성 및 추진과정, 문화재 등 5가지 주제 선정 △6 · 2 지방선거 전 토론회 추진 등을 기본원칙으로 토론회를 개최하자고 제안했지만 국토부로부터 수용불가 통보를 받았다.

천주교환경연대(상임대표 조해붕)도 5월 7 · 26일 국토부에 전문가를 포함한 토론회 개최를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개신교 · 천주교와는 달리 불교계는 공개토론 자체에 회의적인 입장이다.

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수경)는 “일을 벌려놓은 사람들이 수습하라는 국토해양부 식의 공개토론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성명서 발표 등의 반대 운동을 이어갈 것” 이라고 밝혔다. 이상언 기자

청소년들이 바라보는 ‘무소유’

거제 파라미타 · 좋은벗 토론회 열어

청소년들이 법정 스님이 실천한 ‘무소유’를 되새겨 보는 시간을 가졌다.

파라미타청소년협회 거제지회(회장 서명희)와 시민모임 좋은벗(대표 박기련)은 5월 19일 학생과 시민을 대상으로 법정 스님 <무소유>를 읽고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행사는 파라미타청소년협회 거제지회가 거제지역 11개 학교 학생, 교사, 시민에게 법정 스님 <무소유> 200권을 무료로 배포하고 마련한 자리로 거제고, 해성고, 옥포고 학생 20여 명과 시민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학생들의 무소유에 대한 해석과 이해의 폭은 다양했다.

“필요한 것은 가지돼 인연이 다하면 버릴 줄 알아야 한다” 김은강(옥포고 2)

“자신의 분수에 넘치는 것은 비워야한다.” 김가람(옥포고 2)

“법정 스님의 위대함은 글이 아니라 실천하는 삶에 있었다.” 장하인(해성고 2)

“법정 스님의 무소유는 자비 실천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전명훈(해성고 1)

무소유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필요하다는 학생도 있었다.

“무소유의 삶이 현실적으로 바람직한지는 새롭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김보람(거제고 2)

이날 우수독서 토론자로 선정된 일반인 참가자 이근화(거제시청 사회복지과 근무)씨는 “그동안 고정관념 속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생각하며 살아왔음을 깨달았다. 그 속에서 나의 갈등과 오해가 생긴 것을 스님의 책을 통해 알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거제불교사암연합회 사무국장 하담 스님은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청소년들에게 좋은 불서를 읽게 하고, 이를 함께 공유하고자 마련한 행사”라고 말했다.

같은 날 파라미타 거제지회는 거제도서관에 법정 스님의 저서 26권을 기증했다. 이상언 기자

조계종 해외교구법 입법예고

총무부장이 교구장 겸직

조계종이 종단 차원의 해외포교와 한국불교 국제화를 위해 해외특별교구 설치를 준비 중이다.

조계종 총무원(원장 자승)은 5월 14일 전문 26조, 부칙 2조로 구성된 ‘해외특별교구법(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해외특별교구법 제정안에 따르면, 해외특별교구의 명칭은 ‘대한불교조계종 해외특별교구’로 하고 해외교구 사찰 명칭은 ‘대한불교조계종 00국 00사’로 하며, 국내 사찰등록 절차에 준하도록 했다.

해외교구 본사는 총무원 총무부에 두어 교구장은 총무부장이 겸직한다.

필요에 따라 지역별 · 국가별 사무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총무원은 일차적으로 아시아, 미국 동부 · 서부, 남미, 유럽, 오세아니아 지역에 사무소를 둘 방침으로 알려졌다.

해외교구의 최고 심의의결기구는 20인 이내의 상임위원회를 두고 연1회 이상 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했다.

입법예고된 해외특별교구법 제정안에 대한 의견은 7월 11일까지 총무원 총무부로 하면 된다.

조동섭 기자

▶12 선지식-보광 스님 ▶4 인터뷰-능인 스님 ▶7 현장-4대종단 기도회 ▶11 강의-향봉 스님



What is Buddha Cookie!! 법法과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1900년대 초에 처음 사용된 포춘쿠키는 쿠키 속 하나하나에 행운의 말 또는 운세가 적힌 쪽지 (슬립지)가 들어있어 특별한 이벤트로 받아들여 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포춘쿠키를 현대식과 불교식으로 재해석하여 생활법구경, 각종 행사 용도에 맞는 문구를 넣어 불교형으로 탄생 시킨 것이 ‘법과(法果)’ 입니다.

법과 이벤트 (Event)

‘법과(法果)’ 속 의 짧은 법구경 말씀은 세대를 가리지 않고 강렬하고 진한 감동을 선물 합니다. ‘법과(法果)’ 속의 메시지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놀라운 힘이 있음을 연구를 통해 증명 되었습니다. 이 ‘법과(法果)’를 활용하여 시작되는 사찰 홍보 · 이벤트는 다른 어떤 유형들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시킬 수 있는 드라마틱한 효과를 약속합니다.



법과 활용 (Use)

이미 많은 사찰과 불교 단체, 기업 등 2,000여개의 곳이 포춘쿠키를 활용한 봉축행사, 템플스테이션, 어린이법회, 광고, 돌잔치, 결혼식, 전시회, 경품당첨 이벤트 등을 통해 효과를 경험했고, 미디어로서의 역활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약청으로부터 검사, 통과 된 안심 먹거리 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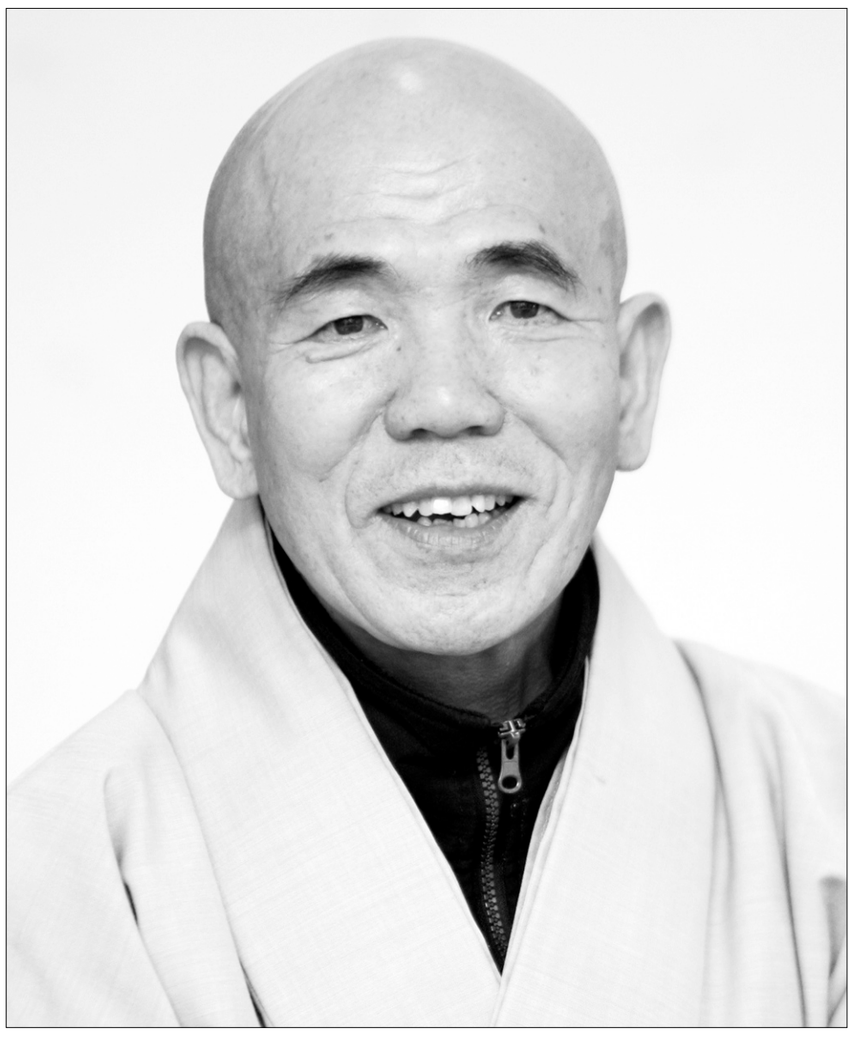


※ 500개 이상 부터 주문 가능하며 원하는 문구를 새겨 드립니다.

법과 현대불교 현불샵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TEL 02)2004-8216
계좌번호 : 농협 053-01-26988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786-22010.5.313:36PM페이지1(1,1)

“좋다 좋다, 나의 삶이라면 받아들이겠다”



출가한지 50년이 넘은 구참수좌 적명 스님은 여름, 겨울 안거마다 결제는 물론 해제 때도 젊은 수좌들과 산철결제를 이어왔다. 스님에게는 자애와 온화함이 묻어났다.

봉암사 수좌 적명 스님

수좌로도 조실 이상 역할 할 수 있어

승려 사유재산 종단출연 유언은 인격모독

적명 스님(寂明, 72). 한국의 수좌로서 손꼽히는 분이다. 출가한 지 50년 된 구참 수좌이지만 “법이 없다”는 스님은 좀처럼 대중에게 얼굴을 알리지 않아왔다. 올해 하안거 결제에 특별히 수행자들을 위해 인터뷰를 응해준 스님에게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요함이 있었다. 평온했다. 그리고 맑고 밝았다. 스님의 법명 그대로 고요함과 맑음, 밝음이 느껴졌다.

하안거 결제를 하루 앞둔 5월 27일 문경 봉암사(주지 원타)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스님의 첫 마디는 “카메라가 터져서 신경이 쓰인다. 이런 일이 익숙하지 않다”는 겸손과 수줍음이었다. 엄하고 냉정하게 사진 촬영을 거부하거나 인터뷰를 빨리 끝내려는 서두름이 아니라 “익숙하지 않다”는 말로 대중에게 이해를 당부했다.

스님은 문경 희양산 봉암사에 대한 간략한 설명부터 시작했다. 적명 스님은 “20여 년 전만 해도 가난한 절이었다. 1982년 봉암사가 종립특별선원으로 지정되면서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됐다.”며 “외형적인 것은 끝났다. 이제는 내면을 갖추기 위한 시간이다. 과거 봉암사는 정진을 위해 찾아오던 공간이었다. 이제 정진을 위해 준비가 됐다. 대중이 함께 정진하고 싶은 곳, 가장 정진 잘하는 곳으로 만들겠다. 이제 지켜보라”고 말했다.

스님은 2008년 대중의 요청으로 은해사 기기암에서 봉암사로 왔다.

적명 스님은 “10년 안에 열 손가락 안에 들 수 있을 만큼 도인을 배출하겠다”며 당신이 봉암사에 와서 세운 서원을 밝혔다.

50년간 선방에서 꼿꼿이 산철 결제를 이어온 스님은 방문객을 위한 첫 주제가 ‘수행’ 이었다.

“선방에서 수행을 정진이라고 합니다. 정진은 심성의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정진은 ‘선정과 지혜’ 로 나누어 볼 수 있지요.”

스님은 쉽게 접근했다. 적명 스님은 “본래마음은 체(體)이고 지혜는 용(用)”이라고 설명했다.

“정(定)을 닦지 아니하면 혜가 이루어질 수 없고, 혜(慧)가 갖추어지지 않으면 정을 닦을 수 없습니다. 호수에 일어난 파랑을 가라앉으면 명경지수(明鏡止水)가 되듯, 물 자체는 고요한 모습입니다. 물이 움직일 때 나타나지 않았던 물 자체의 특성이 맑음과 빛으로 드러납니다. 맑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보여 드러지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정진을 하면 요동쳤던 마음에 고요가 찾아들고, 그때야 비로소 본질적 모습을 보게 된다는 설명이다.

“화두는 본래 심성에 갖추어져 있는 정과 혜를 볼 수 있는 것이지요. 화두라는 것은 깨달은 이가 명경지수의 상태에서 보고, 느끼고, 아는 것입니다.”

스님은 일반인들에게 ‘쉬운 화두’를 던졌다. 쉬운 화두라는 것이 중생에게 있을까마는.

“북두(北斗)를 면남관(面南觀)하라”

‘면남관’ 하라는 것은 얼굴을 남쪽으로 하고, ‘북두’는 북쪽 하늘을 보라는 뜻이다.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깨달은 이에게는 보이는 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기가 막히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보고 느끼고, 느끼는 데로 말하는 것입니다. 참 알 수 없다는 생각이 들면 몰입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화두 참구를 하게 됩니다. 마음이 끊어지면 대상이 절로 끊깁니다. 화두를 제대로 들기만 하면 상대성을 초월하는 지름길이 됩니다.”

삼고초려 끝에 봉암사 수좌로 모셔진 적명 스님은 “법이 없다”는 이유로 조실, 방장 등 직함을 사양했었다. 법이란 무엇인가?

적명 스님은 “법에 대해서 말할 수 있으면 사양할 필요가 없다”며 우문에 답했다. 이어 스님은 “(오늘날 한국 불교계의) 현실을 알고 있다. 지금 현실에서 부처님이나 선사들과 같은 방장이 아니다. 문중, 권속 등의 혼란 속에서 자격이 없어도 방장이나 조실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스님은 “조실 소임이 아니어도 지낼 수 있다면 굳이 조실이라는 이름을 갖을 이유가 없다”며 향곡 스님, 전강 스님 등 선대 선지식인들의 사례를 설명하기도 했다.

이어 스님은 “유수한 선지식이 조실 이름을 안 떼고 지내는데, 조실로서 권능을 행사하지 못하는 바가 있었는가? 이름은 상관이 없다. 수좌로도 조실 이상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적명 스님은 현대인을 위한 간단한 수행법으로는 달마 스님의 이입사행론 중 ‘보원행(報怨行)’을 추천했다. “내가 원해서 일으켜서 이루어진 결과가 지금 현재를 이루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한다. 감수하라. 고맙게 받아들여서 마음에 지난을 일으키지 아니하라. 좋다 좋다, 나의 삶이라면 받아들이겠다는 자세로 살라. 원수를 몸으로 껴안고 도를 향해 나아가라. 내가 원했던 것이니 흔쾌히 받아들여 두려움, 원망, 회피의 약한 마음도 사라지게 된다.”

스님은 인과법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현실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자세를 요구했다.

“부처님 인과법을 믿으면 됩니다. 언제든지 당당하게 현실을 받아드리면 끝까지 매진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자체로 인과법은 부처님의 길을 가게 되는 수행법이고, 부처님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과법에 대해서 깊이 믿는 마음이 들면 그 자체가 해탈입니다. 일상에서 불교적인 삶을 추구한다면 인과법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십시오.”

적명 스님은 정부의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초계(草繫) 비구 설화를 들어 무조건적 사업에 대해 경고했다. 스님은 “도적에게 물건을 다 빼앗기고 풀에 묶인(草繫) 비구가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행여나 풀줄기들이 끊어져 풀들이 상할까 두려워 풀을 풀지 않고 모든 고통을 억지로 참아냈다. 불교의 자비사상과 생명존중사상은 이와 같은데 어떤 목적에 의한 살생과 개발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스님은 “개발이 필요한 곳에는 개발을 해야겠지만 온 산지천하를 청계천으로 만들려고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스님은 후학들에게도 말씀을 아끼지 않았다.

적명 스님은 “고원한 깨달음의 세계에 대해서는 듣는 이들에게 감동을 전할 것 같지는 않다”면서도 “다만 수행의 길을 가다가 깨달음에 이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삶 자체가 행복한 기쁨의 삶이다. 이 길에 대해서 고달파하거나 힘든 길이라는 생각을 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수행의 참뜻을 이해하려면 적어도 순일의 상태를 체험해야 합니다. 일체 번뇌를 벗어나 사는 삶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자기 마음의 기본 방향을 잡아 정진을 통해 순일을 체험하십시오. 고행이라는 것이 겉모습에 지나지 않음을 알 것입니다.”

이어 스님은 “부처님은 고행하지 않았다. 진정한 선정에 들었을 때는 고행이라 할 수 없다. 고통스러웠다면 진정한 삼매가 아니다. 희열이 있어야 한다. 선정은 ‘희락(喜樂:기쁨과 즐거움)’이라고 했다. 충만한 행복감을 체험한 이들은 수행의 길을 절대 포기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적명 스님은 희열의 상태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철저한 경험에서 우러난 말씀이었다.

스님은 “순수 희열은 변화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속성을 갖는다. 희열의 상태는 ‘아무것도 아닌 상태’이다”라고 말했다. 이때 이것이 오롯한 내 자신의 모습이라는 것.

적명 스님은 “<열반경>에는 열반의 네 가지 특성을 상락아정(常樂我淨)이라고 말한다. 진리의 문턱에 이르게 됐는데 희열을 느끼지 않았다는 것이 이상하다”고 강조했다.

“처음에는 매일 10분씩 반복하세요. 화두참선이면 좋겠지만 염불, 절, 주력 무슨 수행을 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늘려가세요. 처음에는 힘들겠지만 조금씩 하다보면 즐거울 때가 있습니다. 매일 이렇게 반복하다보면 순일의 체험을 하게 됩니다. 빗물이 떨어져 바위에 구멍이 뚫리는 것과 같이 말이죠. 이런 간절한 마음은 곧 순일한 마음이고 순수한 마음 상태를 말합니다. 간절함, 진실함이 나거나 말거나, 마음을 갖고 싶거나 말거나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스님은 조계종 ‘승려 사유재산 종단 출연령’에 대해 비판적이었다. “수행자의 인품과 자질을 믿지 않고 강제적으로 반환한다는 것은 ‘인격모독’”이라고 일축했다.

적명 스님은 “부처님은 걸식을 기본으로 했으며 근본 계율에서 승려의 사유재산을 용납하지 않았다. 사유재산이 있다는 것이 옳은 문제는 아니지만 현대사회에는 삶의 형태가 바뀌면서 스님들도 돈 없이는 살 수 없게 됐다”며 “부처님 계율대로만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스님은 “스님들의 재산은 불연에 의한 것으로, 알아서 불교계의 발전을 위해서 자율적으로 사용될 부분을 의무적으로 유서를 쓰고, 사유재산을 출연하는 것은 인격모독행위라고 생각한다”고 반대를 분명히 했다.

글=이상언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청동불상 조성전문

청동불상 · 천불 · 삼천불 · 만불 · 개금 · 탱화 · 금고 · 범종



지장 보살님 석가모니 부처님 관음 보살님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시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언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청동불 40여분 전시중

인터넷으로도 성화불교전시관의 작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화불교전시관 부처님 상호를 보시는 방법
인터넷에서 검색창에서[114도우미] 검색 →
114도우미 홈페이지에서 [성화불교전시관] 검색 →
사진첩 클릭

● 성화미술원 내 전시관 : 031)591-1022
● 휴대폰 : 011-302-1022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 산 5-27번지
성화미술원 공장내 불교전시관
주 · 야 상담 합니다

금강대학교

2010학년도 후기 대학원 신입생 모집

1. 모집과정 및 인원

학 과	전 공	모 집 인 원	
		석사과정	박사과정
사회복지불교학과	사회복지불교학전공	00명	0명

2. 모집일정
가. 원 서 접 수 : 2010. 6.10(목) ~ 6. 25(금)
나. 면 접 : 2010. 7. 1(목) 15:00 예정
다. 합격자 발표 : 2010. 7. 9(금) (본 대학교 홈페이지 www.ggu.ac.kr에 공고)

3. 선발방법 : 서류심사 및 면접 · 구술

4. 기타
가. 인문한국(HK) 지원사업의 인문분야에 본 대학교 불교문화연구소가 선정되어 향후 10년간 약 80억원의 국고지원(매년 8억)을 받습니다.
나. 인문한국(HK) 지원사업에 연구보조원으로 선발되면 매월 일정액의 인건비 (석사과정 : 월 60~80만원, 박사과정 : 월 80~100만원)를 지급합니다.
다. 성적이 우수한 자에게는 각종 장학혜택이 있습니다.
라. 2010학년도 후기 대학원 신입생(연구보조원 선발자 제외) 전원에게 다음과 같이 수업료를 감면합니다.
1) 석사과정 : 수업료의 50%를 감면함 2) 박사과정 : 수업료의 35%를 감면함
마. 본 대학원 재학 중 조교로 임용할 수 있습니다.
바. 재학 중에는 기숙사에 입사할 수 있습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ggu.ac.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강대학교 GEUMGANG UNIVERSITY
320-931 충남 논산시 상월면 대명리 14-9
Tel:(041)731-3050 Fax:(041)731-3049

교류 31주년 "자연 · 인류 공존 모색하자"

日 엔랴큐지서 한일불교문화교류대회… 한일불교계 경복궁 관월당 반환 적극 협력키로

교류 31주년을 맞은 한 · 일 불교계가 그동안의 선린우호 관계를 바탕으로 자연과 인류의 공존공생을 모색하고 현대사회의 위기에 공동대응키로 결의했다. 특히, 일본 가마쿠라현 사찰 고토쿠인(高德院)에 있는 경복궁 건물인 관월당(觀月堂) 반환에 양국 불교계가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회장 자승, 조계종 총무원장)와 일한불교문화교류협의회(회장 미야바시 쇼겐)은 5월 25~29일 일본 천태종 총본산인 교토 히에이산 엔랴쿠지(延曆寺)에서 제31회 한일불교문화교류대회를 개최했다.

양국 불교계는 25일 교토 브라이튼 호텔에서 열린 환영만찬에 이어 26일 엔랴쿠지 콘본추우도오(根本中堂)에서 본행사인 세계평화기원법회를, 엔랴쿠지 불교회관에서 '양국 불교를 배우다'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봉행했다.

이어 양국 불교계는 공동선언문을 통해 한 · 일 불교도가 간월당 반환에 협력하는 것을 비롯해 현대사회의 위기에 대한 해법을 모색 · 실천하고 지구생명 보호에 헌신진력하자고 밝혔다.

세계평화기원법회는 53번의 법회를 알리는 타종과 일본 천태종 종정 한다 고준 스님 입장, 개회선언으로 시작됐다. 이어 법회는 한다 고준 스님의 부처님 전에 삼배와 삼귀의례, 일한불교문화교류협의회장 미야바시 쇼겐 스님 표백문, 한일불교문화교류협회 부회장 혜정 정사(진각종 통리원장)의 인사말로 시작됐다.



5월 26일 교토 히에이산 엔랴쿠지 콘본추우도오에서 봉행된 세계평화기원법회에서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장 자승 스님(왼쪽 두 번째)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일본 천태종 종정 한다 고준 스님.

혜정 정사는 "한일불교문화교류는 분별과 장애를 뒤어넘는 무애행이 돼야 한다"면서 "부처님 법음을 올바르게 전수해 자비와 보살행을 실천하고 인류공생의 미래를 열어가자"고 말했다.

혜원 스님(동국대)은 주제발표 '현대 한국 · 일본의 선원청규와 고청규'에서 해인사 소림선원과 일본 임제종 대덕사파(大德寺派) 선원청규를 비교해 양국의 선원청규에 나타난 선종 교단의 특징을 살폈다.

스님은 "한 · 일 양국의 선원은 백장청규(고청규)의 정신을 계승했지만 한국에서는 금지되고 만행으로 대체된 탁발수행이 일본에서는 중요한 수행법으로 남아있는 점, 스님의 사후에 재산을 사찰에 귀속시키는 한국과 달리 일본에서는 절과 개인 재산을 구분해 처리하는 점 등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엔랴쿠지 주지 타케 카쿠죠 스님은 '일본 불교의 모산 히에이산의 가르침과 실천'을 통해 일본 천태종 개조(開祖)인 사이초 스님(766~822)이 창건한 일본 불교의 대표적 성지인 히에이산의 역사 등에 대해 발표했다.

한편, 이번 대회에는 한 · 일 불교계 인사 300여 명이 참석했다. 한국 측에서는 한일불교문화교류협회 회장 자승 스님과 이사장 정산 스님, 조계종 군종교구장 자광 스님 등 150여 명이 참가했다. **조동섭 기자**

교류협의회 부회장 홍파 스님 상축, 법회 시작을 알리는 계송 염불, <반야심경> 봉독,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 회장 자승 스님 인사말,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 부회장 인공 스님,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 축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자승 스님은 인사말에서 "한 · 일 양국 불자들은 항상 갈등과 분쟁의 소용돌이 속에 휩싸인 오늘의 세계를 향해 상생과 화합, 평화와 공존의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 자연과 인간, 인간과 인간이 평화 속에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양국 불교가 소통 · 화합하면서 세계 속의 불교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미야바시 쇼겐 스님은 대회사를 통해 "이번 대회의 의의는 지난해 여주 신륵사에서 열린 제30차 대회에서 건립된 '인류화합공생기원비'의 비문에 나와 있듯이 한일 양국의 오랜 역사의 흐름 속에서의 불행한 시대를 뛰어넘어 미래지향으로 세계평화, 인류화합공생을 양국 불교계가 어떻게 실천하고 불국정토를 실현할 것인가에 있다"고 말했다.

인공 스님(태고종 총무원장)은 "'양국의 불교를 배우다'를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대회를 통해 양국 불교우호교류가 더욱 증진되고, 서로 다른 문화와 양식에 의해 전승 · 발전돼 온 불교의 역사와 수행, 문화가 서로 폭넓게 이해돼 양국이 세계불교문화의 발전과 중흥을 이끌 중요한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축사했다.

조창희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장은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심을 바탕으로 한 원융회통의 정신은 인류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할 한 줄기 희망의 빛이다. 불교사상이 한일불교문화교류대회를 계기로 더욱 꽃을 피워 지구촌 구석구석 퍼져나가길 기대한다"고 유인촌 장관 축사를 대독했다.

이어 학술대회는 한일불교문화교

"한일 교류 생명 · 환경 · 평화에 중점"

한일불교문화교류협회장 자승 스님



"한 · 일 불교계는 지난 31년 동안 충분한 교류의 토대를 일궈왔습니다. 이제는 생명존중, 자연환경 보호, 세계평화 기원 등에 중점을 두고 지구적인 문제에 구체적 해법을 제시할 때입니다."

한일불교문화교류협회장 자승 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은 5월 25일 일본 측 환영만찬에 앞서 일본 교토 브라이트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비행기를 타고 일본에 오는 동안 미래지향적인 한일불교 관계에 대한 그간의 고민을 정리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스님은 "지난해 여주 신륵사에서 열린 제30차 한일불교문화교류대회에서 인류화합공생기원비를 세우는 성과도 있었다. 교류 31년을 넘긴 이제는 한 · 일 불교계가 친목을 도모하는 단순한 교류가 아닌 인류가 처한 공통의 문제에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해답을 내놓아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자승 스님은 "일본불교는 상업화됐다는 비판 속에서도 기발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수익성을 높여왔다"면서 "승가 노후복지, 교육개선 등 지출은 느는데 반해 한정된 분담금으로 빨간불이 켜진 종단 재정 상태를 건강하게 만들려면 일본불교의 수익모델을 벤치마킹할 필요성이 있다"고도 말했다.

한편, 자승 스님의 이번 한일불교문화교류대회 참가는 지난해 10월 스님의 조계종 총무원장 취임 이후 첫 번째 공식 해외행사 참석이다.

조동섭 기자

일본 천태종 본산인 **엔랴쿠지**는 788년 일본 천태종 조인 전교대사 사이초 스님이 창건했다.

엔랴쿠지는 토오토오(東塔), 사이토오(西塔), 요카와(橫川) 등 삼탑(三塔)으로 나뉘어 있다. 히에이산 전체가 엔랴쿠지라 불린다.

엔랴쿠지 발상지인 토오토오에는 창건 이래 1200년을 꺼지지 않고 빛나는 '불멸의 법등'이 있는 콘본쥬우도오(根本中堂)와 천태종 스님들이 수계를 받는 카이당인(戒壇院), 법화대회 등 경전 강의를 여는 다이코오도오(大講堂), 862년 엔닌 스님이 창건한 훗케소오지인(法華總持院), 엔랴쿠지가 소장하고 있는 국보 등 문화재가 전시된 고쿠호오덴(國寶殿) 등이 있다.

사이토오는 토오토오에서 북쪽으로 1km 거리에 위치하며 엔랴쿠지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인 샤카도오(釋迦堂) 등이, 사이토오에서 북쪽으로 4km 거리에 위치한 요카와에는 848년 엔닌 스님이 개창한 요카와 추우도오(橫川中堂) 등이 있다.

1200년 역사의 엔랴쿠지의 불교문화와 히에이산의 천혜의 경관은 1994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됐다.

미륵사지탑 청동합서 유물 4800여 점

국립문화재硏 26일 발표

2009년 1월 익산 미륵사지석탑(국보 제11호)에서 금동사리호 등과 함께 발견된 청동합에서 구슬류, 금제장식, 직물류 등 다량의 유물이 발견됐다.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김봉건)는 "익산 미륵사지석탑에서 출토된 청동합(靑銅盒)을 보존처리하는 과정에서 국내에서는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다량의 유물을 수습했다"고 5월 26일 발표했다.

청동합은 발견당시 심한 외부 부식으로 인해 개봉이 미뤄졌던 것으로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재보존과학센터가 보존처리를 실시하면서 내용물이 확인됐다.

청동합에서는 보존상태가 양호한 금제구슬 370여 점과 금제고리, 금제소형판 등 많은 양의 금제품과 유리구슬, 진주, 곡옥 등 4800여 점의 유물이 수습됐다. 그 중 가장 큰 4번 합에서는 4400여 점의 유물이 수습됐고, 1점의 곡옥은 채색된 금장식 모자가 씌워져 있어 매우 이채롭다. 또, 직물과 향분(香粉)으로 추정되는 유기물질 등이 확인됐다.

미륵사지에서 출토된 청동합은 운두가 낮은 둥글넓적한 형태로 모두 6점이다. 크기는 직경 5.9~8.3cm, 높이 3.2~4.6cm 정도인데, 주조(鑄造)로 제작됐다. 대부분의 합은 문양이 없지만 6번 합에는 초화(草花)무늬와 당초(唐草)무늬가 새겨져 있다. 1번 합 뚜껑에는 '上部達率目近'(상부달솔목근)이라고 음각된 명문이 확인됐는데 이는 상부(上部)의 달솔(達率?백제 16관등 중 제2품)인 목근(目近)이라는 사람이 시주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청동합과 그 수습 유물에 관한 일차적인 조사내용은 5월 27~28일 국립고궁박물관 강당에서 개최된 '백제 불교문화의 보고 미륵사'에서 소개됐다.

조동섭 기자



익산 미륵사지 석탑 출토 청동합 뚜껑.

진각종 안산심인당 지진불사 봉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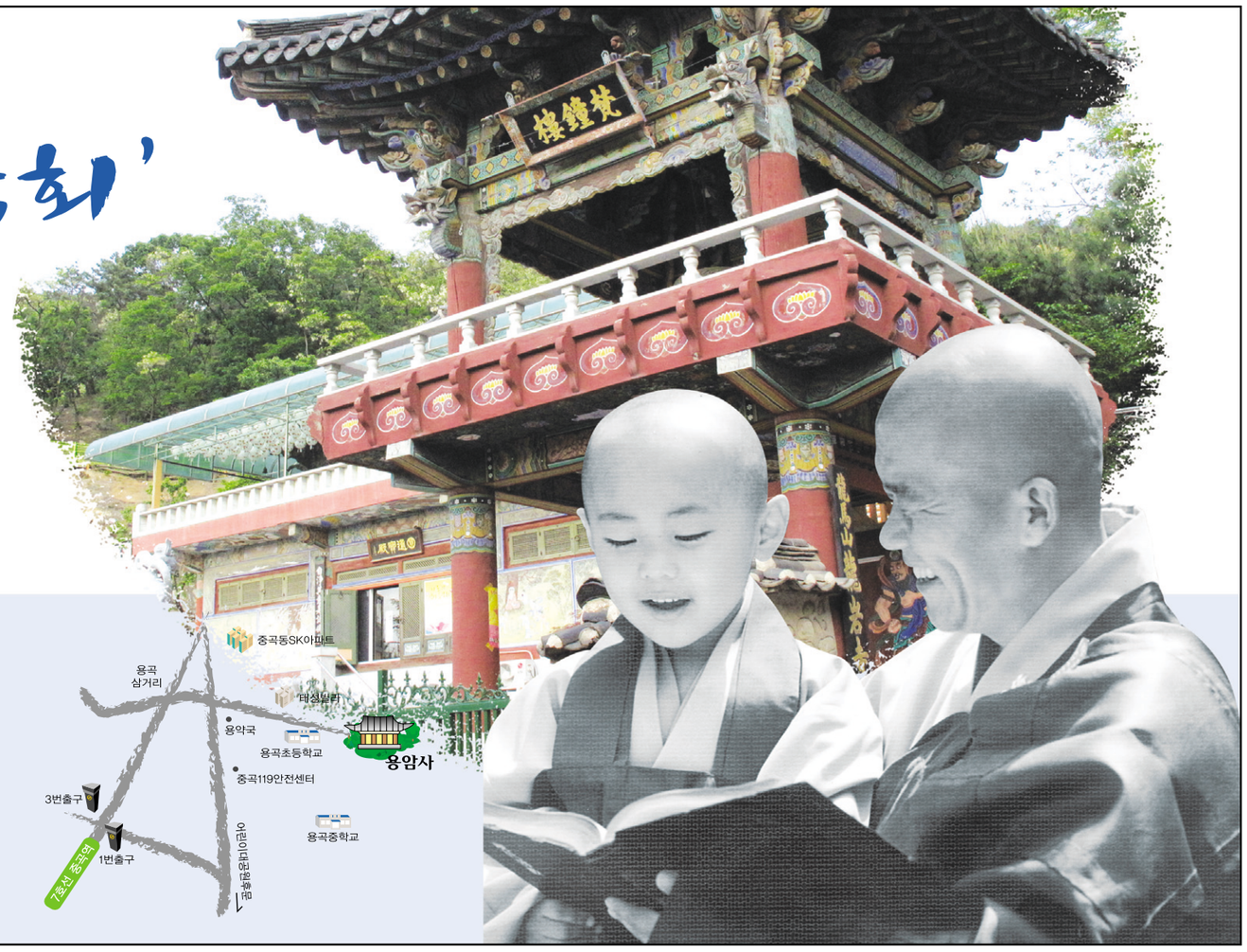
진각종(통리원장 혜정)은 5월 24일 안산시 사동 현장에서 (가칭)안산심인당 신축 지진불사를 봉행했다.

통리원장 혜정 정사는 인사말에서 "안산심인당 지진불사는 내 안에 법신 비로자나부처님을 모시고 전법의 서원을 세워 밀엄정토를 여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산심인당은 1145㎡에 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된다. 1층에는 자성학교와 주거공간, 2층에는 심인당이 들어설 예정이다. **조동섭 기자**

자비실천도량 용마산 용암사

'나눔의 산사음악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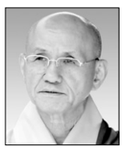
초대의 글

한줄기 빛이 마음의 어둠을 밀어낼 때, 운무 뒤덮힌 용암사 종소리 들리고!
빛과 여백은 색이 없지만 어느 물감보다 울림이 큽니다.
그 울림에 때로는 피안의 세계를 산책하고픈 유혹으로 밀려 가는 것입니다.
우리 용암사에서 '나눔의 산사음악회'를 개최코자 하오니 부디 참석하셔서 함께
나누는 마음으로 자리를 빛내 주시길 바랍니다.

용암사 주지 관오 합장

일 시 : 2010년 6월 16일 수요일 (음, 5월 5일) 오후 4시부터
장 소 : 서울 광진구 중곡 4동 176-42 용마산 용암사 경내
문 의 : 02)446-1571
사 회 : 이상운(개그맨)
출연진 : 설운도. 도시의아이들. 김원배(탤랜트). 김활선(불자가수 회장).
변우식 Baritone(성악/삼육대교수). 주경숙무용단. 길영은(골든팝).
김태연. 강억배(통기타가수-우정출연). 용덕중. 품바. 이범웅악단

일 주 문



월주 스님, 실상사 조실 추대

지구촌 공생회 이사장 월주 스님(조계종 前 총무원장)은 5월 27일 실상사 보광전에서 실상사 조실로 추대됐다.



구인사 창건 65주년 기념법회

천태종 총무원장 정산 스님은 6월 16일 총본산 단양 구인사에서 구인사 창건 65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한다.



월정사 탄허대종사 휘호대회

평창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은 6월 5일 월정사 경내에서 탄허대종사 휘호대회를 개최한다. (033)339-6800



인드라망 여름 귀농학교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상임대표 도법 스님은 6월 12일 남원 실상사 귀농학교에서 여름귀농학교 1기 입소식을 봉행한다.



통도사 영산회상도 특별공개

통도사 성보박물관장 현근 스님은 6월 27일까지 영산전 영산회상도(보물 제1353호)및 다보탑벽화 모사본을 특별 공개한다.



파라미타 청소년 해외체험

파라미타 청소년협회 회장 도후 스님은 7월 26일~8월 6일 뉴욕 등 미주지역에서 청소년 해외체험을 실시한다.



봉은사 4대강특별콘서트

서울 봉은사 주지 명진 스님은 5월 29일 오후 7시 경내에서 4대강특별콘서트 '강의 노래를 들어라'를 개최했다.



다문화가족 한글법화경 사경대회

서울 천태종 명락사 주지 무원 스님은 6월 13일 명락사 4층 법당에서 다문화가족 한글배우기 <법화경> 사경대회를 개최한다.

■ 종교편향대책위 사무총장 종연 스님 임명



종교편향대책위 사무총장에 종연 스님(수미정사 주지)이 임명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5월 1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헌법파괴 종교편향 종식 범불교대책위원회' 사무총장에 종연 스님을 임명했다.

종연 스님은 학능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2000년 송광사에서 범룡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조동섭 기자**

interview

"불교복지학회 창립 서원합니다"

개관 10년 일산노인종합복지관 관장 능인 스님

"10년간 어르신들과 함께 했지만 많은 분들이 오셔서 생활하다보니 긴장의 연속입니다."

고양시 일산노인종합복지관장 능인 스님(사진 · 중앙승가대 교수)은 예측불허인 어르신들이 행여 넘어지진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하루하루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보낸다고 한다.

어르신을 모시고 사는 곳인 만큼 능인 스님이 직원들에게 당부하는 것은 예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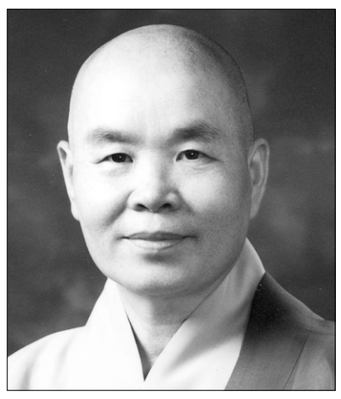
스님은 "복지관 관훈이 온화한 얼굴, 부드러운 말씨, 자비한 마음이다. 직원들이 <무량수경>의 화안애어(和顔愛語)를 가슴에 새기고 있다"고 말했다.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이사장 각현)이 위탁운영 중인 일산노인종합복지관은 2000년 4월 20일 개관했다. 개관 당시부터 초대 관장에 취임한 능인 스님은 10년간 한결 같이 복지관을 지켜왔다.

스님은 "10년 동안 복지관을 모범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기도를 통한 정진력에 있다"고 말했다.

"복지관 업무가 세속적인 행정 업무에 가깝다 보니 관장에게 부여된 휴가가 있습니다. 저는 1년치 휴가를 하나로 모아서 12~1월 초 인도 보드가야에서 용맹정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 제가 세운 원력을 실현시킬 힘을 얻고 있습니다."

능인 스님은 2005년부터 인도에서 열리는 '세계평화 기원 대법회'에 휴가를 맞춰



거르지 않고 참석해 왔다. 그곳에서 스님은 하루 9시간씩 8일간 용맹정진을 한다. 그렇게 기도를 통해 원력을 다져온 스님에게는 어떠한 어려움도 장애가 되지 못했다.

불교사회복지에 한마음으로 원력을 세워 실천해 온 스님의 발심은 40여 년 전 한 보살의 사연에서 비롯됐다.

"1970년대 초반이었습니다. 장애를 가진 자녀를 둔 한 신도가 제가 머물고 있는 절에 찾아왔습니다. 그 보살님은 자녀가 성장하면서 감당하기가 버겁고 나중에 다른 형제에게 짐이 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호소했습니다. 당시에는 불교계가 운영하는 복지시설이 거의 없었습니다. 결국 그 신도는 가톨릭이 운영하는 꽃동네를 선택했습니다. 꽃동네에 자녀를 보내기 위해 그는 개종을 해야 했습니다."

당시 능인 스님은 고민하는 신도에게 그렇게 하라고 했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마음이 아팠다. 그때 스님은 사회복지에 뜻을 두게 됐다. 그 일이 있고 얼마 되지 않아 스님은 일본행을 선택했고 그곳에서 10년간 사회복지를 공부했다.

능인 스님은 "과거에 비하면 지금은 불교계 사회복지가 나아졌지만 아직도 보완해야 할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출가 재가를 막론하고 불교계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이 가장 필요합니다. 자원봉사는 몸으로 하는 보시입니다. 특히 불자들에게 많은 후원금을 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작은 정성이 모여 복지관에서 큰일을 해낼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실천하길 바랍니다."

10년을 한마음으로 복지관을 운영해 온 스님에게는 아직 못 이룬 원력이 하나 있다. 불교사회복지 관련 학회를 창립해 불교사회복지의 학문적 토대를 튼튼히 하겠다는 것.

스님은 "불교사회복지에 뜻 있는 분들이 모여 관련 학회를 만들었으면 한다. 동국대, 중앙승가대를 비롯한 종립학교의 연구자들이 나서 학회를 만들어 불교사회복지의 이론적 토대를 구축 · 활용한다면 불교사회복지가 더욱 더 발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선주 기자 zoo211@buddhapia.com

한국불교조계종 종정 · 총무원장 취임법회



한국불교조계종은 5월 27일 문경 백봉사에서 봉행된 제7대 종정 · 총무원장 취임법회를 봉행했다.

사단법인 한국불교조계종은 5월 27일 총본산 문경 백봉사에서 스님과 사부대중 3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제7대 종정, 총무원장 및 임원진 취임식과 나라안정 기원 불교도 대법회를 봉행했다.

신임 종정 수경당 법일 대종사는 취임사에서 "탐진치 삼독을 없애고 자신의 불성을 깨닫는다면 천안함 사태 등 국가의 어려움이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임 총무원장 대봉 스님은 "종단발전의 기틀이 될 인재불사인 승가교육과 복지사업에 중점을 두고 힘을 모아 종단운영의 새로운 청사진을 마련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손법천 대구지사장

불교소장학자 연구지원사업 공모

불교학연구지원사업회(이사장 법상)는 제7회 불교소장학자 연구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사업 분야는 △불교 관련 박사학위 논문 △불교 관련 번역이다.

불교 관련 박사학위 논문 지원 대상은 2명이며, 학위취득시기 제한은 없다. 지원액은 1인당 500만원이다. 불교 관련 번역 지원 대상도 2명이다. 지원 분야는 인도 · 동아시아 불교학 관련 원전 및 외국어 단행본이며, 1인당 1000만원씩 지원된다. 접수는 6월 21~26일 이메일(kbrf@paran.com)로 받는다. 이력서와 함께 박사학위 논문 지원사업 응모자는 논문을 파일로, 번역 지원사업 응모자는 번역계획서 및 번역 원고 1부를 제출해야 한다. 심사결과는 9월 중 개별통지한다.

조동섭 기자

고려대 불자교우회 LA 지부 창립



고려대학교불자교우회가 5월 22일 미국 LA 달마사에서 미국 LA지부 창립법회를 개최했다.

이날 창립법회에는 달마사 일명 스님, 손법락 LA지부 회장, 고대 불자교우회 최평규 부회장 겸 워싱턴DC고대불자교우회 고문과 창립회원 등 2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이날 법회에 참석한 불자들은 "미국 LA지부 창립을 계기로 미국 내에서 한국불교가 성장하는 데 작은 동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서원했다.

LA고대불자교우회는 지난 1월 워싱턴DC고대불자교우회 창립에 이어 두 번째로 창립됐다.

이상언 기자

지광 김동수 열사 30주년 추모식



5 · 18민중항쟁 당시 불자로서 도청에서 산화한 지광 김동수열사 30주년 추모식이 5월 27일 김 열사의 모교 조선대 교정에 세워진 추모비 앞에서 봉행됐다.

이날 추모식에는 광주불교환경연대 공동대표 시각 스님, 문빈정사 주지 법선 스님, 김동수 열사 부친 김영석 옹, 김동수열사 추모사업회 이순규 회장, 대불련 총동문회 차승태 사무총장,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박경호 회장 등이 참석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서광사 청소년 장학금 지급

경기도 안양시 서광사(주지 일광)는 5월 14일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경기 지역의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지속적인 인재불사에 진력할 것을 다짐했다. 서광사는 안양, 과천 교육청 관내에 속한 70개 학교로부터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모범을 보인 학생들을 각 1명씩 추천받아 70명 학생들에게 14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나은 기자

종달 이희익 법사 20주기 추모법회

재가참선수행단체인 사단법인 선도성찰나눔실천회(이하 선도회)는 6월 6일 오후 1시 30분 경기도 양평 정곡사에서 종달 이희익 법사(1905~1990) 입적 20주기 추모법회를 봉행한다.

종달 법사는 선도회 초대법사로 수많은 재가불자들에게 참선을 지도했다.

선도회는 이날 종달 법사 기념문집 <삶과 수행은 둘이 아니네>를 출간, 헌정한다. **정성운 기자**

법륜 스님과 함께 역사기행

좋은벗들(이사장 법륜)은 '법륜 스님과 함께 떠나는 역사기행'을 실시한다.동참 희망자는 6월 20일까지 좋은벗들 홈페이지(www.goodfriends.or.kr)를 통해 신청해야 하며, 선착순 100명이다.

이번 역사기행은 백두산과 고구려 · 발해 · 항일 유적지를 8월 1일부터 8일까지의 일정으로 진행하며, 법륜 스님이 안내한다.

정성운 기자

제1기 '화목한 가정 행복한 가정 만들기'

건강가정의 육성을 위한 전문인 교육생 모집

현대를 살아 가고 있는 우리는 아직까지 직장과 가정사이에서 갈등하고, 조화롭게 양립해 나가기 힘든 사회적 여건의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발생하는 출산률 저하와 이혼, 가족해체로 인해 각 분야에서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생깁니다. 발생되는 사회의 부정적 제반문제를 최소화 하고 건강가정의 육성과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의 지킴을 위해 상호존중과 균형있는 역할 분담 등 미래지향적인 일 · 가정 양립문화 확산을 위한 전문인 교육을 실시합니다.

본 프로그램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하여 가정폭력 상담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보다 질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상담윤리 7시간, 여성학 8시간, 가정복지 20시간, 상담학 13시간, 가족심리 치료통합 접근 20시간, 다문화 복지론 8시간, 가정폭력 · 성폭력상담 14시간, 상담실습 10시간 등) 다양한 접근으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 건강가정의 육성을 위한 전문상담 교육내용 -

1. 대 상 : ① 자원봉사 희망자
②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자
③ 가정폭력 상담원 및 1366 상담요원 희망자
④ 다문화가정 상담소 설치 희망자
2. 제출서류 : 경력증명서, 수강신청서
3. 연수기간 : **2010년 6월 28일 ~ 8월 10일까지 (오전 10시 30분 ~ 15시)**
4. 장 소 : 서울여성플라자 3층 교육장 (TEL 02)810-5075)
5. 수 강 료 : 9만원 (당일 10만원)
6. 모집인원 : 50명 (선착순)
7. 신청방법 : 입금 후 전화신청. 입금처 : 우리은행 098-088769-01-501 예금주:한국여성불교연합회
8. 신청기간 : 2010년 6월 2일 ~ 6월 28일까지
9. 문 의 처 : 02)738-5586 / 02)735-0406
10. 본 프로그램의 수료증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인정 합니다.

※ 본 프로그램 이수자에게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한 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자격을 수여함.

▣ 주 관 : 사단법인한국여성불교연합회 중앙본부 ▣ 후 원 : 여성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허가 공익법인 한국평생교육기구

보 건 식 품 처 방 사

Health Food Prescription Counselor

보건식품처방사란?

국가에서 인정한 식품 원재료를 활용하여 보건식품을 개발하고 개인의 체질에 따라 식품을 맞춤 처방하는 전문가로서 보건식품 처방원을 개원할 수 있음 .

보건복지가족부공익법인 대한보건의료진흥회(자격검정)

교 육 과 목	교 육 기 간
· 인체생리학 (인체해부학) · 자연치유의학 · 식품영양보충학 · 식의학 (동양의학, 양생학, 변증) · 중탕이론 및 실습 (법제론) · 보건식품처방론 (변증학, 방제학) · 약용식물학, 총 7개 과목 ※특강 : 자연건강법 (자세교정, 표정관리 및 웃음치료, 최면요법, 기공, 양자파동), 식품위생법규, 건강식품업소탐방, 약초기행실습, 보건식품효소발효액	14주 과정 토요일 반

교 육 생 상 시 모 집

중앙교육원 - 홈페이지 ***www.klle.or.kr***

접수처 :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2가 130-1 신한은행빌딩 5층 / 수납처 : **한국보건교육원** (신한은행 100-025-095930)

문 의 : Tel. 02)3147-2020. 02)393-5111

지부교육원

영남교육원	055-543-3155	부산교육원	051-441-0111	울산교육원	052-260-1037
호남교육원	063-254-5529	지리산연수원	063-635-5112	제주교육원	054-755-7588
대구교육원	053-566-1116	해운대교육원	051-757-9990	충청북부교육원	043-263-9966
광주교육원	062-672-5432	경남서부교육원	055-932-5877		

교육과학기술부허가공익법인/한국평생교육기구

한 국 보 건 교 육 원

KOREA EDUCATION CENTER FOR HEALTH

지역민 위한 작은음악회
송광종합복지관

송광종합복지관(관장 도제)는 5월 20일 복지관 앞마당에서 지역 어르신 500여 명을 초청해 작은음악회를 개최했다.

행사에서는 어르신을 위한 산채비빔밥 공양과 육개장 등 점심과 품바공연, 인기가수 공연에 이어 지역민들의 장기자랑과 노래자랑이 이어졌다.

관장 도제 스님은 "종교는 서로 다를지라도 지역주민들이 부처님 오신날의 의미를 알았으면 해서 작은 잔치마당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선 15일에는 복지관 강당에서 전남대 치과대학 의료봉사단 30여 명이 지역 어른들을 위한 치과질환 진단 및 치료 봉사를 펼쳤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전국실버체조경연대회
우수상 수상
고창군노인복지회관



고창군노인복지회관(관장 도완)의 9988생활체조팀(변영철 외 23명)이 5월 21일 경남 남해군 보물섬 축제의 일환으로 진행된 제5회 전국실버체조경연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전국에서 21개팀이 참가한 대회에서 9988생활체조팀은 '쿵짝쿵짝, 유쾌상쾌통쾌'란 음악에 맞춰 활기차면서도 노년에 도움이 되는 체조를 구현해 심사위원과 관객들로 부터 큰 호평을 받았다.

강미숙 강사는 "9988생활체조팀이 회원간 한마음으로 꾸준히 연습한 결과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것 같다. 고창군 지역 어르신들이 건강한 노후의 삶을 즐길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9988은 99세까지 팔팔하게 살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실용 한·영 불교용어 사전 펴내
6월 6일, 부산 홍법사 국제포교연구원 개원 동시 발간

부산 도심 포교 중심도량인 홍법사가 <실용 한-영 불교용어 사전>을 펴낸다. 이에 맞춰 홍법사는 국제포교연구원을 개원한다.

부산 홍법사(주지 심산)은 6월 6일 법당에서 국제포교연구원 개원식 및 <실용 한-영 불교용어 사전>출간 법회를 봉행한다.

주지 심산 스님은 "우리나라 불서를 영어로 계속 번역·발간해 국제 포교의 시금석이 될 것이다. 그 시작으로 <실용 한-영 불교용어 사전>을 6월 6일 불자들에게 첫 선을 보이게 됐다"고 말했다.

국제포교연구원 초대원장으로는 이 사전을 직접 편찬한 박영의 충남대 영문과 교수가 취임한다. 박영의 원장은 지난 5년간 10권의 영문 법어집을 번역하면서 불교용어 4300여 개를 추려 사전에 담아냈다.

홍법사가 펴낸 사전은 '가나다' 순이 아닌 '산문과 삼보' '전각' '불상과 보살상' '경전 및 논장' '예불 및 법회순서' '일반불교영어' 등 주제어 순으로 구성됐다.

또, 시중의 불교사전에 수록된 빨리어와 산스크리트어 등의 원어는 중요단어 외에는 최대한 생략하는 대신 용어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경전 문구와 고승 법어, 동서고금의 고전의 게송 등 다양한 인용을 더해 실용성을 높였다.


부산 홍법사 국제포교연구소 초대소장 박영의 교수가 5월 21일 홍법사 봉축법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우리말 발음을 익히려는 외국인을 위해 영어 설명 맨 앞에 음역을 첨가한 점도 눈에 띈다. 선(禪)은 'Zen'이 아니라 'Seon'이라 표기하고, 스님은 'Monk'나 'Priest'가 아닌 'Sunim(Snim)'이라고 부르도록 한 것.

박 원장은 "이 사전은 학술적인 것이라기보다는 국내외 재가불자 및 일반인을 위한 것으로, 불교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불교개론 또는 입문 교재로 요긴하게 쓰일 것"이라며 "이에 이 사전의 이름 앞에 '실용'을 붙이고, '사전'도 사전(辭典)이 아닌 '事典'(사전)이란 용어를 붙였다"고 설명했다. 박영의 원장이 처음부터 1000페이지 가량의 방대한 사전을 계획한 것은 아니었다. 6년 전 지인의 부탁으로 외국인에게 템플스테이를 안내하기 위해 외국어 안내서를 구하려 했지만 여의치 않아 시작하게 됐다.

박 원장은 "처음에는 50~60페이지의 소형 안내책자를 제작하려고 시작한 일이 5년 여 기간을 거치면서 일반인과 외국인, 불자들을 위한 사전의 모습을 갖추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박영의 원장은 "합리성을 선호하는 서양인들에게 포교하려면 간화선 못지않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논리정연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며 "외국인들이 부처님 공부를 함에 있어 어려운 가르침의 이해를 돕는 동시에, 이심전심(以心傳心)의 감동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홍법사는 사전에 등재된 콘텐츠를 차후 인터넷 상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게 공개할 예정이다.

박지원 기자 hdbp@hanmail.net

법정 스님 선묵전 개최
보성 대원사, 지인들에 보낸 편지·그림

무소유의 삶으로 큰 교훈을 남긴 법정 스님의 글과 그림이 일반인에게 공개된다.

보성 대원사(주지 현장)는 6월 20일까지 대원사 티벳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법정 스님이 지인들에게 보낸 편지글과 그림 등을 모아 '법정스님 선묵전(禪墨展)'을 개최한다.

법정 스님 특별전에는 스님에게 글과 그림을 받았던 현묵 스님(송광사), 이해인 수녀, 대도행보살(서울), 대자화보살(광주), 보덕행보살(부산), 무량광보살(화순) 등이 보관중인 30여 작품이 전시된다.

전시되는 작품에는 법정 스님이 계사로서 신도에게 삼귀의와 오계를 직접 전했던 계첩, 1974년 현장 스님에게 새해 인사를 전했던 짧은 글, 이해인 수녀에게 숫타니타파 경구를 적어 보낸 글들로 등이다. 작품 곳곳에는 스님이 자신의 글과 그림을 '붓장난'이라고 말하거나, 자연에서 느낀 솔직한 심정을 간략하게 적은 모습도 눈길을 끈다.

특히 스님의 혼이 담긴 필체와 그림은 지금까지 책을 통해 널리 알려졌던 정신적인 가르침과 달리 이웃과 정을 나누는 스님의 인간적인 모습을 엿 볼 수 있다.

현장 스님은 "법정 스님의 글을 모르는 사람은 없지만 스님의 필체에 담긴 매력과 가치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며 "법정 스님의 생전이라면 큰 호통을 받을 일이지만, 올곧은 삶과 정신세계, 아름다움을 함께 나누셨던 스님의 마음을 더 많은 이웃들과 함께 나누고자 준비했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사명 대사 호국광장 완공
부불련, 어린이대공원서 기념법회



부산 초읍 어린이대공원 부지 내 사명대사 호국광장완공기념법회를 마치고 부산불교연합회장 정여 스님 등이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부산에 사명 대사의 호국정신을 기리는 광장이 조성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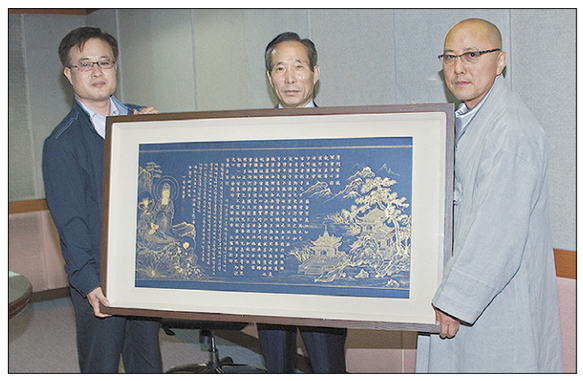
부산불교연합회(회장 정여, 범어사 주지)는 5월 26일 부산 초읍 어린이대공원 부지 내 호국광장에서 '사명대사 호국광장 완공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정여 스님은 인사말에서 "청소년들에게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호국성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산불교계는 호국광장을 불교의 호국정신을 지역민들에게 알리는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박지원 기자

"사경은 무념무상 이르러야"
한국전통사경예술학회 김시운 회장


한국전통예술학회 김시운 회장(가운데)과 김 회장이 청주BBS에 기증한 작품.

최근 청주 예술의전당 전시실에서는 봉축을 기념한 불화 전시회가 열렸다. 이 전시회에서는 전시장 한가운데 길게 드리운 <묘법연화경> 사경 작품이 관람객들의 시선을 하나로 모았다.

가로 16m, 세로 34m의 규모로 감지에 깨알 같이 금으로 쓴 사경 작품을 만든 이는 초암 김시운 한국전통사경예술학회 회장이다.

김시운 회장은 현재 한국전통사경예술학회와 한국전통사경연구실을 운영하며 2008년 대한민국 신지식인 최우수상과 대한민국 미술대전 우수상에 초대작가 심사위원을 지냈다.

김 회장은 "1984년 가을 무렵, 꿈에 흰 복장을 한 노인이 뭔가 한 아름 안고오더니 '너는 이것을 받아 지니거라'고 말했다. 다음날 속리산 문장대 등산길에서 한 스님을 만나 작은 글씨로 스님이 손수 먹을 갈아 사경한 <금강반야바라밀경>을 전해 받은 것이 사경을 시작하게 된 인연"이라고 말했다.

당시 김시운 회장과 마찬가지로 <금강경>을 전했던 스님도 '김 회장에게 책을 전해 주라'는 꿈을 꾸었다는 것.

김 회장은 스님이 전한 <금강경> 필사본을 모본으로 사경 수행을 시작했다. 김시운 회장은 금, 은, 황동과 물에 푼 아교에 섞어 글씨를 쓰는데 변색을 막는 방법을 몰라 3년 여를 고심하기도 했다.

"사경은 오직 수행에서 오는 무념무상의 마음이 접목돼 삼매경에 이르고 부지불식간에 황홀경이 되어 끝없는 정진으로 사경에 임해야 합니다."

한편, 김시운 회장은 11월 24~30일 청주 예술의 전당 대 전시실에서 개인전시를 앞두고 있다. 이 전시회에서는 김 회장이 <묘법연화경> 전7권을 감지에 순금 권자본으로 제작한 작품과 사경으로 만든 병풍과 액자, 권자본, 절첩본 및 선장본의 전통사경을 접목한 작품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김 회장은 "11월 전시회를 마치고 무형문화재 등재에 도전하겠다. 또, 후학을 위해 그 동안 연구하고 습득한 기법 등을 정리해서 책으로 발간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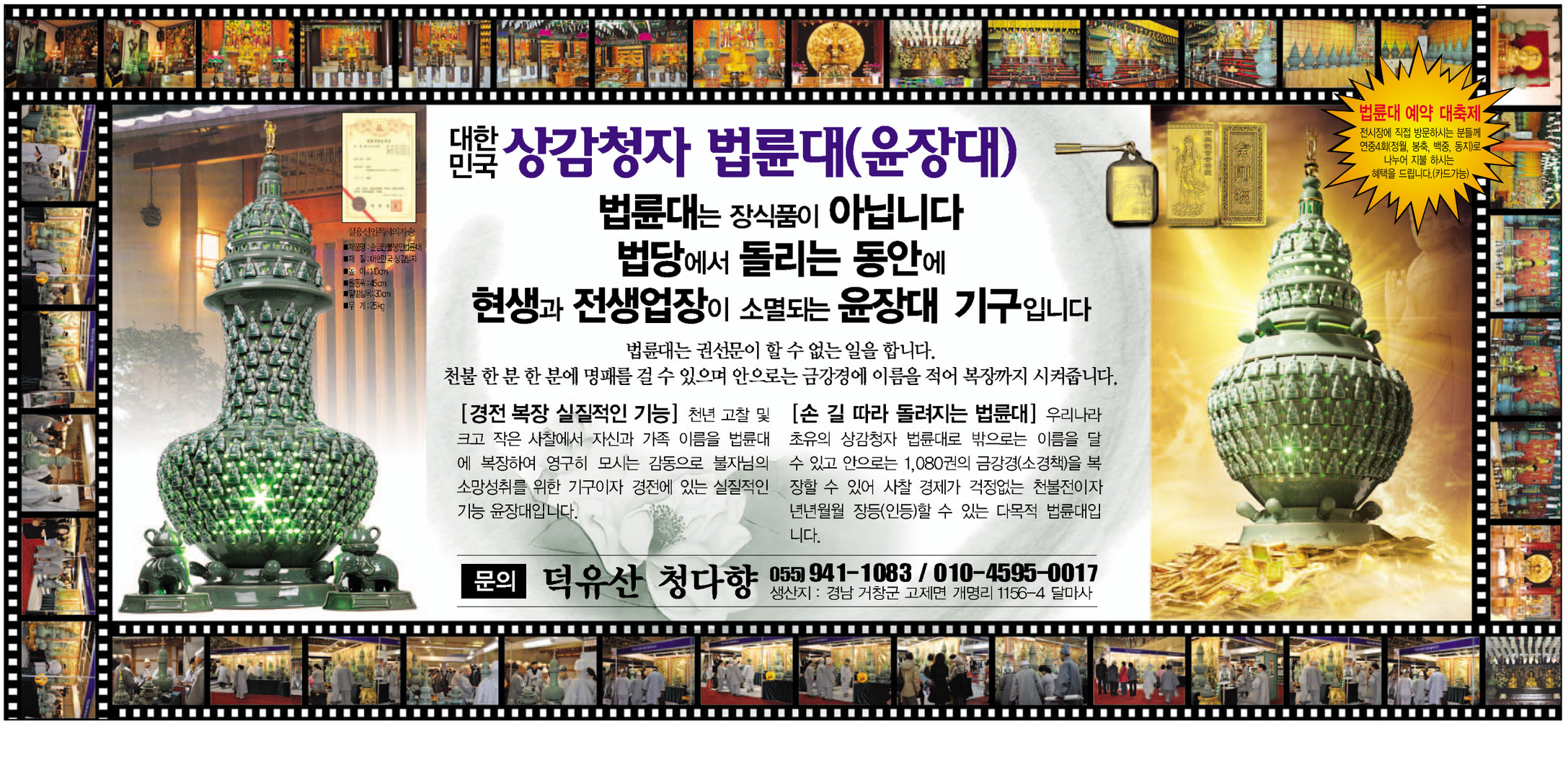
혜철 충청지사장

옥천 대성사, 트레킹으로 사랑 맺는다

옥천 대성사(주지 혜철)는 6월 20일 오전 10시 '선남선녀 따듯한 만남, 회원의 날'을 개최한다.

행사는 대성사가 BBS청주불교방송이 진행 중인 충북산성 트레킹에 동참하는 형식으로 전국에서 모인 선남선녀 40명이 보은 삼년산성, 법주사 참배 등을 통해 사랑을 맺게된다. 참가비 무료. 선착순 40명(선남 선녀 각20명)에 한한다. (042)223-8214

혜철 충청지사장



불교상담개발원과 함께 하는 **이럴 땐 어떻게 하죠?**

Q 불교에 관심을 갖게 됐으나 인연이 닿지 않는 것인지 절에 다니고 싶어도 뭘 어디서 어떻게 다니는 건지도 알 수 없고 물어볼 사람도 없습니다. 교회는 쉽게 찾아가서 예배도 보기 쉽고 한데, 불교는 전혀 그런 모습을 볼 수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절에 다니고 싶은데 다니던 사찰에 대해 아는 바가 없어 주저하게 되는 군요.

일단 절에 다니시려면 절에 있는 종무소에 찾아가 안내를 받으신 후 그 절에 있는 교육 과정을 들으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각 사찰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이렇게 교육 과정을 밟으면서 불교의 기본 교리와 사찰 예절 등을 배우면 신행생활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의욕도, 세상에 저를 받아줄 곳도 없어요
평정심 찾으면 문제 해결력이 생겨요

시간이나 여건이 여의치 않으실 때는 온라인으로 교리 공부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불교 관련 홈페이지, 카페, 블로그 등에는 다양한 불교 관련 정보와 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교리 공부와 함께 신행 활동도 함께 해야 합니다. 매일 새벽 참선, 108배 등을 시작해 보세요. 마음과 몸을 편안하게 하면 고요함 속에 삶의 향기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에 한 가지의 좋은 일을 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이웃에게 웃는 얼굴로 마음 편히 하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보십시오. 혼자서 하는 것 보다는 도반과 함께 할 때 더 큰 즐거움을 느낄 것입니다. 용기를 내어 문을 두드리세요.

Q 교사 임용시험을 열심히 준비했는데 올해도 안 될 것 같습니다. 학원 강사를 하면서 공부하다가 동생의 뒷바라지 덕에 공부만 할 수 있었습니다. 제겐 많은 힘이 됐었죠. 하루도 안 놀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될 줄 알고 2차 시험을 준비하려다가, 1차 합격도 못했다는 것을 알았는데 좌절감으로 삶의 의욕까지 잃고 말았습니다.

가족에게 죄스러워 다시 공부하기가 두렵습니다. 나이는 많고, 결혼을 하자니 모아놓은 돈도 없고, 결혼식에 와줄 친구도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사랑하는 사람도 없구요. 모든 것이 불안합니다. 세상에 저를 받아줄 곳이 한 군데도 없네요. '자살'이 문득 문득 떠오릅니다. 너무 힘들어요.

A 교사 임용시험을 보았는데 결과가 좋지 않아 무척 낙담을 하고 있군요.

졸업한지도 오래되고 동생의 도움을 받아가며 힘들게 공부를 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으니, 가족 볼 면목도 없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신의 인생이 거리의 휴지 조각보다 못하다는 생각을 했다니 무어라 위로의 말을 해야 좋을지 난감합니다.

하지만 계속 속상해 하기 보다는 지혜롭게 어려움을 극복해야겠습니다. 물론 지금은 마음이 아프고, 모든 일이 어렵다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마냥 그러한 감정에 젖어 있을 수만은 없잖아요. 과거는 과거입니다. 지금 이 순간 충실해야겠습니다.

일단 마음을 내서 기도해보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방황보다는 자신의 에너지를 긍정적으로 써보세요.

이 우주에 가득 찬 에너지는 다른 것끼리는 서로 밀어내고 같은 것끼리는 끌어당깁니다. 선하게 대할 때 우주의 선한 요소들이 딸려오고 악하게 대하면 파괴적인 요소들이 몰려듭니다. 내 마음이 지극히 맑고 청순하고 평온할 때 마음에 중심이 잡힙니다. 내 중심이 생기면 지금의 혼란은 한 생각의 돌이킴으로써 지혜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결혼, 친구, 돈 등 여러 가지 걱정으로 어지러운 마음을 기도로써 깨끗하게 맑히면 부처님의 가피와 더불어 긍정적인 에너지의 힘으로 마음의 평정심을 찾는데 도움이 됩니다.

평정심이 생기면 스스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시험 결과보다 좀 더 넓은 안목으로 문제를 살피다보면 어지러운 마음을 다스리는데 좋고 지혜도 생기리라 생각됩니다.

24시간 자비의전화 (02)737-7374, 737-1114
사이버상담 자비24 www.jabi24.org
청소년사이버 성상담 아하섹스 www.ahsex.org
후원계좌 국민은행 001-01-2021-361
(예금주:사단법인 자비의전화)

시조 한 수 읊으면 활력 쑥쑥

행복법당 탐방
고창종합사회복지관

촉촉한 봄비가 내리는 5월 24일 오전 전북 고창군 종합사회복지관(관장 도완)의 경로당(회장 최종열)에서 어르신들의 시조교실이 열렸다.

비가 내려서 쌀쌀했지만 한옥으로 지은 경로당 안은 온기가 감돌았다. 백발의 할아버지 20여분이 둥글게 앉았다.

한 할아버지가 주방에서 약주를 가져오시더니 "우리는 기력이 없어서 약주를 한 잔씩 해야 힘이 나"라고 말했다.

발그레진 얼굴로 어르신들은 시조 교사 이정범 할아버지(74)의 지도에 따라 시조를 읊었다.

"한산~~~~섬~~~달 밝은…."

어르신들의 구성진 목소리가 비와 잘 어울렸다.

시조의 박자를 맞춰줄 장구는 이성수 할아버지(73)가 맡았다. 시조의 장구 장단은 한 곡에 5박 장단과 8박 장단이 섞여서 사용된다고 한다.

어르신들이 배우는 시조는 이순신 장군의 한산도가(閑山島歌, 한산섬 달 밝은 밤에 수루(戍樓)에 혼자 앉아/큰칼 옆에 차고 깊은 시름하는 적에/어디서 일성호가는 남의 애를 끊나니)이다.

한산도가는 평시조(平時調)에 해당한다. 평시조는 초 · 중 · 종장이 총 45자 내외로 구성된 단형시조(短型時調)이다.

시조교실을 이끌고 있는 이정범 할아버지는 "지금은 평시조를 연습하고 있지만 앞으로 사설시조 등도 가르칠 것이다. 어르신들이 시조에 흥미를 느끼고 있는 단계인 만큼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0년 4월부터 시작된 고창군 종합사회복지관의 시조교실은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경로당에서 열린다.

김용숙 사회복지사는 "시조교실은 경로당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즐거운 노후 생활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또 어르신들의 잠재 능력 개발 및 긍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졌다"고 소개했다.

먹색 법복을 차려입은 경로당 회장 최종열 할아버지(80)는 "어르신들이 배우려는 열의가 있다. 시조교실을 열고나서부터 어르신들의 사이가 더 돈독해 졌다"며 웃으셨다.

이정범 할아버지는 시조의 유래에 대해 설명했다. "시조는 고려 때부터 내려오는 노래로 명문가 선비들이 시절의 애환을 달랬던 국악입니다. 기쁠 때 혹은 슬플 때 부르는 것이 시조입니다."


5월 24일 고창군종합사회복지관 경로당에서 열린 시조교실에 참여한 어르신들의 모습이다.

시조교실 4월부터 운영… 열기 활활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경로당서 열려

경로당 어르신들이 직접 한 곡씩 돌아가며 시조창을 했다. 어르신들의 시조창이 있을 때는 장구 장단과 어르신의 목소리만이 들렸다.

이정범 할아버지는 "시조는 판소리와 다르게 추임새가 없다. 시조를 할 때는 허리를 펴 바르게 앉고, 옷도 정장을 갖춰야 한다. 선비들이 하던 것이라 얌전하다"면서 시조를 배울 때 주의할 점을 알려줬다.

서춘환 할아버지(81)는 "시조를 읊으면 단전에 힘이 들어가 단전호흡을 하게 돼 장기운동이 된다. 또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아서 좋다"며 시조 자랑을 했다.

고창 종합사회복지관 김용숙 사회복지사는 "경로당 어르신들 대다수가 공직에서 퇴임하신 분들이라 시조에도 관심이 많다"고 말했다.

이정범 할아버지는 현재 고창군 종합사회복지관 뿐만 아니라 고창군 국악 전수관에서 일반인들을 상대로 시조를 가르치고 있다.

"사춘기 때 어깨 넘어로 배운 시조를 70이 다 된 나이에 다시 만났습니다. 시조는 배울수록 빠져들어요. 가르치면서 제가 더 즐겁습니다."

이정범 할아버지의 시조에 대한 애정이 백발의 학생들에게도 전해졌는지 장단에 맞춘 시조창(時調唱)은 빗방울 소리보다 구성졌다.

박선주 기자 Zoo211@buddhapia.com

법만 스님
선운사 주지·복지관 운영위원장



지금까지는 노인복지에 집중했지만 이제는 저소득 가정 청소년, 어린이 등을 아우르는 계층 복지를 할 것 입니다. 기업의 복지관련 공모사업을 통해 지원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고창군 종합복지관은 회원 가입 수 3000여 명, 하루 이용자 300여 명으로 이제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100여 명의 종사자들의 노력으로 종합사회복지관 · 노인복지센터 · 노인복지회관 · 주간보호센터 · 푸드 마켓 등 다섯 개의 복지시설이 복지관 이용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복지사업을 통해 불교의 이미지를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겠습니다. 복지관 이용자들이 내 집 드나들 듯이 편안히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정범 할아버지
시조교실 교사



시조와 첫 만남은 17~18세 쯤 입니다. 그때 마을 어르신들이 시조를 즐겨 부르셨는데 여름에는 모정에서 겨울에는 사랑방에서 흘러나오는 시조 소리가 그렇게 좋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생계에 몰두하다보니 50여 년간 시조를 잊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2000년에 정재선 선생님의 소개로 시조 동호회에서 시조를 체계적으로 배울 기회가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일흔이 다된 나이라 할 수 있을까 망설였지만 수강하면서 시조에 대한 아련한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저와 비슷한 또래의 수강생들은 다들 열정과 애정이 넘쳤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배우다보니 고창군 종합사회복지관과 국악 전수관에서 강의를 할 수 있는 인연이 생기더군요. 시조는 깊이 연구하고 애창을 하면 그 안에 담긴 진지함과 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비누독을 연화시키는 **삼베훼이셜타올**



■삼베세안타올 - 각 6,000원

삼베 타월의 특징

선조들의 지혜와 멋이 깃든 삼베 타올은 수분을 빨리 흡수, 배출하고 자외선을 차단하며 곰팡이를 억제하는 항균성과 항독성이 있는 순수 천연 삼베(햄프)사와 죽사(대나무에 추출한 원사)를 합사하여 제조된 순식물성 제품으로, 피부 자극이 없으며 피부의 노폐물 제거와 혈액순환 촉진으로 곱고 탄력 있는 피부로 바꾸어 드리는 환경친화적 제품입니다.

■삼베세안타올 세안법

① 삼베훼이셜타올를 물에 적신 후 얼굴전체를 마사지 하듯 닦아줍니다.
② 특히 코 주변을 닦아주면 피지가 제거됩니다.
③ 삼베샤워타올을 물에 헹군 후 닦아줍니다.

* 3~4일이 경과 하면 맑아진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 피지, 각질연화효과가 있어 혈색이 좋아짐에 화장이 잘 받습니다.

■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 관리법에 의한 품질표시 특허출허제품임

· 품 명 - 예고은 삼베 샤워 타올
· 재 질 - 햄프사, 죽사
· 용 도 - 세안 및 전신목욕, 때밀이, 냉수마찰, 스포츠타월, 등산할 때, 환자목욕시사용, 건포마사지용
· 규 격 - 세안용 (30cm x 28cm)
· 제조원 - 초록살림원 (한국산)

삼베수세미 특징



선조들의 지혜와 멋이 깃든 삼베수세미는 수분을 빨리 흡수, 배출하고 자외선을 차단하며 곰팡이를 억제하는 항균성과 항독성이 있는 순수 천연 삼베(햄프)사와 죽사(대나무에 추출한 원사)를 합사하여 제조된 순식물성 제품으로 식기세척시 세제를 사용하지 않고 뽀드득한 느낌과 수질오염을 방지할 수 있으며 사용하시는 분들은 소박 하고 겸손한 아름다운 마음을 지니게 됩니다.

■삼베수세미의 효과

* 다이옥신 피해와 수질오염(땅속에서 자연소멸)을 방지 할 수 있습니다.
* 세제없이 식기세척이 가능합니다.
* 항균, 항독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 과일세척에도 세제없이 세척이 가능합니다.
* 사용 후에는 세탁 후 통풍이 잘되는 곳에서 건조합니다

· 품명 - 예고은 삼베 수세미
· 재질 - 햄프사 , 죽사
· 용도 - 식기세척, 과일세척, 욕실청소 등
· 규격 - 30cm x 30cm(소) / 30cmx50cm(대)

위생 · 항균 · 항독 **삼베수세미**



■삼베수세미올 - 각 4,000원

건포마사지용 **삼베샤워타올**



■삼베샤워타올 - 각 15,000원

· 품명 - 예고은 삼베 샤워 타올
· 재질 - 햄프사, 죽사
· 용도 - 세안 및 전신목욕, 때밀이, 냉수마찰, 스포츠타월, 등산할 때 ,환자목욕시사용, 건포마사지용
· 규격 - 전신용 (30cm x 130cm)



'건포, 습포 마사지' 특징

10분 정도 마른 수건 또는 젖은 수건으로 손발 끝에서부터 심장 쪽으로, 배꼽을 중심으로 둥글게 피부를 마사지 합니다. 외출 후 샤워 전 워밍업으로 건포마사지를 해주면 몸의 신진대사가 왕성해지고 혈액순환이 활발해져 체내에 독소가 쌓이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피부 보호 및 면역력 향상에도 좋고, 감기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마사지법

· 여름에는 냉수마찰, 겨울에는 건포,습포 마찰을 권합니다.
· 냉한 체질은 건포, 습포마찰이 좋고 열이 많은 사람은 냉수마찰이 좋습니다. 단, 열이 많은 사람은 건포마사지를 무리하게 하지 말고,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은 냉수마찰을 피합니다.
· 예민한 피부는 문지르는 것에 자극을 받아 피부질환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 합니다.
· 상처나 피부질환시 문지르지 말아야합니다.



■건포 마사지의 효과

* 혈액순환 및 피부 신진대사를 좋게 합니다.
* 피지분비가 줄어드는 피부에 피지선의 기능을 활발히 해줍니다.
* 지치고 활력 없는 피부에 탄력과 윤기를 부여 합니다.
* 피부의 더러움과 묵은 각질을 제거해 줍니다.
* 거칠어질 의심은 버리세요. 비누독이 안 쌓이니 피부가 좋아집니다.
* 죽은 세포나 피지가 매일 제거가 되어 때가 안 낍니다.
* 몸의 때는 비누 때로 인해 생깁니다. 비누 때가 없어지므로 때가 안 낍니다.
* 환자목욕용으로 사용해도 좋습니다.

현불샵특별할인세트 30,000원
(세트 구매시 배송비 무료 + 추가 할인)

■구성 : 삼베훼이셜타올 + 삼베수세미 + 삼베샤워타올 + 삼베항균비누 3개



현대불교 현불샵 |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T. 02)2004-8216 / F. 02)737-0696
www.hyunbulshop.com

돌잔치, 환갑, 칠순 등 각종 행사용 선물로 아주 좋습니다



"미안하다 강아, 힘내라, 지켜줄게 강아"

"생명에 대한 착취를 막는 것은 종교인들의 의무이자 소명입니다. 뭇 생명들이 고통 받고 있습니다. 우리 종교인들은 종교와 신앙차원에서 4대강 개발이 멈출 때까지 온 몸과 온 뜻을 바쳐 반드시 뭇 생명들을 살려낼 것입니다."

비를 흠뻑 먹은 스님의 가사에서 빗방울이 뚝뚝 떨어졌다. 신부님, 목사님, 교무님, 수녀님들도 무심히 내리는 비를 맞으며 간절히 기도했다.

하늘에는 먹구름이 가득했다. 바람을 동반한 빗줄기가 점점 거세졌다. 거세지는 비바람과 싸늘함에도 생명을 위한 기도는 이어졌다.

불교 · 개신교 · 가톨릭 · 원불교 4대 종단 성직자와 신도 300여 명은 5월 24일 여주 신륵사 경내 남한강변에서 생명의 강을 위한 공동기도회를 진행했다.

여주 여강선원(선원장 수경)과 조계종 환경위원회(위원장 주경)가 주축이 돼 진행된 이번 행사는 자연에 대한 폭력을 참회하고, 자신과 시대를 성찰 · 정화하는 자리였다.

행사는 성스럽게 시작됐다. 원불교 타종 5타에 이어 여는 말씀, 춤기도, 4대 종단 기도의식 및 기도문 낭독, 각 종단 성직자의 노래 및 시낭송, 결의문 낭독, 이포대교 하류 준설현장 탐방 및 명상기도의 순으로 진행됐다.

신륵사 주지 세영 스님은 "주지 소임을 하면서 4대강 보고대회 등을 통해 4대강의 당위성을 전제한 홍보만 들어왔다. 4대강 공사 폐해에 대한 답변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이 사업은 무의미한 사업"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주장했다. 최근 한나라당 김문수 경기지사 후보의 발언으로 고역을 치렀던 스님은 이 자리에서 4대강 저지에 결연한 의지를 보였다.

개신교 측을 대표해 참석한 성공회 박경조 주교는 여는 말씀에서 "좋은 대통령을 만나 4대 종단 종교인들과 오순도순 모여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됐다"며 반어적으로 정부의 잘못을 꼬집었다. 이어 그는 "종교인을 훈계하려는 오만한 정권이 어처구니없다. 오만한 것에 대한 심판이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주경 스님은 "어머니의 강은 곧 생명의 강이다. 자연을 거스르는 것은 악업을 짓는 것"이라며 "독재적 국책사업인 4대강 공사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원불교는 이날 원불교환경연대 발기인대회를 열고 4대강 저지 운동에 적극 나설 의지를 밝혔다.

서상진 신부는 "생명을 파괴하는 것은 민주주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과 같다"며 "생명평화의 보편적 가치를 위해 종교인들은 행동할 것"이고 밝혔다.

각 종단 기도에 앞서 생명살림 기도가 김미선 선생의 한국 전통춤으로 표현됐다. 이날 사회자였던 성전 스님은 춤기도를 보고 "모시고, 섬기고, 쳐버리는 춤"이라고 해석했다.

각 종단의 기도는 이어졌다. 종교인들은 너와 내가 아닌 '우리'의 이름으로 인간의 탐욕과 어리석음을 참회했다. 생명의 강은 곧 부처님이고, 하느님, 하나님이었다. 낯설음과 엄숙함은 기도와 함께 이내 따스한 기운으로 서로의 가슴을 타고 흘렀다. 자연의 강이 흐르듯.

불교 · 개신교 · 가톨릭 · 원불교 공동기도회

생명의 강 반드시 지키겠다는 의지 가슴에 새겨



4대 종단 성직자 기도회가 여주 신륵사 경내 남한강변에서 5월 24일 개최됐다. 기도회에 참석한 신도들이 빗속에서도 흔들림없이 기도하고 있다.

이후 노래와 시낭송회가 진행되자 참가자들의 얼굴에 미소가 떠올랐다. 하지만 때때로 성직자들은 죽어가는 생명을 지켜주지 못한 것에 대한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 참가자들은 서로의 손을 잡았다. 종교환경회의(공동대표 불교 수경 · 개신교 양재성 · 원불교 이선종 · 가톨릭 황상근)는 결의문을 낭독했다.

"정부는 4대 종단의 4대강 사업 반대 입장 표명에도 불구하고 이해부족이라 폄하하며 홍보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공공성과 여론수렴을 무시하며 민주주의의 기본과 근간을 허물고 있습니다. 4대강 개발을 멈출 때 까지 종교와 신앙차원의 결의를 이어가겠습니다."

결의문은 기도문에 가까웠다. 이어 수경 스님은 종교인들을 대표해 "자유와 생명, 평화를 위한 야권후보 단일화"를 호소했다. 행사장에는 "4대강을 막겠다"는 6 · 2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시민 경기도지사 후보, 김진표 민주당 최고의원 등 정치인들도 눈에 띄었다.

행사가 채 끝나기도 전에 성직자와 신도들의 옷은 모두 젖었다. 날은 더욱 춥게 느껴졌지만 이들은 신륵사에서 4㎞ 떨어진 이포대교 하류 준설현장을 향했다.

수경 스님을 선두로 300여 참가자들은 '강은 흘러야 한다'고 쓰인 노란색 조끼를 입고 건설현장을 돌았다. 흙을 퍼내고 나르는 포크레인과 트럭 소리가 강의 침묵을 집어 삼키고 있었다. 강을 떠난 새 대신 순례자들의 안항(雁行)이 공사현장에 펼쳐졌다. 발은 무의식적으로 옮겨질 뿐 눈길은 공사현장에서 떼어지지 않았다.

"정말 참혹하다." "종교인들이 참 할 일이 많아지게 생겼다. 만들어 놓으면 되돌리는 힘을 쏟아야 한다." "보(洑)는 확실히 아니다. 배가 다닐 수 있도록 만들고 있다."

순례를 마친 참가자들의 입에서는 탄식의 말들이 오갔다. 그저 공사현장을 바라보며 기도 할 수밖에 없었다.

"너의 아픔과 신음을 듣는다. 미안하다 강아! 힘내라 강아! 고맙다 강아! 장하다 강아!"

강을 향해 외쳤지만 소리는 강 언저리에도 다다르지 않았다. 죽어가고 있는 강의 신음과 기계 소리가 메아리쳤다. 하지만 종교인들은 참회와 생명의 강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굳은 의지를 가슴 깊이 새기고 있었다.

이상언 기자 un82@buddhapia.com

주얼드림 은(銀)의 모든것

주얼드림은 은(銀) 99%로 만든
염주 · 단주 · 금강저 · 반지 · 목걸이 · 핸드폰줄 등 기타 다양한 제품생산 기업입니다.
은(銀)이 사람에게 좋다는 것은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 왔습니다.
(효능 : 강력한 살균력, 전자파 차단, 수맥파 차단,음이온 방출 외)
이러한 은을 가지고 만든 염주, 단주는 물론 세계 최고의 세공을 거친 세련된 제품을 스님, 불자님들에게 소개드립니다.
은(銀) 제품을 가지고 기도 하시면서 건강도 체크 하는 일석 삼조의 행복을 누려 보십시오.

※ 제품소개를 지면으로 다하지 못하오니 연락주시면 책자(카다록)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각지역 대리판매점, 판매원을 모집합니다. (고수익 보장)
◆사찰내 판매점 환영합니다. (샘플 제공할 수 있음)

주얼드림(석도) JEWELDREAM · 본사 공장 및 영업부 : 경기도 고양시 대자동 793-2번지
031)969-9495 / 070-4120-9490 / 011-441-9495
· 매장 : 서울시 중구 회현동 1가 204번지 메사(Mesa)빌딩 L층 140호 ☎ 02)2128-7140


JD152 – 25,000원
JD155 – 25,000원
JD169 – 25,000원
JD170 – 27,000원
JD162 65,000원
JD166 (반야심경) 69,000원
JD168 36,300원


심플한 디자인으로
기도도 하고
건강체크도 해보고
일석삼조의 행복을...
JD121-1(6.4mm) 68,200원
JD118 (10~10.5mm) 92,400원
구슬크기 : 16mm, 14mm, 12mm, 10mm, 8mm, 7mm, 6mm, 5mm, 3mm
(다양한 크기가 준비되있습니다.)
www.silverdew.com

용화세계 꿈꿨던 땅…민들레가 돋았습니다

6월 하늘 아래 철원에서



❶철원군청 1층의 태봉국 도성도. 사진 왼쪽에 군사분계선이라는 빨간 표지판이 보인다.


❷유적으로 남은 공산당사. 여기서 조금만 가면 월정역인데 민통선 안쪽이라 수속을 밟아야 갈 수 있다.

빨간 군사분계선이 태봉국 도성 반쪽으로 갈라
경원선 타고 오가던 어머니 '따라지'로 이승 떠나

내 어머니는 1926년생이시며 고향은 함경도 북청입니다. 나는 자라면서 어머님 고향 얘기를 여쭤보았지만 그리 자세한 말씀은 하지 않았습니다. 내겐 외가가 없습니다. 내가 커서 다시 고향이나 나의 외가에 대해 여쭤보았으나 '이젠 너무 오래되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짐작하건대 아마 그곳 얘기하시기가 썩 내키지 않으셨던 듯합니다.

아들에게 하지 않으셨던 어머님의 과거는 <샘이 깊은 물>이라는 잡지에 털어놓으셨습니다. 지금은 그 잡지가 폐간이 되었지만 예전에는 꽤나 알려진 잡지입니다. 1989년 5월호에 어머님은 당신의 과거 얘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어머님이 구술하고 기자가 그대로 정리한 글에서 난 마치 어릴 적 요지경을 들여다보듯 머릿속으로 어머님 일생을 감아가며 보았습니다.

어머니가 열두 살 무렵에 친부모를 떠나 어찌어찌한 사연으로 수양딸이 된 집안은 수산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북청에서도 꽤 부자였습니다. 그 집 심부름으로 북청과 서울을 몇 번 오갔다고 합니다. 명태값 심부름이었습니다. 그 집은 서울 애오개(아현동)에도 집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서울에 오면 이 집에 묵었습니다. 그러다 아예 서울에 눌러 살게 되었습니다.

해방이 되고 삼팔선이 생기고 겨레가 갈라져 마녁(남)과 노녁(북)에 따로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이 땅에 전쟁이 났고 어머니도 피란을 다녔습니다. 다시 서울에 와서 화약 냄새 가시지 않은 때 충남 청양 사람을 만나 평생을 같이 사셨습니다.

어머니가 타고 다니셨다는 기차는 경원선이었습니다. 서울 용산에서 함경도 원산을 잇는 철도입니다. 그곳의 중심역이 철원입니다. 어머니의 기억에 따르면, 기차가 한참 가다가 어드메쯤에서는 기중기가 기차를 들어 다른 궤도에 옮기고 다시 기차는 종착역을 향해 달렸다고 합니다. 경원선은 한탄강이 흐르는 협곡을 따라 지나가다가 철원을 지나 삼방을 거쳐 신고산에 이르는데 지도만 보아도 이 구간이 그곳 같더군요. '신고산이 우르르르 함흥차 떠나는 소리에'라는 가락이 있잖아요, 거기 말입니다.

철길은 1928년 9월에 원산에서 북청을 지나 회령까지 이어지는 함흥선이 개통됩니다. 어머니는 이 경원선과 함흥선을 따라 오고가셨나 봅니다. 지금 그 길은 철원에서 멎었습니다. 함경도의 풍부한 목재와 광물, 수산물을 실어 나르던 산업의 동맥 요충지가 철원이었는데 한국전쟁 이후 '녹 슬은 기찻길'이 되었습니다. 어머님은 생전에 이 길을 자식과 함께 가고 싶어 하셨지만 그 바람은 이뤄지지 않았고, 어머님은 한 줌 재가 되어 자식의 가슴에 남으셨습니다. 어머님 표현대로, 이 남선 땅을 넘어 북선 땅 고향을 가지 못하는 '따라지'인 채로 사시다 이승을 떠나셨습니다.

삼팔선이 휴전선으로 바뀐 한국전쟁은 내 어머님과 같은 처지의 사람을 무수하게 만들었습니다. 1950년 6월 하순, 전면적인 전쟁으로 확대된 한국전쟁은 국제연합의 깃발아래 대한민국을 포함하여 17개 국가 교전당사국을 한편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이 교전당사국의 한편이 된 국제전으로 확산되었습니다.

3년 1개월에 걸친 한국전쟁은 한반도 전체를 폐허화했고, 참전한 외국 병력도 극심한 피해를 입었으며, 이때 사용된 폭탄의 수는 불분명 하지만 1차 세계대전에 맞먹는다고도 합니다. 한국전쟁은 약 20만 명의 전쟁미망인과 10여만 명이 넘는 전쟁고아를 만들었으며 1000여만 명이 넘는 이산가족을 만들었습니다. 미국의 통계에 따르면, 전체 참전국의 사망자를 모두 합하면 20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한국의 사망자는 100만 명이 넘으며 그중 85퍼센트는 민간인이랍니다. 4월말에 서울 충무로 대한극장에서 본 영화 '작은 연못'의 실제사건인 미군에 의한 '노근리 학살'도 여기에 듭니다. 전쟁은 참혹합니다. 전쟁통에 살아난 사람도 사실 산사람이 아닙니다. 모두 '나간사람'이 됩니다. 넋이 나가고 눈이 흐리멍텅해지는 병자라는 말입니다. 그 통에 나간사람이 되지 않는 이들은 전쟁으로 한몫 챙기려는 부라퀴들뿐입니다.

2010년 6월. 한반도는 다시 먹구름이 잔뜩 낍니다. 그 전쟁통에서 목숨을 잃은 혼령들이 이 한반도를 지켜보고 있을 터인데 자꾸 메케한 화약 냄새가 번집니다.

4월 초, 난 철원을 지난 한탄강이 임진강을 만나고 다시 흘러 한강을 만나는 문수산에서 황해바다를 보며 빌었습니다. '바다가 걷어 가신 모든 넋의 공덕으로 이 하구에 겨레의 봄이 오게 해 달라'고. 내 정성이 지극하지 못했는지 자꾸 못된 아우성이 남선땅을 들쑤시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전쟁기념관에서 '북한군의 군사도발'에 철저하게 응징하겠다는 담화를 발표하였습니다. 대통령 집무처인 청와대도 아니고 불쑥하니 '전쟁기념관'에서 말입니다. 그래서인가요, 자꾸 내 귀에는 무장한 전차의 무한궤도소리가 이명처럼 울립니다. 이어 영화 '작은 연못'에서 미군의 집중포화에 쓰러지는 착한 사람들과 그들의 비명소리가….

철원은 미륵의 꿈이 서린 곳입니다. 신라왕의 서자인 궁예는 부패한 귀족계급의 지배에 지친 민중의 지지를 업고 군사력을 키워 마침내 901년 왕이 되어 송악(개성)을 도읍으로 삼고 국호를 마진이라 합니다. 이어 서기 904년 도읍을 철원으로 옮겨 이곳을 수도로 삼았고, 911년에 국호를 태봉이라 하였습니다. 그는 왕이 되자 "옛날에 신라가 당(唐)에 청병(請兵)하여 고구려를 파(破)하였기 때문에 평양 옛 서울이 황폐하여 풀만 무성하니 내가 반드시 그 원수를 갚으리라"고 선언했습니다. 신라가 외국의 병력을 끌어들여 삼국을 병합, 한반도를 통치하지만 그것은 당의 식민통치이며 대륙을 넘긴 매판이라 규정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철원을 중심으로 잃어버린 대륙을 되찾아 옛 고구려의 웅대한 기상을 펴는 나라를 세우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꿈은 망해가는 신라의 귀족들을 재조직한 왕건에게 무너졌습니다. 그곳에 용화세계를 세우고자 했던 미륵불 궁예는 철원에서 가까운 '울음산'(명성산)에서 삶을 마감하였습니다. 그가 세운 태봉국 도성은 무너지고 세월 따라 잡초에 묻혔습니다. 그러다 일본 식민통치 시절, 문화유적조사를 하다 왕궁의 석등, 석탑 등 그 옛날의 규모를 짐작할 수 있는 문화재가 발굴되었습니다.

한국전쟁은 한반도를 반으로 갈랐는데 참 야릇하게도 1953년 7월, 휴전협정에 따라 그어진 휴전선은 이 궁예의 태봉국 도성을 꼭 반쪽으로 갈랐습니다. 철원군청의 1층에는 고증을 거친 태봉국 도성도의 모형이 전시되어 있는데, 엄청난 규모의 도성 가운데 군사분계선이라는 빨간 표지판이 선명합니다. 이 모형을 만든 이의 마음에 그 빨간 표지판이 하루 빨리 걷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분명하리만큼 선명하게 눈에 들어옵니다.

미륵의 꿈을 펼치려던 태봉국은 가뭇없이 역사에 묻혔는데, 그로부터 600여 년이 지나 이곳에 또 다른 미륵이 왔습니다. 임꺽정입니다. 경기도 양주의 백성 출신 임꺽정은 조정의 관료가 되려 했으나 출신성분이 미천하여 뜻이 꺾이자 봉건지배계급에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왕조가 당쟁에 혼란스럽고 그 바람에 백성은 피눈물을 흘리던 명종 14년(1559년)에 왕조를 무너뜨릴 수 있는 조직의 두목이 된 꺽정은 서울로 가는 길목인 철원에 진지를 마련하고 조정으로 가는 진상품을 빼앗아 양민에게 돌려주었습니다. 도적은 도적이되 의로운 도적입니다. 그는 '너도 잘 살고 나도 잘살되 고루 착하게 잘 사는 세상'을 이루려 했습니다. 그게 용화세계 아닙니까. 그러니 그가 미륵이지요.

철원에서 6월을 맞습니다. 삼팔선을 넘어 가다 민간인통제선(민통선)에 발길이 막히는 바로 거기에 세월의 풍상에 허물어지는 공산당사가 있습니다. 꼭 로마의 원형경기장 유적을 축소한 듯한 이 건물의 부서진 계단에 민들레가 돋았습니다. 꽃은 떨어지고 꽃씨는 바람에 날려 흩어졌습니다. 지금쯤 제 살 자리를 찾았을 겁니다. 풀잎만 남아 계단을 지킵니다. 참 평화롭습니다. 어찌되었든 이곳에 무기를 가득 채운 전차소리가 울리게 하여서는 안 되겠습니다.

서동석 前 민중불교운동연합 의장

LEADER

국제불교지도자협회 산하
국제 선불교 조계종

세계와 한국 속에 자랑스런 종단
12 인연법을 중시여기는 종단
누구에게나 떳떳하게 밝힐 수 있고 소개할 수 있는 종단
준비 되셨죠?
망설이지 말고 과감하게 용단을 내리세요.

- 사찰 등록 • 주지 임명 • 승려증 발급
- 행자 (예비 비구, 비구니 스님) 모집

어렵고 복잡한 것 싫습니다.
그저 종단의 보호만 받고 부처님 재산인 내 사찰 내 재산 내가 지키면 됩니다.
그러나 세계 각처에 어렵게 살아가는 극빈자들에게 종단에서 추진하는 중생 교화, 인간방생에 적극적으로 동참한다고 약속하면 됩니다.

개인 사찰의 재산권에 대해서는 종단 법으로 일체 간여하지도 간섭도 하지 않는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각 사찰에서의 불사나 행사에는 이제 부처님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같은 도반이요 부처님 제자요 가족이기에 품앗이 정신으로 서로서로 도우며 아무리 조그마한 사찰이라도 원만하고 자랑스럽게 행사를 봉행하도록 협조합니다.

종교법인 : 국제 불교 지도자 협회 산하종단 국제 선불교 조계종 / 총무원 : 02)733-5670. 733-5665 / 팩스 : 02)733-5671

C786-92010.5.313:38PM페이지1(1,1)

최연의 산 이야기 <13> 가야산5



가야산의 북쪽으로 뻗은 두산줄기 사이의 강당골에 있었던 보원사 터. 중앙에 5층석탑이 서 있고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천옥형의 명당이다.

불가와 선가의 스승이 새 시대를 준비하다

〈佛家〉 〈仙家〉

가야산의 주맥(主脈)은 북쪽으로는 산줄기가 크게 두 줄기로 뻗어 있다. 석문봉(石門峰)에서 갈라져 서북쪽으로는 일락산(日落山)을 일구고 상왕산(象王山)으로 뻗쳐 있고, 동북쪽으로는 옥양봉을 일구고 수정봉(水晶峰)으로 뻗쳐있다.

서북쪽으로 뻗어 있는 산줄기에는 빼어난 수행도량이 산기슭에 자리 잡고 있는데, 일락산 아래 일락사(日落寺)와 상왕산 아래 개심사(開心寺)가 그것이다. 개심사의 주산은 상왕봉으로 그 형상이 코끼리와 비슷하여 이 일대가 금상형(金象形)의 명당이라 하고, 이러한 곳에서는 훌륭한 수행인들이 많이 배출되는데, 지리산 실상사, 장흥 가지산 보림사도 이에 해당된다.

개심사는 1950, 60년대에는 100여 명의 비구니 스님이 공부하던 비구니 강원이 있었던 곳이다. 가야산 주맥의 서북쪽 중턱에 자리 잡고 있어 산사에 들면 개심(開心)이란 말과 같이 마음이 확 열리는 기분이 든다.

개심사의 좌청룡 산줄기는 가야산 주능선에서 힘차게 뻗어 내려와 개심사를 감싸 안아 매우 아름답고 튼튼하다. 이에 반해 우백호의 산줄기는 그 기운이 허약하고 높이도 대웅전의 지붕마루와 거의 비슷할 정도로 매우 낮다. 이러한 우백호의 허결을 비보하기 위해 커다란 소나무들을 우백호 능선 위에 많이 심어 놓아 정기가 흩어지는 것을 막았다.

풍수학에서는 우백호가 약하면 자손이 번성할 수 없다고 보는데 불가에서의 자손은 스님들이다. 그래서인지 개심사에는 수행자들이 오래오래 머물지 않았고 비구니 강원도 오래지 않아 다른 곳으로 옮겨졌다.

개심사보다 남쪽에 일락사가 있는데, 비록 터는 좁을지라도 좌청룡과 우백호가 잘 갖춰져 있고 전망도 좋아 수행자들이 한철 나기에는 그만이다. 그런데 좁은 터에다가 건물을 너무 크게 지었다. 이는 작은 배에다 너무 많은 짐을 실은 격으로 결국은 배는 가라앉게 된다.

동북쪽으로 뻗은 산줄기에도 가야사라는 대가람이 있었으나 임금을 배출하고자 하는 흥선군의 야욕으로 폐사되고 지금은 흥선군의 아버지 남연군의 묘가 자리 잡고 있다. 그리고 가야산에서 북쪽으로 뻗어 있는 산줄기는 석문봉에서 둘로 갈라져 하나의 물줄기를 만들어 내는데 이 물줄기를 용현계곡이라 하고 계곡을 중심으로 좌우로 부려놓은 터를 강당골이라고 한다.

강당골은 가야산 뿐 아니라 충남의 서북지방에서 가장 깊은 골짜기다. 그래서인지 예로부터 강당골에는 은자(隱者)들이 많이 살았다. 번잡을 피하여 고요히 도를 이루고자 드나들던 수행자들도 많았고 난세에 바깥세상에서 도저히 온전한 삶을 보존하기 어려워 몸을 피하려 골짜기로 들어온 이들도 많았다. 특히 이 골짜기가 화엄십찰(華嚴十刹) 중의 하나인 보원사(普願寺)가 있었던 곳이어서 수행자들의 발길이 잦았다.

보원사 터를 둘러싼 산봉우리들은 온화하고 유순하여 동글동글한 모습이 마치 막 피어나려는 꽃봉오리와 같다. 부드러운 산봉우리들은 온화하고 평화로운 기운을 품고 있어 상주하는 수행자들에게 화엄정신이 꽃필 수 있는 좋은 기운을 흠뻑 받을 수 있는 좋은 수행처이다. 그러나 사방이 산으로 꽉 막혀 시야가 매우 좁은 천옥형의 지형이다.

천옥형의 지기는 속성속패(速成速敗)의 땅으로 한번 일어날 때는 순식간에 피어나지만 쇠할 때도 그와 같이 빠르게 쇠한다. 그러서인지 보원사는 얼마 못가서 폐찰이 되고 만다.

보원사가 배출한 큰 스님으로는 구산선문(九山禪門)의 하나인 가지산문(伽智山門)을 크게 일으킨 체징(體澄) 선사가 있다. 체징 선사는 우리나라에 선종(禪宗)을 처음 들여오고 현재 조계종의 종조인 도의국사의 제자인 염거 선사를 설악산 진전사로 찾아가 가르침을 청하여 제자가 되어 그의 법맥을 이어서 선종이 크게 발전하는데 많은 공을 세웠다.

그리고 조선 말엽에는 동학도(東學徒)들이 관의 탄압을 피해 강당골에 많이 들어와 살았는데, 그중에서도 김복기(金福基) 선생이란 분이 유명한데, 그는 20대에 만민평등의 대동세상을 이루고자 동학혁명에 참가하였으나 혁명은 실패하고 수많은 동학도들은 죽임을 당했고 살아남은 자들은 뿔뿔이 흩어져 토벌군을 피하여 산속으로 숨어들었다. 김복기 선생도 무인도를 전전하다가 선인(仙人)을 만나 마음 닦는 법과 의술(醫術)을 배웠다. 결국에는 강당골로 숨어들어 남은 생을 무료로 의술을 베풀고 자신과 가족들은 늘 궁핍하게 40여년을 살다가 돌아가셨다.

가야산의 남쪽 기슭에서는 만공스님이 세계일화(世界一花)의 시대정신을 일깨우셨고, 북쪽 기슭에서는 김복기 선생이 의술을 베풀며 대동의 세상을 펼쳐보이고자 했던 것이다.

■ 최연 (아시아문화연대 이사장)

유승도의 산에 산에 피는 꽃은

복슬이

10년 전쯤이다.

"너도 세상 구경 좀 해볼래?"

복슬인 트럭 앞에서 꼬리를 흔들며 떨어지지 않으려 했다. 트럭을 타고 산 아래로 내려갈 때면 꽁무니를 따라 산 아랫마을까지 내려가기도 했다. 구불구불 돌고돌아가는 길을 따라 내려가는 차를 따라잡기 위해 복슬인 산을 가로질러 내려갔다. 길모퉁이를 돌아 내려가다보면 숲에서 길로 내려와 다시 차꽁무니에 따라붙는 복슬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그날은 복슬이를 트럭 짐칸에 태웠다. 복슬인 낮게 엎드려 그 어떤 두려움에 휩싸인 모습으로 움직이지 않았다. 차를 처음 타보니 그런가보다고 생각하며 면소재지인 옥동으로 나갔다. 농협 앞에 차를 세울 때까지 나는 복슬이의 상태에 대해 알지 못했다. 차들과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건물들이 복슬이에게 어떤 대상일 것인가에 대해 생각하지 못했다.

차에서 뛰어내린 복슬이는 건물과 건물 사이로 보이는 산을 향해 나아갔다. 급히 부르니 슬쩍 고개를 돌려 보면서 멈칫거리더니 끝내 나를 외면하고 산으로 올라갔다.

"복슬이가 돌아왔어요."

아내의 들뜬 목소리가 들려온 것은 그로부터 일주일 뒤였다.

"저기 버스 정류장에 나가서 혹시나 하여 '복슬아 복슬아' 하고 불렀더니 길모퉁이에서 '멍멍' 거리면서 막 뛰어오는 거예요. 앞에 와서는 펄쩍펄쩍 뛰고 난리가 났어요."

복슬이는 털도 거무튀튀하게 지저분해진 상태에서 비쩍 말라 있었다. 그런 몸으로 신이 나서 집 주위를 뛰어다니며 자신의 기쁨을 발산하기에 바빴다.

그 뒤로 10년 세월이 뚝딱 흘렀다. 복슬이의 배에서 나온 새끼들이 떠나가고 같이 살던 개가 사람의 먹이가 되는 상황이 반복되는 동안에도 복슬이만은 자신이 다시 찾은 집에서 살고 있다.

강아지 시절, 어린 아들의 손길을 피하지 못하고 플라스틱 자동차의 좌석 밑에 갇혀 아들이 가는대로 끌려다니던 때는 그래도 좋은 시절이었을까? 새로 이사 온 사람이 풀어놓은, 대여섯 배 크기의 개에게 물려 배가 찢어지는 중상을 입었을 땐 개의 운명이 다했다고 생각했지만, 아내가 바늘로 꿰매주고 약을 발라준 것이 효과를 보아서 뒷다리를 절룩거리는 병신이 된 것으로 삶을 이어나갈 수 있었다.

작년 늦가을, 그 뒷다리를 무엇인가에 또 물렸다. 며칠 동안 보이지 않아 마루 밑과 헛간을 뒤지며 불러도 아무런 기척이 없었다. 다시 며칠이 지난 뒤, 하수구로 흘러나오는 물을 홀짝거리며 먹고 있는 놈을 발견하곤 가까이 다가가보니 앞다리를 이용해서 겨우 몸을 끌고 나온 상황이었다. 나왔으나 돌아가진 못하고 앉아 있는 것을 비닐하우스 안에 부직포를 깔고 눕혀놓았다. 정신없이 받아먹곤 했던 빵을 통째로 주어도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너도 이젠 끝인 모양이구나!'

주둥이 옆에 빵과 물을 놓고, 아내가 가져온 우유에 항생제 하나를 타서 코앞에 들이밀었다. 내가 건넨 마지막 인사였다. 주둥이 끝에 우유가 닿자 다행히 혀를 내밀어 핥아먹었다. 이틀 후 살펴보니 빵이 사라진 자리 옆에서 복슬이가 살랑살랑 꼬리를 흔들었다.

요즘은 신발만 신어도 어디선가 나타나 나를 빤히 바라본다. 그때마다 나는 '저 놈이 내 속을 환히 꿰뚫어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의 눈초리로 눈빛을 맞받는다. 뒤를 쫓아와 불쑥 낙엽 밟는 소리를 내어 숲길을 걷던 나를 놀라게 하는 일은 이제 평상적인 일이다. 옆집에 가도 따라와 내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뒤를 따라 집으로 온다. 밭에도 따라와 밭둑에 엎드려 일하는 모습을 지켜본다.

문밖을 바라보니 오늘도 녀석은 푸르름을 배경삼아 마당 한복판에 자리를 잡고 배를 깐 채 엎드렸다. 잠에 든 녀석의 콧소리가 제법 마당을 울린다. 녀석은 문밖의 신발 앞이나 마루 밑이나 헛간이나 돌담 안쪽의 나무 밑이나 마당, 아무데서나 잠을 잔다. 다 자기 집이다. 방안까지 들어오진 못하지만 그 외의 곳은 다 녀석의 공간이다. 이 집이 나와 가족의 집인지 녀석의 집인지 도무지 헷갈린다. 산짐승을 막고, 찾아오는 손님을 제일 먼저 나가 마중하는 것도 복슬이다. 내가 주는 먹이를 먹고 산다는 얘기도 이상하다. 내가 먹이를 주는 건지 아니면 식사를 챙겨 드리는 건지 가늠이 안 된다. 누가 주인인 것인지 분명하지가 않다. 이 집이 누구의 것인지 더는 따지지 말고 살자는 것이 내 요즈음의 생각이다. 이 집에서 복슬이를 내친다는 것은 이제 가능한 일이 아니니, 그 외의 무슨 생각이 더 필요할까?

■ 유승도 (시인)

빙의의 시대 증상을 바로 알면 치료법이 보인다!!!



빙의의 시대

빙의란 무엇이며 어떻게 인간에게 영향을 끼치는가?
또 그 치료법은 무엇인가?
일평생 빙의치료를 공부해온 저자는 이 책에서 사후 영역에 있어야 할 귀신이 인간한테 접신되는 과정과, 귀신을 천도하여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 등을 자세히 보여주고 있다

빙의의 시대 2

〈빙의의 시대〉를 출간한 뒤 수많은 독자와 빙의 환자, 또 그들의 보호자들을 상담하면서 느꼈던 1권에서 못 다한 이야기를 내놓았다.
이 책에서는 귀신에 접신되었을 때 나타나는 증상과 조기퇴치의 방법, 본인 스스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법 등을 알려준다.

저자 / 일광(逸廣) 선생

오로지 천지인(天地人)의 궁극적 이치를 깨우치기 위해 전국 산하를 떠돌며 수행하던 일광 선생이 문득 회통의 밝은 빛을 보았으니, 오대산의 한 토굴에서였다.
그 뒤로 사후세계가 확연히 드러나며 영령들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고, 자신의 역할이 그들 귀신들을 안온한 세계로 천도해 다시는 인간세계로 돌아오지 않도록 하는 것임을 깨달았다.
〈빙의의 시대〉는 그러한 마음에서 저술한 일광 선생의 첫걸음이다.

병은 알릴수록 양약이 나타난다!

- 정신질환자 ● 우울증으로 고생하시는 분
- 귀신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 ● 무당 생활이 싫으신 분
- 꿈에 죽은 사람이 자주 보이고 가위눌림에 시달리시는 분
- 환청이나 환각으로 고생하시는 분
- 귀신이 몸에 있다고 고민하시는 분
- 몸에 통증은 있지만 병원의 진단에는 이상이 없는 분
- 원인 모르는 병으로 고생하시는 분
- 좌골신경통으로 오래 동안 고생하시는 분
- 만성 간경화증 환자 ● 말기 간암 환자

※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책을 읽은 뒤에 상담해주십시오.

상담전화 02) 743-7679, 010-5040-7679

우리출판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3가 1-38 전화 (02)313-5047, 5056 팩스 (02)393-9696



석우 스님의
조주록 선해 <17>

무엇을 얻으려 하지 마라

학승이 질문했다.
"대도는 뿌리가 없다고 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 표현해야 하겠습니까?"
조주 스님이 답했다.
"그대가 벌써 받아들여 표현하고 있지 않는가?"
학승이 질문했다.
"뿌리가 없다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조주 스님이 답했다.
"이미 뿌리가 없는데, 묶어 놓을 것이 어디 있겠는가?"

問 大道無根 如何接唱
師云 你便接唱
無根又作麼生
師云 旣是無根 什麼處繫

대도는 뿌리가 없다는 것은 대도에 정통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공감하는 말이다. 하늘과 땅이 있는 이상 대도는 넓고 크다, 그 어디에도 들어있지 않음이 없고 나타나지 않음이 없으나 그 실체는 보이지 않고 뿌리 또한 없다.

따라서 사람이 질문하는 순간에도 대도는 나타난다. 사람이 움직이고 말하는 것은 물론이고 산천초목이 가만히 서있어도 대도는 작용한 것이다.

따라서 대도는 한계 지을 수 없고 가히 무엇으로도 묶어 놓지 못한다. 그러므로 만일 대도에 통달한 사람이라면 그 쓰는 것에도 무한히 자유로울 수 있다. 그래서 선사들의 방할과 즉문즉답이 화통하고 자유로운 것이다.

학승이 질문했다.
"바른 수행을 하는 사람에게도 귀신이 알아차려 집니까?"
조주 스님이 대답했다.
"알아차린다."
학승이 질문했다.
"어디에 허물이 있습니까?"
조주 스님이 답했다.
"허물은 '찾는 것'에 있다."
학승이 말했다.
"그렇다면 수행하지 않겠습니다."
조주 스님이 말했다.
"수행해야 해."

問 正修行邸人 莫被鬼神測得也無
師云 測得
學云 過在什麼處
師云 過在覓處
學云 與麼卽 不修行
師云 修行

어떤 스님이 나이 60세가 넘도록 참선수행을 해보지 못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늘 참선 수행을 해보려고 마음먹고 있었다. 하루는 저승사자가 나타나 이름을 불렀다. 스님은 저승사자가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다. 그래서 저승사자에게 7일간만 유예를 달라 부탁했다. 죽기 전에 참선을 해보고 죽으면 여한이 없겠으나 이대로 죽기에는 너무 억울하다고 하소연했다. 사정을 듣고 난 저승사자는 7일간 유예를 주기로 하고 돌아갔다.

그 후 스님은 열심히 참선수행했다. 이것저것 다 밀어 놓고 오로지 선정 삼매 하나에 몰두해 열심히 수행했다. 7일이 다 될 즈음에는 드디어 적정삼매에 빠졌다. 마음은 고요하고 그 무엇에도 정신을 혼란하게 하지 않는 무념무심 삼매에 깊이 들어갔다.

저승사자가 7일 만에 스님을 찾아왔다. 그러나 스님은 방안에 없었다. 저승사자는 동서남북 사천하(四天下)를 낱낱이 살펴보아도 스님이 어디로 갔는지 도대체 알 수 없었다. 할 수 없이 스님 찾는 것을 포기하고 되돌아갔다.

수행하되 과거 행위만 고치려 해라
부처가 되려하면 허송세월만 보낸다

스님은 분명히 방안에 앉아있었지만, 저승사자에게는 스님이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귀신은 사람의 형체를 보고 식별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마음을 보고 식별한다. 마음이 어떤 식으로든 움직이면 귀신은 즉시 알아챈다. 그런데 스님이 무념무심에 들어갔기 때문에 저승사자가 찾지 못하고 돌아간 것이다.

만일 누가 올바르게 수행한다고 해도 부처가 되려고 수행한다면 그는 귀신의 손아귀에서 절대 벗어나지 못한다. 자신을 부족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부처를 구하려는 마음이 있으면 그 망상을 귀신은 즉시 알아차리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수행을 중지해서도 안 된다. 마음이 부처인 것은 분명하지만 오래 묶은 세인의 습성은 부처의 길을 가는 것에 방해를 일으키기 때문이다. 수행하되 다만 과거의 행위만 고치려 해야지, 부처가 되려고 한다면 아무리 올바르게 수행한다해도 아무 결과도 얻지 못하고 허송세월만 보낼 것이다.

학승이 물었다.
"들은 바에 의하면 화상께서는 '도(道)는 수행에 속하지 않는다. 다만 오염시키지만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염시키지 않는다는 말은 어떤 것입니까?"
조주 스님이 대답했다.
"안팎을 점검해 보아라."
학승이 물었다.
"스님께서는 점검하십니까?"
조주 스님이 대답했다.
"점검한다."
학승이 물었다.
"어떤 허물이 있어서 점검하십니까?"
"자네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問 和尙有言 道不屬修 但莫染汚 如何是不染汚
師云 檢校內外
云 還自檢校也無
師云 檢校
云 自己有什麼過檢校
師云 你有什麼事

조주 스님의 일관된 주장은 '수행하여 무엇을 얻으려 하지 말라는 것이다. 다만 일상사에 마음을 오염시키지 않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선법은 조주 스님만 그러한 것이 아니고 모든 선사들의 한결같은 주장이다. 만일 이 마음을 닦을 물건으로 생각하거나 닦아야 부처가 된다는 식의 가르침을 편다면 그것은 혜능문하 남종(南宗)의 선법(禪法)이 아니다.

남종의 선법은 역사적으로 바른 법으로 여겨져 왔기 때문에 중국에서 여러 번 불교가 피해를 당해도 사라지지 않고 지금까지 면면히 이어왔다. 그 뿌리는 대승 경전에 두고 있고 특히 <원각경>과 <화엄경>의 '중생이 곧 부처', '중생성불(衆生成佛)' 이라는 부처님의 사상을 그대로 이어받은 것이다.

육조 혜능의 선법은 깨달음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닦음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즉, <육조단경>에서 나오는 오인돈수(悟人頓修)이다. 깨달으면 그 자체가 닦음도 마친 것이라는 의미이다. 그렇다고 수행을 거부하는 것도 아니다. 깨달은 자가 수행하는 것은 불행수행(不行修行)이다. 부처의 행을 수행하는 것이라는 말이다. 육조 스님은 제자 법달에게 "네가 이제 깨달았으면 불행(佛行)을 수행하라"하고 분명하게 당부했다.

여기 <조주록>에서도 조주 스님은 남전 스님 밑에서 깨달음을 얻은 100세가 넘은 노화상이지만 아직도 점검한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 즉 돈오보림(頓悟補任)이다. 깨달은 자도 수행하지만 그 수행은 부처가 되기 위해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부처의 길을 잘 가려고 수행하는 것이라는 말이다. 현재 한국에는 이 선법을 명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드물다.

■ 무불선원 선원장

덕산 스님의 달마록 선해
달마관심론 22

형상은 마음으로 돌아간다

그러므로 경에 말씀하시길 '범소유상 개시허망((凡所有相 皆是虛妄: 무릇 형상이 있는 것은 모두 다 허망하다)이라' 하셨고 또 '약이색견아 이음성구아 시인행사도 불능견여래(若以色見我 以音聲求我 是人行邪道 不能見如來: 만약에 모습으로 나를 보려하거나 음성으로 나를 찾으려 하면 이 사람은 삿된 도를 행하는 것이니 여래를 볼 수 없으리라)라' 하셨다.

이것으로 미루어 보건대 나타나있는 현상들은 진실하거나 바른 것이 아님을 알지니라. 그러므로 과거에 부처님들이 닦으신 공덕은 모두 다 다른 말씀이 아니라 오직 마음을 논하신 것이니라. 마음은 부처님들의 근원이기도 하며 마음은 온갖 죄악의 주인이기도 하느니라. 위없는 참된 즐거움이 자기의 마음으로 생겨나고 삼계를 윤회하는 것도 역시 마음에서 일어나느니라.

마음이 세간을 벗어나는 문턱이고 마음이 해탈의 나루터이니 출입구를 아는 사람이 어찌 이루지 못할 것을 염려하며, 나루터를 아는 사람이 어찌 도달치 못할까 근심하겠느냐.

[원문]

故經云 凡所有相 皆是虛妄 又云若以色見我 以音聲求我 是人行邪道 不能見如來 以此觀之 乃知事相 非眞正也 故知過去諸聖 所修功德 皆非外說 唯只論心 心是衆聖之源 心爲萬惡之主 無上眞樂 自由心生 三界輪廻 亦從心起 心爲出世之門戶 心是解脫之關津 知門戶者 豈慮難成 識關津者 何憂不達

[해설]

<금강경>에 나오는 '범소유상 개시허망'은 '형상뿐 만 아니라 정신 작용을 포함한 우리 눈앞에 펼쳐진 모든 존재는 진실한 것이 아니다'를 뜻합니다.

본래가 형상이 없는 마음에서 나왔기 때문에 마음에서 나온 모든 것 역시 모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착각하고 살뿐입니다.

실상을 바로 보지 못하고 나라는 생각으로 인해 부처님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밝은 지혜가 가려진 겁니다. 그래서 눈앞에 펼쳐진 모든 존재는 허망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약이색견아 이음성구아 시인행사도 불능견여래'는 형상으로 부처님을 보려고 하거나 음성으로 구하려는 자는 진리의 부처님을 보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우주 실상은 마음으로 돼 있고 그 마음을 인격적으로 부처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모든 물질이 마음으로 돼 있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진리는 형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소리로 진리를 구하려 해도 구할 수가 없습니다.

형상으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표현도 할 수가 없습니다. 육신뿐만 아니라 모든 물질을 분석해 보면 모두 마음으로 돼있기 때문에 부처님은 눈으로 볼 수 있는 부처님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나타난 현상계는 진실한 것이 아니고 사실이 아님을 알라는 것입니다. 물질은 일초 전과 일초 후가 같지 않아 사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일체가 마음으로 되어 있다고 말을 했고 그 마음을 잘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성인이 되는 것도 마음에 달렸고 죄악을 짓는 것도 마음에 달렸습니다.

열반이나 즐거운 세계로 가는 것도 자기 마음에 의해 생겨납니다. 본래 마음이 부처이기 때문에 마음에는 생사가 없는 것인데 함부로 남을 속이거나 헐뜯고 욕심을 부리는 것으로 인해 스스로 윤회에 떨어지게 됩니다.

중생 세계를 벗어나는 것도 마음에 달렸고 마음을 잘 다스려야만 해탈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 청주 혜은사 주지



寒山 · 拾得 · 豊于 三聖圖 · 69x 46cm. 동성 스님 作.

귀신뽑는 신통술! 백초귀장술
찾아온 시간과 모습의 점쾌로
왜 왔는지, 무슨 귀신이 붙었는지
상대방마음을 꿰뚫어 보는 비법!
귀신을 제대로 뽑으면 천도제 권하기가 쉽습니다.!
* 귀장술12신궁으로 신년운세 보는 법
* 귀장술12신궁의 직장취업운 보는 법
* 귀장술12신궁의 시험합격운 보는 법
* 귀장술12신궁의 매매 • 이동운 보는 법
* 매물로 내놓으면 매매가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 언제쯤 매매가 성사 되겠는가?
* 귀장술12신궁의 금전재물운 보는 법
* 받을 돈이 있는데 받을 수 있겠는가?
* 이 사업을 해서 돈을 벌겠습니까?
* 사업을 확장할까? 다른 사업으로 바꿀까?
* 동업을 해도 괜찮을까?
* 부부인연因緣에 낀 액운厄運암시록
* 집안 동토귀신 알아내는 법
* 자녀액운 착귀탈 정단법
* 취직시험 • 승진시험의 합격 판단법
* 선거 후보당선 벼슬하는 여부 판단법
* 관청 • 공무원 빈자리 입관가능여부
* 소송 • 관재사의 승패 판단법
* 보고싶은사람, 기다리는 사람 소식가능일
* 가출자가 언제쯤 집에 돌아올까?
* 잃어버린 분실물 위치 추정법
* 도주 • 도망간 사람이 어느쪽으로 갔을까?
* 12신궁 숨어있는 조상원귀법
* 12신궁에 암장된 악령귀신
* 귀장술歸藏術로 보는 前生투시법
* 前生의 夫婦인연 원침살이 現生에 미치는 현상
* 귀장술歸藏術로 뽑은 빙의착귀신론
* 귀장술歸藏術로 뽑은 사후死後환생 귀신작해론
* 산소 • 무덤에 관해서 [음택법]
* 무덤안 유골의 현재상태 알아내는 법
글 • 백초스님
상 • 하권 / 720면 / 정가 각 120,000
百超歸藏術 上
百超律歷學堂
百超律歷學堂
입금 계좌 | 농협 023-02-500940 임현주
신한 010-6413-4443 임현주
비법전수중
(02) 3667-4446
010-3813-4443



향봉 스님의 육조단경 강의 ②

등불은 빛의 몸 · 빛은 등불의 용

◆ 정혜일체(定惠一體)

"나의 이 법문은 정과 혜로써 근본을 삼나니, 첫째로 미혹하여 혜와 정이 다르다고 말하지 말라. 정과 혜는 몸이 하나여서 둘이 아니니라. 정은 바로 혜의 몸이요, 혜는 바로 정의 작용이니 혜가 나타날 때 정이 혜 안에 있고 또한 정이 나타날 때 혜가 정안에 있느니라.

도를 배우는 이는 짐짓 정을 먼저 하여 혜를 낸다거나 혜를 먼저 하여 정을 낸다고 해서 정과 혜가 각기 다르다고 말하지 말라. 이런 소견을 짓는 이는 법에 두 가지 모양(相)이 있는 것이니라. 입으로는 착함을 말하면서 마음이 착하지 않으면 지혜와 선정을 함께 함이 아니요. 마음과 말이 함께 착해 안팎이 한 가지면 선정과 지혜가 곧 함께 함이니라.

일행삼매란 어느 때나 가거나 머물거나 앉거나 눕거나 항상 곧은 마음을 행하는 것이니라. <정명경>에 말씀하기를 '곧은 마음이 바로 도량이요, 곧은 마음이 바로 정토다' 라고 하였느니라. 마음에 아첨하고 굽은 생각을 가지고 입으로만 법의 곧음을 말하지 말라. 입으로는 일행삼매를 말하면서 곧은 마음으로 행동하지 않으면 부처님 제자가 아니니라. 단지 곧은 마음으로 행동하여 모든 법에 집착하지 않음을 일행삼매라고 하느니라. 그러나 미혹한 사람은 법의 모양에 집착하고 일행삼매에 국집하여 곧은 마음은 앉아서 움직이지 않는 것이라고 하며 망심을 제거하여 일으키지 않음이 일행삼매라고 하나, 만약 이와 같다면 이러한 법은 무정(無情)과 같은 것이니 도리어 도(道)를 장애하는 인연이니라.

마음과 말이 함께 착해 안팎이
한가지면 정과 혜가 곧 함께 함이라

도는 모름지기 통하여 흘러야 하나니, 어찌 도리어 정체할 것인가? 마음이 머물러 있지 않으면 바로 통하여 흐르는 것이요, 머물러 있으면 바로 속박이 되는 것이니라. 정과 혜는 무엇과 같은가? 등불과 그 빛과 같으니라. 등불이 있으면 곧 빛이 있고 등불이 없으면 빛이 없으므로 등불은 빛의 몸이요 빛은 등불의 작용인, 이름은 비록 둘이나 몸은 둘이 아니니, 정과 혜의 법도 또한 이와 같으니라.

법에는 단번에 깨달음과 점차로 깨달음이 없다. 그러나 사람에 따라 영리하고 우둔함이 있으니, 미혹하면 점차로 계합하고 깨달은 이는 단번에 닦느니라. 자기의 본래 마음을 아는 것이 본래의 성품을 보는 것이니, 깨달으면 원래 차별이 없으나, 깨닫지 못하면 오랜 세월을 윤회하느니라. 나의 이 법문은 예부터 단번에 깨침과 점차로 깨달음을 모두 세우나니 생각 없음을 종으로 삼으며 모양 없음을 본체로 삼고 머무름 없음으로 근본을 삼느니라."

중국의 고어(古語)에서는 혜(惠)와 혜(慧)가 같은 의미로 쓰입니다. 마치 스승 사(師)와 짐승 사(獅)가 고어에서는 으뜸 사, 앞설 사, 모범 사, 이끌어갈 사 같은 의미로 쓰이듯이 말입니다. 어질 혜(惠)는 똑똑할 혜(慧)와 의미가 겹쳐, 트이고 열린 바른 앎(知)과 바른 봄(見)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육조단경>의 제2장인 정혜일체(定惠體)는 선정(禪定)과 지혜(智慧)는 둘이 아닌 하나임을 일깨우기 위한 장(章)이라 할 것입니다. 흔히 참선 수행하는 스님이나 거사들이 선정삼매의 깊은 도락(道樂)에 대해 은근한 자랑을 늘어놓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구업(口業) 수준의 선정삼매는 오고갈지언정 넉넉한 지혜의 슬기로움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짜여진 시간표에 의해 죽비소리에 길들여지는 작금의 선원풍토에서는 절구통 스님은 있을지언정 마음이 열린 참 선지식은 쉽게 찾아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定)이 있으면 혜(惠)가 있기 마련이요, 혜(惠)가 있으면 정(定)은 저절로 이뤄질 터인데도 선정삼매만 자랑할 뿐 열린 지혜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형식과 틀에 안주하는 한 관습의 고리와 집착의 병을 떨쳐 버릴 수 없을 것입니다.

화제를 잠시 다른 데로 돌려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천수경(千手經)> 첫 머리인 정구업(淨口業)부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천수경>의 첫 부분에서 구업(口業)을 등장시킨 것은 신 · 구 · 의(身 · 口 · 意) 삼업(三業)중 구업의 비중이 가장 크기 때문이라는 설명이 나옵니다. 몸으로 짓는 신업(身業)은 살생, 투도, 사음이 있고 뜻으로 짓는 의업(意業)에는 탐진치가 있으나 구업(口業)에는 망어(妄語), 양설(兩說), 기어(綺語), 악구(惡口) 등 4가지가 있어 그 비중이 크며 수행자로서 지켜야 할 으뜸 덕목이 구업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러나 신 · 구 · 의 삼업은 셋이 아닌 하나임을 알아야 합니다. 구업이 의업이요, 신업이 의업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코 밑의 입만이 입이 아니라 열리고 뚫리고 위아래로 흐르며 막힘없이 통하는 것은 모조리 입 아닌 게 없는 것입니다. 눈은 보는 입이요, 귀는 듣는 입이며, 코는 냄새 맡는 입이요, 배꼽 밑 두 개의 생식기는 배설하는 입인 것입니다. 입으로만 의사표현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눈짓, 손짓, 발짓, 몸짓으로 강한 대화, 은밀한 의사 표시를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살생과 투도, 삿된 음행은 몸이 저지르는 신업이나 의업의 지시와 판단에 의한 행동일 뿐이며 입으로 짓는 망어, 기어, 양설, 악구 역시 입으로 뜻이 표출되고 있으나 의업의 판단과 지시에 의해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육조 혜능 선사는 '도를 배우는 이는 짐짓 정(定)을 먼저해 혜(惠)를 낸다거나 혜(惠)를 먼저해 정(定)을 낸다고 해서 정과 혜가 각기 다르다고 말하지 말라. 이런 소견을 짓는 이는 법에 두 가지 모양이 있는 것이니라. 입으로 착함을 말하면서 마음이 착하지 않으면 지혜와 선정을 함께함이 아니요, 마음과 말이 함께 착해 안팎이 한가지면 정과 혜가 곧 함께함이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육조 스님은 <유마경>의 '곧은 마음이 바로 수행도량이요, 곧은 마음이 바로 극락정토' 라는 말씀까지 인용해 열린 마음으로 들어서는 빗장까지 풀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육조 혜능 스님께서는 일행삼매를 언급했습니다. 스님은 '일행삼매에 국집해 곧은 마음은 앉아서 움직이지 않는 것이라 하며 망심을 제거해 망념을 일으키지 않음이 일행삼매인줄 알며 이러한 무리는 무정과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도는 모름지기 통하여 흘러야 하나니 어찌 도리에 정체할 것인가.' 라고 우리의 고정관념의 잠든 의식을 흔들어 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육조 스님께서는 등불까지 등장시키며 '등불이 있으면 곧 빛이 있고 등불이 없으면 곧 빛이 사라지므로 등불은 빛의 몸이요. 빛은 등불의 용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정을 떠나 혜가 있을 수 없고 혜가 없는 정은 의미를 잃고 마는 것입니다. 육조 스님께서는 '법에는 단박에 깨달음과 점차로의 깨달음이 없다. 사람에 따라 영리함과 우둔함이 있을 뿐' 이라며 '생각 없음으로 종을 삼고(無念爲宗), 모양 없음으로 본체를 삼고(無住爲本), 머무름 없음으로 근본을 삼는(無相爲体)' 도리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모양이 없다고 하는 것은 모양에서 모양을 여읜 것이요, 생각이 없다고 하는 것은 생각에 있어서 생각을 여읜 것이며, 머무름이 없다고 하는 것은 사람의 본래 성품이 생각마다 머무르지 않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응무소주 이생기심(應無所住 而生其心)의 설명과 해석이 '머문바 없이 생각을 낼지어다' 가 아닌 '한 생각이 일어나되 거기에 머물지 말라' 가 바른 해석인 것입니다.

육조 혜능 스님의 다음으로 이어지는 말씀이 이를 증명해 보이는 가르침입니다. '한 생각이라도 머무르면 생각마다에 머무르는 것이므로 얽매임이라고 부르며, 모든 법위에 순간순간 생각이 머무르지 아니하면 곧 얽매임이 없는 것이니, 그러므로 머무름이 없는 것으로 근본을 삼느니라.'

이쯤해서 육조의 3대 제자 중 한 사람인 남악회양 선사가 그의 제자 마조를 질타한 좌선법에 대해 언급하고자 합니다. 마조가 깨달음을 위해 날마다 나무그늘에 앉아 좌선을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의 스승인 남악 선사가 마조 곁에 와서 벽돌로 기왓장을 갈고 있었습니다.

"스승께서는 벽돌로 기왓장을 갈아 무엇에 쓸려고 그러십니까?" 스승이 대답하기를 "거울을 만들어 볼까 해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제자가 스승의 어리석음을 탓하듯 조소어린 투로 말했습니다.

"백날 벽돌로 기왓장을 갈아 보십시오. 거울은 커녕 멀정한 벽돌과 기왓장만 부서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자 이번엔 스승이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그대는 앉아서 맨 날 무엇을 이루기 위해 정진하는가?" "저는 깨달음을 성취해 부처를 이루기 위함입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스승이 제자의 어리석음을 탓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앉아서 부처를 이룬다면 앉은뱅이가 부처를 이룰 것이다. 마차를 움직일 땐 소를 때려야 겠는가? 마차를 때려야겠는가?"

생각이 바뀌어야 운명이 바뀌는 것입니다. 마음이 열려야 세상이 열리는 것입니다.

장식과 격식 따위는 벗어버려야 합니다. 오로지 간절심 하나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형식과 절차에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나무와 나무를 비벼대면 뜨거워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1000번을 비벼서 불꽃을 얻을 수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름, 겨울 안거기간만 시간을 정해 놓고 나무와 나무를 비벼대다가 해제가 되면 비벼대는 작업을 쉬게 됩니다. 나무의 열은 빠르게 식는 법입니다. 이런 풍토, 이런 정진자세에서 선지식이 출현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뻔한 대답은 뒤로 하고 육조의 3대 제자 중 한사람인 영가현각 선사의 시원한 게송을 끝으로 올려놓습니다.

夢裏 明明有六趣 覺後 空空無大千
꿈속에서 헤매일 때는 육도윤회가 분명히 있는 줄 알았더니
깨닫고 보니 삼천대천세계마저 없는 것을



혜능대사상.

정리= 이은정 기자 soej84@buddhapia.com

Q/A 불교는 왜 이렇게 경전이 많은 건가요?

저번 시간에 스님께서는 <육조단경>의 교재로 덕위본, 종보본, 돈황본이 있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스님이 왜 돈황본을 고집하는지 말해주십시오.

-돈황본은 덕위본, 종보본에 비해 어렵습니다. 다듬어지지 않은 오래전에 만들어진 경전이다 보니 자기 나름대로의 식견을 필요로 합니다. 돈황본은 덕위본 종보본에 비해 번역자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를 통해 돈황본을 교재로 해서 저의 견해를 피력해야 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성철 스님이나 청화 스님이 시도했던 것을 제 자신도 공부하는 기회를 삼고 정리하기 위해 돈황본을 교재로 택했습니다.

기독교는 경전이 신약과 구약뿐입니다. 하지만 불교는 <육조단경> 하나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불교는 왜 이렇게 경전이 많은 건가요.?

- 예수는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2년 8개월 정도이며, 학자에 따라서는 이 기간마저도 더 짧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석가모니 부처가 깨닫고 열반에 들기까지의 기간은 45년입니다. 부처는 45년 동안 다양한 방법으로 중생에 맞춰서 설법을 했습니다. 또한 예수가 활동한 무대에 비해서 부처가 활동한 지역은 훨씬 더 넓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르침의 양이 방대했고, 그러한 부처의 말들을 정리한 경전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육조 혜능 대사는 '법에는 단번에 깨달음과 점차로 깨달음이 없다' 고 말했습니다. 불교에서 깨달음에 대한 설명히 다양한데, 깨달음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깨달음은 환희로움이 오고 '깨달음의 세계가 이런 곳이구나' 라는 것이 아닙니다. 공부를 해 나가는데 시야가 넓어진 정도입니다. 선정과 지혜가 둘이 아닌 하나라고 배웠습니다. 신 · 구 · 의 삼업은 셋이 아닌 하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기의 견해가 분명하고 흔들리거나 방황하지 않는 것입니다. 깨달았는지 깨닫지 못했는지는 10~20년을 지켜보면 알 수 있습니다.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이 깨달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지난 호 본문 중 응무소주(應無所主)와 수처작주(隨處作主)의 주(主)를 주(住)로 바로잡습니다.



전통불교천지대왕종
불교의 심오한 진리와 전통민속신앙의 대통합 선포



이 땅의 모든 종교신앙인들이여! 진리의 문을 활짝 열고 종교의 벽을 헐자.
반만년 민족신앙을 오늘 다시 숭앙하자. 한겨레 한터에서 한 이치로 함께하자.

이 땅의 존귀하신 종교 신앙인 들이여!

국조 단군성조께서 나라를 세우신 이래 수많은 종교가 탄생하여 3생을 오가며 절대적 존재로 때로는 미혹한 모습으로 성현, 도사, 도인, 신주, 만신, 신딸 등으로 불리며 8부중생과 더불어 존재해 왔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세력화된 기성종교에 밀려서 미신이란 이름으로 폄하되고 소외당해 왔습니다. 그러나 시련의 현실 속에서도 역사와 더불어 종교로서 존재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에 한국불교의 한축을 이끌어 온 대한불교종단총연합회 회장이신 석연 대종사께서 전법에 진력하시며 이 땅의 전통(민속)종교인 및 철학인들의 권익과 보장책을 숙고하던 중, 이 세상에 절대적 유일신은 없다는 확고한 신념으로 불교의 심오한 진리와 전통민속신앙을 접목하여 대도를 구성하고 홍익인간 이화세계사상으로 극락정토를 구현하는 새로운 회상을 열고자 전통불교천지대왕종을 창종하여 선포하니 우리모두 이 결사에 동참하여 교화의 대열에서 함께하고 역량과 사명을 다해 새로운 세상을 엽시다.

전통불교천지대왕종과 함께하실 신앙인 여러분을 열린마음으로 환영합니다. 모든 종교의 성직자, 신도, 교도, 법사, 전도사, 교화사, 포교사, 철학인, 도사, 도인, 작명가, 신딸, 만신님들 차별없이 환영합니다.

▣ **입종 및 입회원서 접수 :**
본종 총본산 수련도량 불탑사 외 종단에서 지정한 교구청 및 특설사무처

▣ **동참 특전** (소정의 서류제출 완비하고 등록한 분에게는)
- 본 종단 의식교전 및 종헌 종법 제공
- 관할관청에 등록하여 재산관리 세무회계를 주선
- 체계화된 교육으로 종교지도자로 양성함
- 사찰, 사암, 포교당등록증, 법위증, 사증 등을 교부
- 종단의 각종 회의에 참석 특전, 중요임원 출마권과 선출권 부여함
- 행정, 교육, 운영 관리에 뜻 있는 분 특별우대함

총본산 수련도장 설악산 불탑사
강원도 양양군 서면 논화리 산 100-1번지 / 전화 033)671-7751 / 핸드폰 019-248-7751
개창주(開創主) 석연 대종사 창종위원 : 지선, 무생, 무풍, 천풍

금생에 부처는 못 돼도 '가운데 토막'은 될 수 있다



전등사 보타선원 회주 보광 스님

보광 스님은 ...
경기도 파주에서 태어나 해인사에서 고암 스님을 은사로 득도한 보광 스님은 해인사 강원을 나와 4년 동안 중강을 지냈고, 해인사 선원 등에서 16하안거를 성만했다. 해인사 재무 및 규정국장 소임과 용탑선원장을 역임했다. 부산에 전등사를 창건, 도시포교에 매진하며 (재)대각회 이사, 부산서구 사암연합회장, 부산불교교육원장 등을 지냈다. 부산대학교 경영대학원과 행정대학원을 졸업한 스님은 조계종 총무원장 표창과 사회봉사 공로 부산시장 표창을 받았다. 현재는 해인사총동문장학회 이사장을 맡고 있다.

'안심 조심 관심 용심' 한 순간에 돌아가게 정진

오줌통 속 파리 살리려던 고암 스님 '자비 덩어리'

"준비하는 사람이 있어야 먹는 사람도 있지."

열 살이 채 안 된 나이에 아버님께 들은 말입니다. 이웃 마을에 잔치가 있었는데, 그때는 마을 사람들이 다 함께 준비를 했지요. 남정네들이 물지게를 지거나 물동이를 들지 않는 것이 관례였는데 그 잔치를 준비하면서 아버님께서 물지게를 지셨던 겁니다. 그걸 보신 어머님이 심하게 아버님을 나무라셨는데 아버님은 아주 낮은 목소리로 이 한마디를 하셨던 겁니다. 옆에서 그 말씀을 들은 나는 뭔지 모를 감동에 젖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마디는 행자시절 내 가슴에서 다시 피어났습니다.

나라도 절도 가난하던 시절,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그렇게 살았나 싶을 정도로 모든 것이 불편했고 그만큼 몸이 고달프지 않으면 안 됐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아버님의 그 낮은 목소리가 무엇보다 큰 힘이었습니다. 그 힘은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지극하게 기도하게 했습니다. 별로 한 일도 없이 고희(古稀)를 맞은 지금까지도 그 말씀은 내 가슴속에 살아 있습니다.

한국전쟁이 나서 다들 피난을 갔는데, 나도 어찌하다보니 마산까지 내려갔습니다. 거기서 외삼촌이 내 손을 잡고 어느 절로 갔어요. 성주사라는 절인데 거기 외종조부가 계신다는 것이었습니다. 뜻밖에도 외종조부 되시는 분은 스님이셨습니다.

"네 어머니가 8세 때 봤다. 그런데 지금 그 아들이 14세 나이로 이렇게 찾아 왔구나."

스님은 매우 반가워하시며 절에 머물며 공부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머리가 맨질한 스님의 모습, 정갈한 방, 향 내음 진한 법당 등 모든 것이 신기하기만 했습니다. 경기도 파주가 고향이라 고령산 보광사로 소풍을 가보긴했지만 그렇게 절집에서 먹고 자는 일을 처음 겪으며 어리둥절했지요. 어느 날 스님의 방에서 잡지 하나를 보게 됐습니다. UN군의 일원으로 참전한 태국 군인들이 보던 잡지였습니다. 그 책에서 사진 하나를 보았는데, 국왕과 어느 스님이 인사를 하는 장면이었어요. 그런데 사진 속의 스님이 국왕보다 더 높은 자리에 계시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스님, 국왕보다 스님이 더 높은 분인가요?"

"높다마다. 스님이 왕보다야 높지."

"그럼 스님은 어떤 사람이 되는가요. 아무나 스님이 될 수 있나요?"

"아무렴. 아무나 될 수 있지. 법의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단다."

소풍 때나 절에 가보고 지나가는 탁발승을 본 게 전부였던 나에게 아주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학교행사 때 교장선생님과 함께 단상에 앉으시는 군수님이나 경찰서장님만 '높은 사람'인 줄 알았고, 군수나 서장이 되고 싶었던 시골아이였으니 오죽했겠습니까? 마음이 왈칵 쏟아져 까닭모를 설렘이 가슴을 오랫동안 채웠습니다. 물론 그것이 출가의 결정적인 인연이 됐지요. 외삼촌을 따라가서 인사를 드린 바로 그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습니다. 그 스님은 뒷날 조계종 제 3대 4대 6대 종정을 지내신 고암(古庵 1899~1988) 스님이셨습니다. 참으로 인자하시고 열정적으로 수행하시던 승단의 귀감(龜鑑)이셨지요.

해인사에서 공양간 일을 소임 맡아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는 소변을 커다란 나무통에 받았어요. 거름으로 쓰려고 말입니다. 큰스님께서 해우소 곁에 있는 그 소변통에서 뭔가를 열심히 건져 내시는 것이었습니다. 다가가서 보니까 오줌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파리를 살려주시려고 싸리 꼬챙이를 휘젓고 계셨습니다. 나는 공양간에 파리가 많아서 그놈들을 몰살시키려고 산에서 파리버섯을 따다가 보리밥에 짓이겨 널어놓았는데 큰스님께서는 오줌에 빠진 파리를 건져주려고 애쓰고 계셨습니다.

그 순간 나는 밝고 찬란한 자비의 덩어리, 생불(生佛)을 보았습니다. 그 감동은 참으로 오랫동안 나를 지배했어요. 참된 가르침은 큰 목소리나 유창한 말재주가 아니라 진실한 행동이어야 한다고 했던가요? 6년간 해인사 강원에서 공부했고 4년을 그 강원에서 중강 노릇을 했지만, 나는 그보다 더 큰 법문을 공부한 것 같지 않았습니다.

범어사에서 행자시절을 보낸 시간이 가장 선명하게 기억됩니다. 갱두, 채공, 강사스님 시자, 관음전 기도 등의 소임을 번갈아 하면서 숨 쉴 틈 없이 살았던 그 1년이 그 이후 반세기가 넘는 세월을 지탱해 주는 힘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장 고생스러울 때 가장 큰 공부를 하는 겁니다. 가장 힘든 시간이 가장 큰 힘을 주는 시간이란 말입니다. 그 시간에 저에게 힘을 준 것은 '준비하는 사람이 있어야 먹는 사람도 있다'는 아버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어린 나에게 그 고된 생활을 버틸 신심이나 원력이 따로 있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아버님의 그 말씀과 은사 스님의 자상하면서도 단호한 가르침이 저를 버티게 한 겁니다.

'안심(安心)하라'는 말을 자주 듣고 또 하시지요? 조심(操心)하라는 말도, 관심(觀心)을 가지라는 말도, 용심(用心)을 잘 하라는 말도 더러 들으실 겁니다. 자이렇게 마음 심(心)자가 들어가는 말들이 있는데, 불교가 가르치는 핵심이 여기 다 들어 있어요. 경전을 공부하고 선수행을 하는 궁극의 목적이 뭡니까? 마음을 편안케 해 번뇌가 없는 것, 절대고요[寂滅]에 이르러 청정한 자성을 밝히고 유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이 장황해서 그렇지 알고 보면 마음을 편하게[安心]해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불교의 궁극입니다.

달마를 찾아간 혜가도 "마음이 편치 않다"고 호소했고 달마는 "불안한 그 마음을 가져오라"고 독촉했습니다. 팔뚝을 잘라 바칠 정도로 구도심이 간절했던 혜가는 '마음은 본래 불안한 것이 아니라 편안한 것'임을 깨우치는 순간 달마의 법을 이어 받았잖습니까?

안심이 돼야 부처도 보이고 극락도 보입니다. 안심을 이루려면 조심해야 합니다. 조심이란 자기 스스로 자신을 감독하고 코치하는 겁니다. 물론 뛰는 선수도 자신이지요. 선수와 감독과 코치를 동시에 하는 겁니다. 마음을 바깥으로 흘려보내지 말고 자기 안에서 늘 단속하는 것이 조심입니다. 번뇌와 망상, 혼침과 산란은 바늘구멍보다 작은 틈으로도 찾아들어옵니다. 그렇게 들어와서는 황소가 드나들 만큼 커다란 구멍을 내지요. 그 커다란 구멍을 통해 드나드는 것은 모두가 불안덩어리입니다. 조심이 없으면 안심도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조심은 어떻게 하느냐? 관심을 잘 하면 됩니다. 자신을 살펴보는 겁니다. 자신의 발아래 뱀이 있는지 쇳조각이 있는지는 오직 자신이 살펴야 합니다. 자기의 마음자리를 살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번뇌가 쳐들어 왔는지 산란이 발동하는지 스스로 살피고 제어하고 단속할 일입니다. 그게 관심입니다. 헐떡거림을 쉬지 못하고 발아래를 살피지 못하는데서 불행이 닥쳐오는 겁니다. 관심을 제대로 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용심도 잘 하게 됩니다. 누구나 선심과 악심이 엎치락뒤치락하는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

사업장의 법구 금강 삼고저

장사성공과 사업성공 축원불공 마쳐!



부처님 제1의 비방법구

개업 선물로도 품격!
장사가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은터가 있어 사업이 잘되고 장사가 흥왕하는것을 볼수 있다. **장사가 안되는 자리를 보면 중생의 지혜도 부족하지만 터도 세고 보이지 않는 잡귀의 방해로 오는 손님의 마음을 흔들어 문앞에서 방황하게 만들고, 들어왔다해도 결정을 못하게 방해하며, 일하는 사람이나 직원들은 오래 있지 못하고 첫손님이 헛손님이 되면 하루종일 헛손님으로 장사를 힘들게 잡귀가 조화를 부린다.** 부처님 제1의 법구인 금강삼고저는 사업장의 화를 미리 쫓고 잡기를 물리치며 사업성공의 수호신으로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거상들이 사업장에 걸어 놓았던 금강삼고저를 국립 중앙박물관에서 유물로 볼수 있다. 각종 식당과 점포, 각종 사업장, 산재위험이 있는 사업장 등에 금강삼고저가 걸려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으며 장사흥왕 및 사업번창과 산재예방의 축원불공을 마치고 시판하는 금강삼고저는 금니로 제작되어 있어 품위가 있고 가로8cm 세로3.5cm에 벽에 걸게 고리와 수술이 달려있어 사업장 안에 걸어 놓으면 좋습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가 격 : 85,000원 (신용카드 분할가)
문 의 :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 협 : 032-12-193445 이상하 (사찰스님 20% 할인)

장사 성공을 축원합니다
식당, 가든, 의류점, 보석상, 부동산중개소, 이미용실, 목욕탕, 다방, 정육점, 노래방, 주점, 모텔, 여관, 병원, 각종학원, PC방, 당구장, 서점, 인쇄소, 문방구, 기원, 복권방, 각종스포츠센타, 핸드폰점, 분양사무소, 안경점, 신발매장, 전자제품매장, 미곡상, 방앗간, 공장, 주유소, 산재사고 위험 사업장 등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호신불규격 직경 : 3.5cm, 세로 4.5cm

자동차사고 예방 축원불공마쳐!

자동차용 호신불

차량사고 예방과 생명보호의 필수품
운전하는 가족친지에게 사고예방의 선물

세상에서 평생 아름다운 선물!

자동차를 타고 가다보면 운전석위에 염주를 고정시켜 걸고 다니는 차를 종종 보게된다. 염주는 부처님께 예불을 드리는 공양법구로 차에 고정시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부처님 법구 중에는 다니면서 액운과 화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호신불이 있다. 우리나라 호신불은 신라시대 전쟁에 나가는 장수들과 귀족들이 지니고 다녔다. 신라가 통일전쟁을 벌일때에 화랑장수와 화랑장수의 말에 왕이 직접 전장에서 죽지말고 승리하고 돌아오라는 뜻에서 목각으로 만든 반가사유상호신불을 하사 했으며 호신불을 가지고 전장에 나간 장수와 말은 죽지 않고 승리하고 왔다고 한다. 하루에도 교통사고로 수백명씩 사망 또는 중경상으로 편한날이 없는 오늘도 안녕을 지키는 호신불을 운전하는 아내와 자녀에게, 남편과 친지에게 사고예방과 생명안전을 기원하는 선물을 한다면 평생 아름다운 선물이 될것입니다.



호신불 뒷면에는 운전하고 가는 곳마다 계획한 일들이 성공되게 비방의 "반장"을 넣었고 생명보호와 사고 예방 축원불공을 마친 금니호신불을 자동차 운적석 위 룸밀러에 걸고 다니면 안전하고 품위가 있다. 고급케이스에 선물로도 품격이 있으며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가 격 : 45,000원 (사찰스님 30% 할인)
문 의 :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 협 : 032-12-193445 이상하

용띠, 쥐띠, 원숭이띠, 드는 삼재시작 조심

닥쳐올 삼재화를 미리쫓는 영험 삼재소멸 금강저



삼재무탈하게 축원불공마쳐
삼재화를 소멸 승리하는 비방

2010년 드는삼재 2011년 묵는삼재 2012년 나가는삼재 **용띠, 쥐띠, 원숭이띠** 중생들은 2012년 말까지 3년간 삼재기간으로 각별히 조심하고, 공덕을 쌓으며, 자중자애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지내는 것이 좋다. 지난 소띠, 뱀띠, 닭띠 삼재기간중에 삼재화로 건강으로 고통받고 삼재관재수로 법적인 문제에 휘말리며, 삼재액운으로 사업이 어려워지고 재산을 소진하며, 가정이 파탄되고 하는 일마다 뜻대로 되는 일이 없으며 갖가지 어려운 고통속에 삼재화를 당하는 중생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아왔다.
삼재가 시작된 **용띠, 쥐띠, 원숭이띠** 생들은 드는 삼재가 제일 어려운 시기이므로 자만심을 버리고 비방을 하는 것이 안전하다. 불가에서는 삼재기간중 삼재화와 삼재 액란을 소멸하는 비방으로 불자들에게 부처님 제1의 법구인 **금강저**를 몸에 지니고 다니게 한다. 또한 삼재기간중 삼재소멸 비방을 잘하고 자중자애하며 공덕을 쌓으면 삼재기간에도 크게 성공하는 중생들도 많이 있다. 금니로 제작된 삼재소멸금강저는 삼재기간 중 무사무탈하고 승리하게 점안식과 축원불공을 마치고 전화로 신청하면 금강저를 보내 드리며 지갑속에 평생 넣고 다니면 된다.
가 격 : 45,000원 (사찰 공급 가격 별도 상담요)
문 의 :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 협 : 032-12-193445 이상하

좋은 열매는 좋은 씨 뿌려야

다. 용심의 중심이 없다는 말입니다. 마음을 쓰는데 튼튼한 기둥이 있다면 헐떡거리고 엎치락뒤치락 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 안심이 중요하니 안심을 하려면 조심해야 하고 조심을 잘 하려면 관심을 잘하고 용심을 잘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가 어떤 순서에 의해 돌아간다고 생각하면 함정에 빠지는 겁니다. 순서도 없고 앞뒤도 높낮이도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닌 지금 바로 이 순간에 그 네 가지의 마음이 함께 돌아가야 합니다. 과거생이 궁금해 현생을 망칠 수 있겠습니까? 내생이 궁금해 현생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과거도 미래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현재가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현재도 없는 겁니다. 현재는 어느새 과거가 되고 미래는 또 어느새 현재입니다. 어디에 과거가 있고 현재와 미래가 있겠습니까? 느끼는 순간 따지는 순간 이미 다 놓쳐버립니다.

있음과 없음을 초월한 자리에서 마주치는 현재가 진정한 현재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몰입하는 것, 현전일념(現前一念)이 돼야 합니다. 지금의 밝은 마음 지금의 기쁜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수행이고 정진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 뭘 따지려고 하지 말고 안심하면 됩니다. 조심하면 됩니다. 바르게 관심하고 제대로 용심하면 됩니다. 한다는 마음조차 없이 말입니다. 뭘 한다는 것은 존재 한다 살아 있다는 것이니, 거기에는 상(相)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금강경>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다 공한 것임을 가르친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바로 그렇게, 현생에 안심하고 조심하고 관심하고 용심하는 도리를 알면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 가운데 토막 같다'는 말이 있지요? 무심해 보이고 초탈해 보이는 사람, 그러면서도 늘 자비롭고 이해심이 넓은 사람을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안심이 되는 사람이 부처님 가운데 토막이 아닌가 싶습니다. 안심하기 위해 조심하고 관심과 용심을 잘 하는 사람이라면 완전한 부처는 아니더라도 가운데 토막은 될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현생에 가운데 토막이 되면 다음 생에는 온몸이 부처를 이루지 않을까요?

지금 나의 행동은 반드시 결과를 가져 옵니다. 그것이 인과입니다. 누구도 어떤 행위도 벗어날 수 없는 진리가 인과법입니다. '불락인과(不落因果)와 불매인과(不昧因果)'의 이야기로 유명한 화두, 황벽선사 이야기가 있잖습니까? 인과는 누구도 벗어날 수 없으니 지금의 마음이 곧 인이고 과입니다. 좋은 열매를 얻으려면 좋은 씨앗을 뿌려야 하는 겁니다.



해인사 강원 시절이었습니다. 어느 날 대구에 나갈 일이 생겼습니다. 그 시절엔 해인사에서 대구가 상당히 먼 길이었고 별 일없이 다닐 수도 없는 길이었지요. 그래서 누가 나간다면 학용품이나 필요한 물건들을 사다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나도 여러 사람의 부탁을 받고 돈을 챙겨서 대구로 가는 버스를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가다보니 어디에서 아주머니 한 분이 타시는데 함지박 가득 미꾸라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바글바글 거품을 내는 미꾸라지들의 운명은 뻔했습니다. 대구 인근의 화원장터에서 팔리면 반드시 국솥으로 들어갈 것이었습니다.

나는 주머니 속의 돈을 생각했습니다. 강원의 여러 스님들이 물건을 사다달라며 주신 돈이지만, 그런 것을 따지기에 앞서 자꾸만 미꾸라지들의 운명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겁니다. 결국 옆의 신도님을 시켜 값을 알아보고 기사님에게 위천 다리 중간에 차를 세우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그 높은 다리 난간에서 한 동이의 미꾸라지들을 방생했습니다. 아마 몇 마리는 다이빙이 서툴러 죽었을지도 모르지만, 나는 뒷일을 생각하지 않고 그 생명들을 살렸다는 기쁜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즐거웠으니 강원에 돌아와 들은 핀잔과 원성은 꽃잎을 스치는 봄바람이었지요. 그 후에 여러 차례 방생법회를 다녔지만, 위천 다리 복판에서 혼자 감행했던 방생보다 기쁜 방생은 없었습니다.

모든 업은 마음에 새겨집니다. 자신을 모르는 사람은 자기의 마음에 악업을 새깁니다. 자신을 아는 사람은 선업을 새기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순간에 내 마음에 어떤 인을 새겨 어떤 과를 예약하는지 스스로 관심하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생활이 무르익으면 번뇌 망상이 쳐들어 올 틈이 없는 삶, 안심하고 사는 길이 열릴 것입니다.

글 · 사진=임연태(시인 본지논설위원)



활안 스님의 내가 만난 선지식 禪

95. 미얀마 밍군 스님

우리에게는 일찍부터 '버마'로 알려진 '미얀마'. 지리적으로 인도차이나 반도 서북부에 위치한 미얀마는 한반도의 3배가 넘은 큰 나라로 134개의 소수민족이 살고 있고, 전국에 400만 개가 넘는 불탑이 세워져있어 '불탑의 나라'로 알려져있다.

이러한 불교국가 미얀마에서 빼놓을 수 없는 스님 중 한분이 바로 밍군 스님이다.

밍군 스님은 1911년 미얀마의 타이뷰와에서 태어나 8세에 민잔 민자웅 승원의 우 소비타 스님에게 입문해 불교와 인연을 맺었다. 1930년에 구족계를 받고 1937년 담마다나 승원의 책임자가 됐다.

스님은 36세 때 가장 길고도 어려운 시험으로 명성이 높았던 '티피타카다라(三藏護持) 시험'을 통과해 삼장과 주석서들을 꿰뚫었음을 인정받았다. 삼장법사는 경 · 율 · 론의 삼장을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모두 암송하는 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에게 부여되는 호칭이다. 미얀마에는 총 8명의 삼장법사가 있는데 밍군 스님 이후 이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없다고 한다.

부처님께서 입적하신 뒤 칠엽굴에서 있었던 1차 결집, 아소카왕 당시의 2차 결집 등 1, 2, 3차 경전 결집은 인도에서 이뤄졌다. 이후 4차 경전 결집은 스리랑카에서 이뤄졌으며 5, 6차 경전 결집은 미얀마에서 이뤄졌는데 밍군 스님은 양곤에서 1952년 이뤄진 6차 경전 결집 당시 주도적 역할을 담당했다.

밍군 스님은 제6차 경전 결집에서 위사자카(삼장의 모든 부분에 관한 질문에 답하는 '응답자')로서의 역할을 해내 1차 경전 결집에서 각각 율과 법을 설했던 우팔리 존자와 아난다 존자의 역할까지 한 번에 수행했다. 스님은 당시 1만6000쪽의 경전을 암송해 당시 인류 역사상 이러한 암송력을 가진 자는 일찍이 없었다는 평가와 함께 1985년 기네스북에도 등재됐다.

스님은 그 후 1980년 국가 승단인 '마하나야카 위원회' 총서기 직에 선출됐고 티피타카니카야 협회(삼장 및 경장 협회)를 창



밍군 스님을 기리는 동상과 스님의 일대기 · 저서를 볼 수 있는 세계 최대 벽돌탑 만달레이 밍군 파고다.

립했으며 각종 불교대학을 설립했다. 또 스님은 '비구들을 위한 지위타다나 사사나(생명을 베푸는 불교) 특별 병원'을 설립하는 등 미얀마 불교의 중흥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또 스님은 부처님 일대기에 관한 연구인 <마하붓다왕사>를 남겼는데 경과 율을 참조해 살피는데 많은 이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으며 현재 영어로 번역돼 전 세계에서 발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동국대 철학박사로 초기불교 및 대승 경전을 전공하고 오랫동안 팔리어 연구에 천착해 온 최봉수 교수가 밍군 스님의 <마하붓다왕사>를 10여 년의 노력 끝에 우리말로 완역했다. 현재 밍군 스님의 제자들에 의해 영역돼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마하붓다왕사>를 최 교수는 그 영어 번역본을 기본 텍스트로 삼아 마하붓다왕사의 내용을 우리의 말로 풀어냈다. 최 교수가 번역한 <마하붓다왕사>는 우리나라에서 <대불전경>으로 출간됐다.

미얀마 정부는 이러한 스님에게 '아가마하판디타(최승의 대현자)' '아비다자 마하탓타구루(수승한 깃발이자 국가의 위대한 존장)'라는 칭호를 수여했다.

또 밍군 스님이 당시 외운 경전은 현재 만달레이에 석경으로 조성돼 있는데 792개의 백색 대리석에 6차 결집 당시 독송된 경 · 론들이 새겨져 공원을 형성하고 있다. 미얀마 사람들은 이를 다 읽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한 번 보고 만지기만 하면 죽은 뒤 악도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믿어 이곳을 순례한다고 한다. 세계 최대 벽돌탑인 만달레이 밍군 파고다에도 이러한 스님을 기리기 위해 커다란 스님의 동상이 세워져 있으며

미얀마 불교 중흥… 1만6000쪽 경전 암송 기네스북 등재

원형으로 돌아가며 스님의 일대기와 사진 저서들이 전시돼있다.

밍군 스님이 계실 때의 일화다. 누군가 밍군 스님에게 '깨달음'에 대해 물었다고 한다. 그러자 스님은 빙긋이 웃으시며 "적게 먹고, 욕심 부리지 않으며, 모든 생명을 나처럼 아끼는 것, 이것이 깨달음 아니겠습니까"라고 말했다.

그러자 질문한 사람이 "에이, 스님.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라고 답하자 스님은 다시 "그렇습니다. 그러나 나이 많이 먹은 노인도 실천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것이 진정한 깨달음이 아니겠습니까"고 답했다고 한다.

돌아가실 때까지 모든 이들에게 모범이 된 밍군 스님. 부처님 말씀을 오롯이 전하고 그 당시의 정신으로 살고자 한 스님의 향취는 아직까지도 수많은 미얀마 국민들과 불자들의 추앙을 받고 있다.



이재복 지음(270면)

폐결핵으로 한쪽폐가 없어지고 간경화, 위궤양, 대장염으로 복수가 차서 피를 토하고 쓰러져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사람이 병원에서 마저 쫓겨나 죽음을 기다리다 무심코「발치기」운동으로 살아난후 세계최초로 창안한 활인건강법!

"이운동으로 죽을 병고친사람, 몸이 더욱더 건강해진 사람, 정력이 변강쇠처럼 된 사람 무수히 많아, 누구든지 하기만 하면 제병을 제가고치는데 안하니까 문제여, 이운동은 무병장수할수 있는 최고의 운동이여„ (본문에서)

빛 살림
정正골骨요법

그림을 보고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습니다.

도서출판 창조. 값10,000원

평생 척추, 골반, 관절 걱정없다

퇴행성관절, 안짱다리, 고관절, 디스크, 좌골신경통, 오십견, 견비통, 목뻣뻣, 수족냉증, 두통, 갑상선질환, 불면증, 상기증

젖먹이 아이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본능적인「기지개운동」을 통해 건강하게 무럭무럭자란다.(생명의 신비!)
강력한 생체전기가 전신을 감싸고 입안에서는 단침이 몽클몽클, 내분비계통을 활성화 시켜서 만성적인 성인병을 치유하는 기지개운동법 수록

골반 골반변형이 만병의 원인! (불임, 생리통, 수족냉증, 무릎관절통) 가장빠른 골반교정운동, 스스로하는 평생골반관리법, 편안하게 누워서 골반과 전신의 균형을 잡는법 수록!

척추 뇌에서 내려오는 30,000가닥의 신경다발이 추간공을 흐르고 있다. 척추는 오장육부의 뿌리, 비뚤어진 척추를 스스로 바로잡아 질병의 뿌리를 뽑는다.

복부 뱃살과 전쟁, 복부비만을 아주쉽게 해결한다. 물혹, 자궁근종, 위염, 위궤양, 변비등의 원흉인 복부적취를 가장쉽고 빠르게 해결하는 온열쾌장운동법!

근육 근육의 긴장, 수축, 노화로 인해 신경, 혈관, 림프관의 압박으로 신경통, 근육통등 각종 통증에 시달리게된다. 근육풀이 건강법으로 통증을 뿌리채 뽑아버리는 통증치유법수록!

국제정골요법협회
소백산수련원
경북 영주시 단산면 구구리 〈구구초등학교자리〉

■ 도서구입안내 : 이 책은 서점에는 없습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책신청 : 054)637-9810
■ 농협계좌 : 751017-52-024285 김순옥

- 정골요법 속성반 강좌 (1박 2일) -

정골요법 속성반 강좌에서는 놀라운 건강법이 공개됩니다. 각종 통증과 심혈관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에게 획기적인 건강법입니다.
즉석에서 효력을 확인할 수 있고 눈으로 보여드립니다.

책 구입시『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Dr.황의 바른 자세 바른 생활 ⑳ 어깨 탈골

'어깨 탈골' 습관성되는 경우 많아

어깨를 돌리다가 갑자기 '뚝' 소리와 함께 어깨가 빠지는 느낌을 받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는 어깨와 팔꿈치 사이의 뼈가 어깨뼈에서 빠져 나오는 것으로 어깨 탈골이라고 말합니다.

인체의 모든 관절 부위는 각각의 정상적인 관절동작의 일정한 관절운동 범위(ROM)를 갖고 있습니다. 회전의 운동 범위, 굽힘의 운동 범위, 젖힘의 운동 범위 등 각각의 관절은 관절과 관절의 연결부위의 구조적 모양의 특성과 관절을 감싸고 있는 근육의 탄성, 인대의 강직 도와 개개인의 체형적 특징으로 인해 관절의 가동범위는 각각 차이가 나기 마련입니다.

정상적인 관절의 운동범위가 과도한 관절의 외상, 손상과 견인(잡아당김)으로 인해 관절의 가동 · 운동범위를 초과 또는 이탈돼 관절주변의 근육의 손상과 인대의 손상 및 연골손상을 유발시키는 증상을 탈골(아탈)이라고 합니다.

견관절(어깨 관절)은 우리 몸에서 유일하게 360도 자유로운 회전이 가능한 관절로 많이 사용하는 만큼 손상과 탈골이 가장 많이 유발되는 관절입니다.



어깨 탈골 증상을 방치하면 체형이 불균형해질 수 있다.꾸준한 운동과 스트레칭이 어깨 탈골과 체형 불균형을 예방한다.

어깨 탈구는 빠지는 방향에 따라 전방, 후방, 다방향 탈구로 나타납니다. 그 중 몸 앞쪽으로 어깨가 빠지는 전방 탈구가 80%이상을 차지합니다. 특히 어깨 탈구는 10~20대 사이에서도 많이 발생하는데 이 시기는 축구 · 농구 등 격렬한 운동을 즐기는 시기지만 상대적으로 어깨뼈를 감싸고 있는 연골이 약하기 때문에 작은 충격에도 탈구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어깨는 다른 관절에 비해 운동 범위가 크므로 운동 중 다치거나 넘어지면서 습관성 탈구로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가 빠지면 심한 통증이 동반됩니다. 젊은 나이에 자꾸 빠지면 어깨관절 내 어깨 관절을 감싸고 있는 4개의 인대가 잦은 손상으로 파열되는 등 만성 탈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각종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조기에 손상 부위에 대한 정확한 검사와 교정이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화나 방송매체에서 자신의 어깨가 빠진 것을 벽에다 부딪쳐서 스스로 교정하는 모습을 본적이 있을 것 입니다. 보통 어깨가 빠진 경우 임의로 맞추게 되면 빠지면서 문제가 없던 관절이 찢어지거나 늘어나게 되어 그 과정에서 신경이 끼거나 뼈가 부러져 신경이 손상되거나 혈관이 막히는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대단히 위험합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치료가 이루어진다면 습관성 어깨 빠짐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에 따른 2차 합병증으로 어깨 부위의 만성질환으로 악화될 수 있습니다.

어깨는 빠진 방향에 따라 교정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며, 탈구된 관절을 맞출 때 신경과 혈관의 손상이 있을 수도 있기에 대단히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어깨 탈구가 발생하면 빠진 팔을 몸에 붙인 채 반대쪽 손으로 팔을 감싸고 가까운 병원으로 가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이때 부상 부위는 최대한 움직이지 않게 해야 합니다.

필자의 체형교정클리닉에 찾아온 한 분은 생수를 배달하는 직업을 가졌는데, 한손으로 생수통을 들고 아파트와 건물을 오르내리면서 매일 같이 일하셨습니다.

이 분은 과거 수차례 습관성 견관절 탈구증으로 고생해 물리치료 등을 수차례 받았지만, 어느 날부터 오른쪽 어깨주변의 가벼운 통증으로 시작해 어깨를 포함하여 어깨 · 등 까지 근육통이 심해지더니, 결국 어깨를 움직이기 힘들 정도가 됐습니다.

테스트 결과, 어깨 근육 대부분이 이미 정상적인 제 기능을 발휘하지 심각하게 손상됐고, 이러한 손상된 상태에서 과도한 작업을 지속한 결과 척추와 골반의 비틀림과 휘어짐 또한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필자는 빠진 어깨의 방향을 분석해 어깨 교정을 시작했고, 1주일 후 탈구된 어깨가 회복됨에 따라 습관성 탈구증으로 악화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전신의 체형 교정 운동 처방을 해드렸습니다. 초기의 불안정한 어깨의 상태는 일상생활을 해도 무리가 없을 정도로 상당히 탄력 있게 회복됐고, 그로인한 전신의 체형 불균형 증상 또한 상당히 호전되어 건강하게 생활하게 됐습니다.

어깨 질환은 젊었을 때부터 꾸준한 어깨 운동과 스트레칭을 생활화하면 예방이 가능하므로 항상 꾸준한 관리가 필수입니다.

포스츄어앤파트너스 교정센터
황상보 원장 T : 1544-9697



김경현 원장의 몸 · 마음 이야기 ⑧ 피로 · 과로사

피로한의 조정이 건강증진 첩경

피로는 육체적 · 정신적으로 지치거나 탈진한 상태로 기력이 없고 다른 일에 무관심해지는 경우이다. 운동이나 식사 후 나른하게 오는 피로는 건강한 사람도 느낄 수 있는 정상적인 피로이다. 이 피로는 충분한 휴식을 위하고 나면 자동으로 풀린다. 그러나 충분한 휴식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피로감을 느끼며 이러한 증상이 6개월 이상 지속되면 만성피로라고 한다.

만성피로는 기억력이나 집중력이 감소하며 목구멍에 통증이 있고 목이나 겨드랑이 임파선이 붓거나 지속적인 근육통이 있다. 잠을 자고 일어나도 상쾌하지 않고 평소와 달리 운동을 하고나면 24시간 이상 피로감이 지속된다.

건강진단의 모든 지표들이 정상 범위라 하더라도 이러한 만성피로가 지속되면 과로사로 이어질 수 있다. 한참 일할 나이인 40대에 돌연사가 많은 이유는 만성피로에 가볍게 대처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만성피로가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물질을 예로 들어 살펴보기로 하자.

항복점 고무줄은 당기면 잘 늘어난다. 그러나 영원히 늘어나지는 않는다. 어느 한계까지는 늘어나지만 더 늘리면 온갖 수단을 다해도 보통 방법으로는 제자리로 돌아가지 않는다. 이 점을 항복점이라 한다. 사람에게도 항복점이 있다. 과로라는 것은 항복점을 넘은 상태를 말한다.

내점(耐點) 재료나 사람에게는 회복이라는 것이 있다. 항복점을 넘은 재료라 하더라도 적절한 처리를 하면 항복점 이전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말한다. 이 점을 내점이라 한다. 그러나 일단 내점을 넘은 재료는 특별한 처리를 해도 회복되지는 않는다.

사람도 마찬가지이다. 과도한 피로와 스트레스는 항복점을 넘은 심신의 상태이다. 이것을 내점을 넘기 전에 회복시켜야지 만일 내버려 두면 회복하지 못하고 내점을 넘어 버린다. 그러면 어떤 수단으로도 손쓸 도리가 없다. 스트레스 과잉은 만성병을 유발한다. 고무줄은 내점을 넘어서도 당기면 늘어난다. 다시는 줄어들지 않을 뿐이다. 계속 늘리면 어느 점에 이르러서는 끊어진다. 이것을 물질에서는 파괴 또는 파단이라고 한다. 사람으로 말하면 죽음 즉 과로사를 초래하는 것이다. 항복점이란 탄성한계점을 말한다. 즉 탄성(彈性)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점이다. 재료는 탄성점이 높은 것이 좋다. 탄성한이 큰 재료는 늘어나도 끊어지지는 않기 때문이다. 사람도 마찬가지이다. 이 탄성한이 높으면 저항력도 세다. 그러므로 각자의 탄성한을 높여야 한다.

피로(疲勞) 그러면 탄성한만 넘기지 않으면 무슨 일을 해도 좋은가. 그것은 그렇지 않다. 재료에는 탄성한 외에도 피로한(疲勞限)이라는 것이 있다. 고무줄도 탄성한 아래라고 할지라도 반복해 계속 늘였다 줄였다 하면 어느 횟수에 이르러서 끊어져 버린다. 이것을 피로파괴(疲勞破壞), 사람에게서는 과로사라 한다. 그런데 어느 수준 이하에서는 무한대로 이 신축운동을 계속해도 고무줄이 끊어지지 않는 한도가 있다. 이것을 피로한이라고 한다. 어떤 중량에서 어떤 재료를 탄성한 이내에서 백만 번을 반복해서 신축을 해도 파괴되지 않았다면 그 중량이 피로한도이고 그 때의 강도를 피로강도라 한다.

사람에게도 피로한이 있고 피로강도가 있다. 어떤 사람이든지 이 피로강도 이하에서는 무슨 짓을 해도 신체에 무리가 가지 않고 피로도 쌓이지 않는다. 이 피로한이 높은 사람이 진짜 저항력이 강한 사람이다. 그러므로 각자 자기의 피로한을 정확하게 조정하는 것이 건강증진의 첩경이다.

자신의 피로한을 높이는 적절한 투자가 필요하다. 스트레스를 낮추고 생활의 리듬을 규칙적으로 잡고 면역력을 증강시키며 불균형한 몸을 보충해 주어야 한다. 몸과 마음의 허(虛)한 곳을 보(補)하는 것, 피로한을 높이는 방법이다.

선재한의원 (02)518-0845



황현수의 불교와 무술이야기 ⑳

지형의 이점으로 승리했던 토번

옛날의 티벳도 지금같이 환경이 좋지 않았습니다. 전쟁을 일으키려면 농작물이 잘 자라 군량미를 쌓아 놓을 형편이 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당나라를 좌지우지 할 수 있었을까요? 이는 지형의 이점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올바른 해석입니다.

7세기 초인 643년부터 계속돼 왔던 토번과 당의 전쟁은 8세기까지 이어졌고 서로 밀고 밀리는 전투였습니다. 당 현종의 치세를 맞이한 당나라는 최전성기를 맞아 세계에서 당시 가장 강한 국력을 자랑했습니다. 이에 따라 토번은 우마이야와 함께 대항해 보기도 했으나 서역의 영토를 대부분 잃는 등 당나라에게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755년 절도사의 난이 시작되자 당은 날로 쇠퇴했고, 이에 토번은 치송데첸(赤松德贊)의 등장으로 다시 전성기를 맞았습니다.

토번이 당을 압도하는 군사력을 장악했다는 결정적인 증거는 763년 토번의 장안성(長安城) 함락 사건입니다. 중국 측 기록인 <구당서(舊唐書)>에는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791년 토번의 영토.

"황제가 섬주로 옮겨 경사가 함락되자 항장 고휘가 토번을 이끌고 상도성으로 들어가 토번대장 마중화(馬重華) 등과 함께 고빈왕 아들 광무왕 승굉을 황제로 세우며 대사면을 베풀고 관리를 임명하였다. 토번은 성에서 15일간 머무른 뒤 퇴각했다."

한편, 티베트 사료(史料)에는 "겨울에 하로(下路)의 당주(왕)가 죽고 새 당가 즉위 한 뒤 약속을 어기고 공견(貢絹)을 바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땅도 헌납하지 않아 마침내 적국이 됐다. 이에 상계씨(尙野)와 상동첸(尙東贊) 등이 여러 성보를 공격해 이기고 상계씨는 번(蕃)으로 돌아갔다. 상계씨와 뮌다자루콩 등이 군사로서 경사(장안성)를 포위해 경사성(京師城)이 함락되고 당주가 탈출해 도망치니 따로 새 당주를 세우고 개선했다"고 적혀있습니다.

몽고 역시 중국을 자주 침략했던 이유가 자신들의 영토에서는 풍족할 만큼의 농작물을 얻지 못했던 것이 계기가 됐습니다. 이 같은 이유로 토번도 중국을 약탈 목적으로 넘나들게 됐던 것입니다.

몽고에는 비옥한 토기가 없는 대신 광활한 평야에서 활동할 수 있는 빠른 기동력의 기마 문화가 발전했습니다. 토번에는 이 같은 문화는 없었어도 험난한 지형적 배경을 이용했습니다. 일반적인 거주지가 해발 4000m를 넘는 이점 아닌 이점이 작용됐습니다.

중국이 우리나라와의 전투에서도 번번이 실패하였던 이유가 자신들의 전투 문화인 평야 전투가 아니라 공성 전투였기 때문입니다. 성은 수십만 군사의 역할을 했습니다.

토번은 기마 문화도 공성 문화도 아니었지만 그들이 사는 지형 자체가 거대한 성 역할을 충분히 해줬습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당은 위 문헌에서도 보이듯 토번과의 전쟁을 피하려고 그들에게 공물을 상납하는 어이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중국을 자주 이겨봐서인지 토번은 약탈 질에 만족하지 않고 그들을 완전한 속국으로 만들고자 노력했습니다. 달도 차면 기운다고 누가 그랬나요? 예전의 강성했던 토번 제국의 영화는 어디가고, 지금은 정반대가 된 상황에 처해있는 것일까요.

근본불교학자/ 다음카페 : 37수도장

명상치유 (건강관리)
지구 테스트를 통해 불자님의 건강을 상담해드립니다.(무료)
▸ 체질을 알아야 나에게 맞는 음식, 과일, 차를 알고 먹을 수 있습니다.
▸ 생명수, 기(氣) 두 가지중 한가지만 본인에게 드립니다.
▸ 우리 몸에 가장 중요한 기(氣)를 넣어 드립니다.


음식+생명수+기(氣)=건강증진을 키워 드립니다.
사는 동안 아프지 않고 살고 싶은분, 수술전이나 후 허약하신분, 치매, 암, 당뇨,고혈압, 아토피, 뇌졸증, 심장병(부인화병), 우울증, 천식, 위장장애, 모든 요법으로 고치지 못한 분이나 여러가지 신체적 장애를 가지고 계신분.
건강한 사람은 더욱 건강하게 허약한 사람은 건강하게 - 음식, 생명수, 기(氣)로 그날 변화를 직접 본인이 확연히 느낄 수 있습니다.

※ 스님,불자님 지구에 계시는 모든분 꼭 한번 찾아오세요!!
(예약은 7일 전에 해주세요)
약사(氣)선원
원장 김광호 합장
■ 대구광역시 달서구 송현2동 572-4
■ 053) 568-7373 / 010-5672-7373

한국근본불교조계종
공 경남교구 본산 주지 공개모집 고
한국근본불교조계종 제 14교구 경남 종무원 청정사 주지를 공개 모집합니다.
◆ 자격 : 법당 10년이상 비구, 비구니로 한국근본불교조계종 종도로써 활동하며 청정사 중창불사에 전념할 수 있는 스님
◆ 대우 : 종신 주지 및 사자상승보장 (종단에 소정의 후원금 지급 요)
◆ 자산 : 법당 30평, 요사 20평, 선방 50평, 산신각, 석불, 석탑 등 대지 630평, 임야 7400평 등
총무원장 의륜 합장
■ 주 소 : 경남 합천군 청덕면 초곡리 820번지
■ 문의전화 : 011-352-7751

불기 2554년(2010) 경인년 부처님 오신날
대한불교 조동종 승정위원 주석사찰
두리봉 산하 행운사
회주 법공 덕룡
주지 이룡 행전
총무 지현
신도일동
■ 경기도 양평군 청운면 삼성리 216번지
TEL 010-9189-3346 / 011-781-0218

불기 2554년(2010) 경인년 부처님 오신날
대한불교 조계종
운람사
주지 등오
■ 경북 의성군 안평면 신안리 806
TEL 054)832-6696

전선(케이블) _ 연등승강장치 天上列車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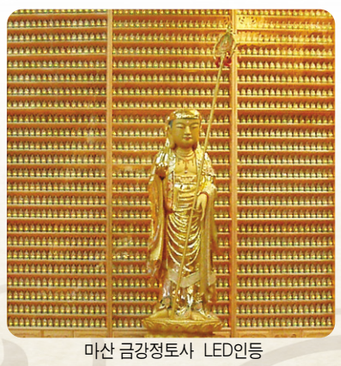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대구 여래사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서울 화계사


외부에 시공된 전선케이블

찬덕연등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찬덕연등이 개발한 영구위패 · LED 인등 · LED 전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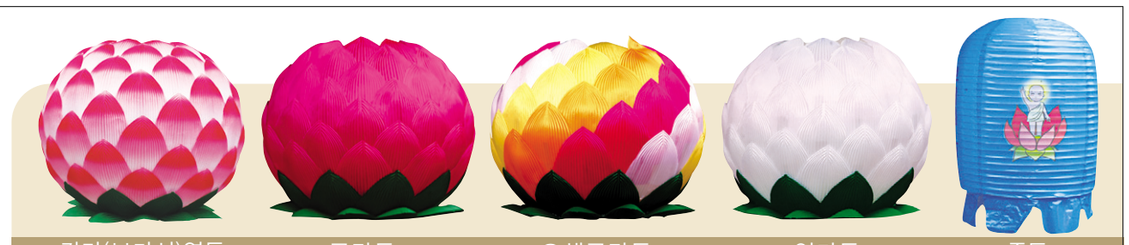

마산 금강정토사 LED인등


용학사 극락전 영구위패

찬덕연등 www.chanduk.com / 취급품목 :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수양2리 261-6 / 전화 : 031)792-6288, 794-4055 / 팩스 : 031)794-6288

공고 : 찬덕연등에 사용된 캐릭터는 상표특허등록된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도용시에는 법적제재조치가 있음을 공고 합니다.


칼라(보카시)연등 · 공단등 · 오색공단등 · 영가등 · 종등


육바라밀 만월등(육바라밀 주름등) · 팔각봉축접등 · 종등

※ 주름등 · 종등 주문 받습니다. (사찰명 인쇄)

신상품 찬덕 LED 전구


1년 365일 , 하루 6시간 사용 전기요금 : 98원/1kwh

1. 내열 ABS
내열특성 : 연화점온도가 100-120 ℃로 우수한 내열특성을 가지고 있다.
연화점이란 (물질이 가열하여 변행되는 온도)
충격특성 : 내열성과, 내충격성 등의 물성 발란스가 우수하다.

2. 경제성 비교

종류	일반전구	찬덕 LED 전구
소비전력	10W	2W
효율	10 lm/w	50 lm/w
연간전기료	2146원	429원
수명보장		30,000 시간

3. 기존 전구에 비해 잘 깨지지 않는 재질의 커버적용으로 파손의 위험이 적다.
4. 발열이 적어 기존 전구처럼 뜨겁거나 다칠 염려가 없습니다.
5. 전기요금이 절감 되고 교체하는 번거로움 없이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불경금책, 금병풍, 달마액자, 족자



실물크기 (소) 3.5 × 5cm
(중) 5 × 7cm

금강경 천수경 반야심경
지장보살본원경요품
관세음보살보문품
묘법연화경 요품

금강 불교예술원에서 세계최초로 99.9%의 금을 나노화 하여 조성된 초소형 경전인 불경금책을 제작보급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복장용으로 장엄하오며 단체 주문시 발원문, 가족명단을 인쇄하여 드립니다. 또한 영가천도, 불사, 소장 및 휴대용으로 가능하며 기타 용도로 사용합니다. 순금경전을 휴대하는 것만으로도 부처님의 공덕과 불심으로 가피를 입을 수 있으며 호신용으로도 최고입니다. 큰스님 법어, 법구경도 크기별로 주문제작 합니다.

복장의식 상량식 불사 소장용 영가천도

(불사인연 공덕을 맺으시며 세세생생 선근의 인연공덕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사용하시던 흑단목

氣가 발산되는 신비의 흑단목염주, 포대화상향로


흑단목108염주, 단주
흑단무늬목 / 흑단무늬목천주
크기 : 8mm×10mm×12mm 55,000원
10mm×10mm×12mm 65,000원
12mm×10mm×12mm 85,000원
흑단무늬목염주는 가격이 저렴하여 보시용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흑단무늬목 포대화상향로
(대) 26×16×16cm ~~155,000원~~ → 할인가 125,000원
예술조각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없는 사람과 나눌 수 있는 미덕과 복받을 마음을 이루어 주며 입에서 향이 뿜어져 나와 예불시에도 사용합니다.

부처님께서 즐겨 사용시던 흑단목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나무중 유일하게 氣가 발산되고 최고로 단단하며 자연 문향이 은은하여 아름다우며 동남아 국가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나무중 최고의 명품인 흑단목 입니다.

◈ 문의전화 02-722-1850 농협 053-12-125418 강환영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열침의 효능 금강약돌 온열복대

온열뜸기 의료기인증. 의료용전자기발생기 전기용품 안정인증. LIG 배상보험 가입 전자파 장애실험필. 전자파 환경인증 실용실안출원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 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원적외선 "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불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산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발이차신분 ◆오십견, 고관절, 당뇨, 전립선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쑥뜸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쑥뜸(최고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 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 됩니다. 차거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은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입금계좌 : 농협 053-12-125418 강환영 /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합니다.


현 대 칼 라 지 붕 공 사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슬라브, 창고, 공장, 가정집(전문시공)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서울 · 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1-327-7697
전라도 : 010-2311-0157

동일한의원
대구시 달서구 죽전동 250-14

코한방(韓方)

코막힘,비염,축농증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080125-중-2672호

코막힘 한방(韓方)으로 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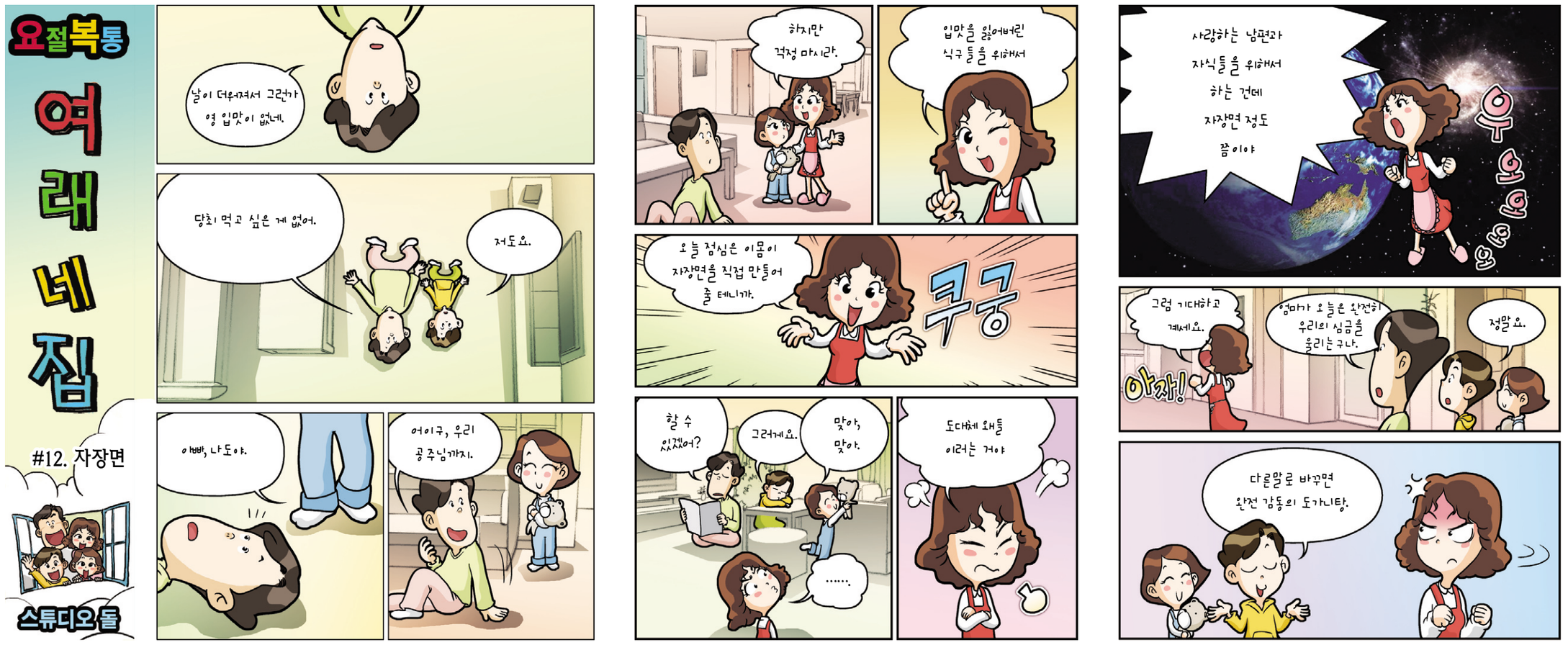
코막힘,비염,축농증 답답하시죠?
이제 다년간의 연구와 연구성과를 거둔 죽전네거리 동일한의원에서 한방(韓方)으로 치료해 보세요!!

코가 정말 시원합니다


한의학박사 보건학박사 원장 노 동 일
전)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외래교수
(매주 수요일 오후 휴진)



☎ 053)552-8800



이주일의 화두

한마음이 선하면 모든 선이 이에 따라 일어나고 한마음이 악하면 모든 악이 이에 따라 일어나는 것이므로 마음은 모든 선악의 근본이 되느니라.

법구경

귀사와 귀하의 홍보를 대행해 드립니다

"저비용 · 고효율" 홍보대행 서비스, 주요 온라인 매체에 빠르게 전송

DAUM NAVER NATE YAHOO! KOREA Paran

최소 비용으로 최고의 홍보 효과를 위한 취재 및 보도자료 서비스입니다.
대성사의 홍보대행 서비스는 10년 노하우의 전문기자가 작성한 기사로
최대의 네트워크를 보유한 언론사를 통해 귀하께 만족을 드릴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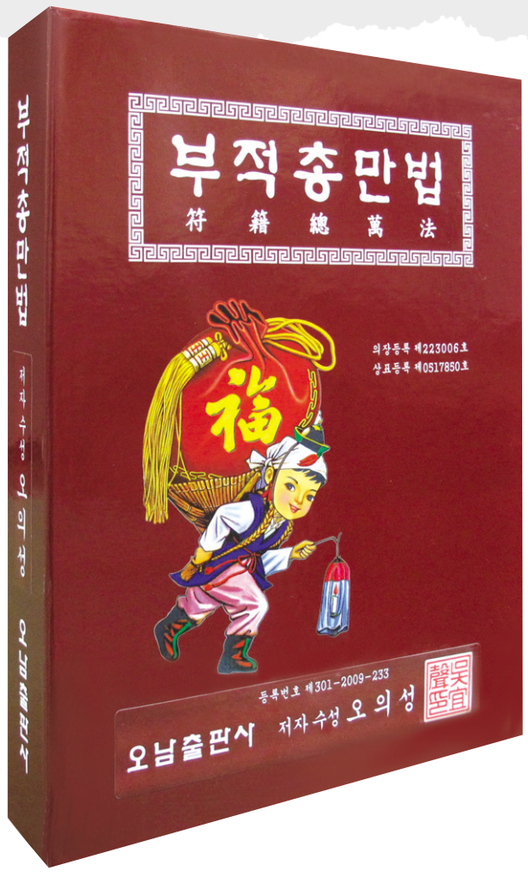
서비스내용

- 보도자료 원문서비스: 보도자료 원문이 국내 주요 포털에서 검색 가능
- 보도자료 작성서비스: 대성사 기자가 현장을 방문,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주요 포털에 제공하는 서비스
- 기사화 서비스: 대성사 기자가 현장을 방문, 기획 취재후 해당기사를 언론사와 포털에 제공하는 서비스

보도자료 및 취재기사는 국내 주요 포털 (다음·네이버·네이트·야후·파란)과
불교신문 오프라인에서 만나 보실수 있습니다.
신문은 현대불교신문, 불교신문, 청주불교방송, 대전일보, 충청투데이, 충북일보,
충청매일, 중부매일, 충청타임즈, 동양일보, 충청일보, 한국불교신문, 불교닷컴, 불교포커스,
HCN충북방송, 뉴스천지, 불교저널, 금강불교신문, 주간불교 등에 실시간으로 전달.

기사제보·구독·광고문의
E-mail : ksson108@hanmail.net

본사 대성사 ☎ 010-9522-8453 (혜철 스님)
☎ 010-5078-9748 (이한배 기자)
충북지사 ☎ 043-732-5560
대전지사 ☎ 042-223-8214



부적총만법

符籍總萬法

중국과 우리나라에서 처음 발간한 부적책으로 한 획도 빠짐없이 특수 제작한 코팅된 서적으로 한 장씩도 빼내어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원본 책입니다.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것을 직접 선택하여 훼손하지 않으면서 바탕에 대고 쉽게 그릴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더욱 빠른 성취를 이루도록 하였습니다.

등록번호 제301-2009-233
오남출판사 著者 수성 오의성

정 가 : 80,000원
입금계좌 : (예금주 : 오의성)
농 협 : 356-0203-2318-53
국민은행 : 347802-04-216456

오남출판사 서울 중구 장충동 1가 7-1 / 전화 02)2233-2050, 010-3094-7774

다구를 찾아서

15 자사호



한잔의 차에 동군을 맞이하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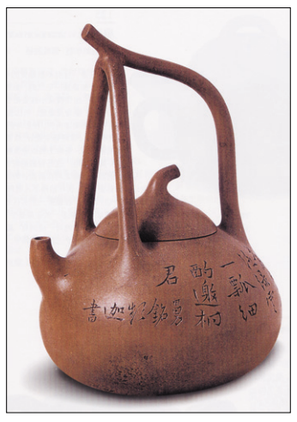
점다법(點茶法)이 성행하던 시절에는 차거품을 감상하기 좋은 찻잔에 대한 연구와 관심이 컸다. 한편 포다법(泡茶法)이 유행하자 이번에는 우려낸 차색을 감상하기에 좋은 찻잔과 더불어 찻잎을 우려내는 다관(茶罐)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명대(明代) 허차서(許次紓)가 쓴 <다소(茶疏)>에는 평지에서 난 차는 덖고 산골짜기에서 난 차는 쪄서 만든다는 것, 차를 덖을 때에는 나무 손가락을 손에 잡고 한다는 것, 차를 우릴 때 호흡의 횟수를 측정해 차 우려내는 시간을 가늠하는 방법, 다호(茶壺) 재질의 좋고 나쁨 등에 대해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허차서는 전당(錢塘, 지금의 저장성 항주시) 태생으로 자는 연명(然明)이다. 안타깝게도 그에 관해 알려진 바는 거의 없다. 다만 <다소>의 서문으로 미뤄 만력(萬曆, 1573~1619) 30년(1602) 쯤에 책이 완성됐다고 추측할 뿐이다. 다소(茶疏)란 '소통하는 차'라는 뜻이다.

<다소>에 "호(壺)는 다른 냄새가 배지 않는 것이 좋은 것이므로 은으로 만든 것이 제일 좋고 주석 재질이 그 다음으로 좋다. 그러나 주석이라도 흑연을 섞어서는 안 되는데 그 이유는 물을 맑게 할 수는 있을지라도 도리어 차 맛을 빼앗기 때문이다. 은과 주석 이외에는 자기(磁器)로 만든 것이 좋은데 그중 자요(柴窯), 여요(汝窯), 선덕요(宣德窯), 성화요(成化窯)에서 만든 호가 좋다. 예전 자사호(紫沙壺)는 공춘(供春)이 처음 만들었는데 요즘에는 시대빈(時大彬)이 만든 것을 사람들이 매우 소중히 여긴다. 자사호는 반드시 소성(燒成) 온도를 잘 맞춰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부서지는 일이 많다. 소성온도가 적합하지 않은 자사호는 생 모래에 물을 붓는 것과 같이 흙냄새가 진동해 다기(茶器)로는 적당하지 않다. 그래서 주석으로 만든 호와 비교하면 자사호는 삼 할쯤 등급이 낮다. 자사의 성미가 어렴풋이 스며나고 또 유약을 사용하지 않아서 향기는 숨어서 드러나지 않는다. (호가) 잘 식고 차 맛이 쉽게 변질된다"라며 허차서는 자사호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사실 허차서의 의견대로 자사니료(紫砂泥料)의 질이 좋지 않거나 소성 온도가 낮으면 자사호에서는 흙냄새뿐만 아니라 다른 잡내가 나서 차를 우리기에 적당하지 않다. 그래서 자사호를 선택할 때에는 자사에 대한 많은 지식과 경험이 요구된다. 또한 자사호는 열전도율이 높은 반면 보온력이 우수하다. 이는 자사호가 갖는 미세한 기공(氣孔) 때문이다. 기공 속에 숨어있는 공기 입자가 빠르게 열을 전달하면서도 스스로가 열을 함유해 외부 온도를 차단하기 때문에 찻물이 쉽게 식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허차서의 자사호에 대한 평가는 아마도 질 낮은 자사호의 사용 경험에서 나온 것이라 생각된다. 현재에도 자사호의 생산지인 의흥(義興)에서는 질 낮은 자사로는 항아리나 화분을 만들고 상등품의 자사니료로는 호를 만든다.

자사호의 제작 체계를 확립한 시대빈을 이어 청대에는 진홍수(陳鴻壽, 1768~1822)가 등장한다. 호는 만생(曼生)이며 전당 사람이다. 그는 가경(嘉慶, 1796~1820) 6년 과거에 급제했는데 고문체를 잘하고 문장에도 재능이 뛰어났다. 또한 그는 유명한 서화가(書畵家)이자 금석가(金石家)이면서 동시에 자사호 설계자였다. 가경 21년(1816) 의흥 바로 옆 율량현 지방관이 됐고 당시의 유명한 문인들과 교유했다. 자사호에 관심이 많았던 그는 의흥에서 호를 만드는 장인인 양팽년(楊彭年)과 사귀었다. 진만생은 자신의 심오한 문화예술 소양과 심미안을 바탕으로 자연현상, 생물의 형태, 오래된 기문(器文) 등을 응용해 새로운 자사호를 설계했다. 이를 흔히 '만생18식'이라 부른다. 그는 양팽년 형제와 소이천, 호월정, 장만천 등과 함께 작업했는데 진만생은 설계를 담당하고 자사호 장인은 호를 제작했다.





표제호(瓢提壺). 높이 18.3cm 구경 6.7cm. 청(淸) 양팽년제(楊彭年制) 진만생명(陳蔓生銘). 중국 상해박물관 소장.

표제호(瓢提壺)는 양팽년이 제작하고 진만생이 명(銘)을 짓고 곽린(郭麐)이 서각(書刻)했다. 표형과 동파제량형이 결합된 형태다. 양팽년과 진만생이 함께 호를 제작해 문인호(文人壺)의 풍조를 크게 일으켰고 자사호와 시서화인(詩書畵印)을 합해 하나가 되게 했다. 호의 몸통에 '煮白石泛綠雲一瓢細酌邀桐君曼銘頻迦書(백석을 끓여 녹운이 피니 한잔의 차에 동군을 맞이하네. 만생이 명을 짓고 빈가가 새기다)' 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다. 빈가는 곽린의 호(號)다.

백기란 · bdaol@hanmail.net · 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 연구원

박재완 기자의 **불교사진이야기** ····· 36 송광사 징검다리



송광사 징검다리. 징검다리 위를 스님 한 분이 건너가고 있다. 몇 해 전 이맘 때 찍은 사진이다. 올 봄에도 송광사에 갔었다. 그 때 송광사에서 돌아와 이 사진을 찾았다. 기억을 찾기 위해 사진을 찾았고, 사진은 기억을 찾아주었다.

올 봄에 갔을 때, 징검다리 위에는 다리가 놓여있었다. 더 이상 개울물을 밟으며 징검다리를 건널 수 없었다. 송광사에 갈 때면 꼭 한 번쯤은 건너게 되는 징검다리였다.

초록물이 든 개울은 숲이 되어 흘렀고, 숲 속 같은 개울을 건너오면 작은 폭포 밑으로는 푸른 숲이 쌓였다. 언젠가 푸른 계절에 송광사를 간다면 개울물을 밟으며 들어가고 싶다.

옛 판화의 세계

황제가 삼교에 대해 묻다 (上問三敎)

삽화는 송나라 효종황제가 명주 설두산의 보인 선사를 불러 유불선 삼교에 대해 질의응답을 나누는 장면을 판각하고 있다.

효종황제는 보인 선사에게 물었다. "삼교의 성인은 본래 동일한 이치인가?" "비유하면 허공과 같아서 처음부터 남북의 차별이 없습니다." "그런 까닭에 공자는 중용의 도로 교를 마련한 것인가?" "중용이 아니면 무엇으로 세간을 건립하겠습니까? <화엄경>에 이르기를 세상의 형상을 허물지 않으면서 세간을 벗어난 법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요즘 시대의 학자들은 오직 문자만을 보고 공자의 마음을 모르고 있다." "공자 역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내가 숨어 있다고 생각하는가?'라고 했습니다. 이것으로 비춰 보면 당시의 제자들조차도 공자의 마음을 몰랐었는데 하물며 지금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장상영(재상)이 한 말이 있습니다. '오직 나는 불교를 배운 다음에야 유교를 알 수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황제가 다시 물었다. "노자 장자의 교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불문 가운데 소승에 비교할 수 있을 따름입니다. 소승은 몸이 있음으로 해서 질고의 고통을 받는 것을 싫어하고 지혜가 잡독과 같다 하여 불로 화해 몸을 불살라 무위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이것은 바로 장자가 '형체란 원래 마른 나무와 같이 생각할 수 있고 마음은 불 꺼진 재와 같이 할 수 있다'고 한 말과 노자가 말한 '나에게는 큰 근심이 있으니 그것은 나에게 몸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한 말과 같습니다. 그러나 대승에 몸담은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중생제도를 다해야만 비로소 보리를 증득하게 됩니다."

이에 황제는 크게 기뻐하고 그 날로 조서를 내려 경산사에 주석하게 했다. 본문의 내용을 통해 우리는 동양사상의 핵심인 유불선 삼교의 사상을 두루 통섭할 때 유불선 삼교의 각각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현대 사회의 학문의 방법도 제 학문 간의 통섭에 의해 연구가 이루어짐을 볼 때 동양사회를 관통하고 있는 유불선의 긴장과 조화의 관계를 통해 통섭하는 전통을 오늘에 살릴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선학 스님(명주사 고판화박물관 관장)**



고판화박물관 소장 <석씨원류(釋氏源流)> 중 상문삼교(上問三敎). 불암사판 1673년 간행, 반곽(半郭) 27.2×1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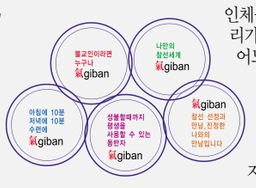
www.buddhashopping.com
NAVER 검색창에서 붓다쇼핑을 찾아보세요
백중 영가옷
B형-남자 구성 : 상하의(저고리,바지), 양말, 봉투
B형-여자 구성 : 상하의(저고리,치마), 버선, 봉투
할인가 1,000 (100벌 이상)
B형-남
종이영가옷Ⓐ형-남/여 할인가 각1,200원 정가 1,500원
종이영가옷Ⓑ형-남/여 할인가 각1,000원 정가 1,300원
종이영가옷Ⓒ형-남/여 할인가 각 950원 정가 1,200원
종이영가옷-동남/동녀 할인가 각 800원 정가 1,000원
종이영가옷-수자 할인가 각 600원 정가 800원
영가천도다라니 할인가 각 800원 정가 1,000원
※ 종이영가옷은 한벌씩 봉투포장되어 있습니다.
A형은 B형구성에 더하여 신묘장구범어, 진언부적, 백만관 3장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동진기획 · 붓다쇼핑 ☎(051)515-8888
용품카다록이 필요하신 분은 전화주셔서 주소를 알려주시면 보내드립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송정리 364-2
☎ 515-2988, 555-1087, 508-9377~8
휴대폰 : 011-554-2988, 011-879-0889
팩스 : 508-0101 인터넷 : 070-7425-0518
한지 108사경책

26호 신묘장구대다라니(한글)

27호 반야심경(한문)

28호 대불정능엄신주

29호 츰부다라니(한글)

30호 반야심경(한글)
한지백팔사경
할인가 14,000원(10권이상)
정 가 20,000원(1권)
5종
※ 26, 27, 29호, 30호는 사경책 1권을 사경하시면 108번 사경이 됩니다. 단, 내용이 많은 28호 능엄신주사경책은 4장 1조로 구성되어 책 1권에 27회 사경할 수 있으므로 총 4권을 사경하셔야 108번 사경이 됩니다.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기반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세로 32㎝×높이(뒷면) 8㎝]
■고급형 39,000원 → 35,000원 [가로 45㎝×세로 32㎝×높이(뒷면) 6㎝]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주문은 현불샵 /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 문의 : TEL 02)2004-8214, 732-1522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empal.com
▷ 가격 : 1Box (4.6×4.6) 4만원, 1Box (9.2×4.6) 8만원 ▷ 마감 : 매주 월~수요일 (입금이 되어야 광고 게재가 가능합니다)
▷ 계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주)현대불교신문사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금정사 대명 합장(부산 · 울산)

역학 개인지도(빙의, 퇴마)
한달만 물상으로 배우면 바로 상담할 수 있음.
영가 보는법과 실전위주로 개인지도함.
역학 : 물상으로 명리, 영가지도, 궁합, 택일, 구궁법, 작명
최면 : 전생요법, 퇴마, 빙의
(보경사 주지스님 직강)
051(부산)333-3258
011-591-5277

불교전통(범음,범패)
불공 해드립니다
49재(입제 · 회향), 천도재, 점안, 예수재, 수륙재, 각종불공(바라, 작법)
010-2200-8176

역학 · 빙의퇴마
개인지도,직접상담
1.역학 : 사주,궁합,택일,성명학
2.최면,전생요법,귀신들린병 퇴마
3.일반과정,속성과정(출장지도가)
4.빙의,전생,우울,공포증,상담
011-772-4606
031)842-8023
의정부 비룡정사 제행스님

저렴하게 불공해 드립니다
49재, 천도재, 점안식
바라무, 작법무,
살풀이, 범음범패
010-3590-7596
019-688-9885

대한불교도서관건립 불사
불법승 삼보님께 귀의하옵고, 불자님들의 가내에 부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기원하면서,佛書의 典當 대한불교도서관 건립에 뜻있는 불자님들의 선근인연을 기다립니다 현책도 대 환영합니다
대한불교도서관추진위원회
010-2002-6332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 점안식 · 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소서
011-850-0176

빙의 퇴마 전문치료
수시접수 中
병원에 가도 병명이 나오지 않는 분
악령에 시달려 머리가 자주 아픈 분
신병, 빙의로 신내림 받아야 할 분
지장사 주지 광덕 합장
032)261-8425
010-7335-8425
정성껏 상담해 드립니다

1. 기치료,초월감각과 영능력 상담 1회 1시간 : 10만원
2. 매주 금요일 무료기치료(선착순 3인)
3. 분원모집
4. 기 나오는 작품(화선지, 도자기) 대폭 할인(음력 7월 15일까지)
010-5790-2351
원정맥연구소

출가자(비구니, 행자)구함
본 도량은 육지장보살을 모신 바른 지장기도도량으로써 비구니 스님 및 행자를 구합니다
· 자 격 : 20~30대, 학력, 지역 관계 없음
· 수행 후 주지 임명 (수행중 승려증 발급, 독자운영)
· 출가 하실분만 전화바랍니다. (장난전화 절대사절)
010-2599-6020

꿈바위불교교육원
능엄신주. 경전독송 영가천도
전국 기도 회향 대법회
(6월 30일 .부산국제신문사 대강당)
참가신청바람
꿈바위 후원자를 모십니다
서울 부산 대구
010-6789-5008

부전스님을 모십니다
비구니 스님을 모십니다.
불사를 같이 하실 스님으로
회향을 하실 때까지 가족으로
지내실 비구니 스님을 모십니다
▷거제
010-7593-2355

불공해 드립니다
49재, 천도재,
점안식, 각종의식
범음범패, 바라작법
010-2290-9270

대한불교 대승선교 조계종
※위종단은 비구니(여승)종단 입니다
• 비구니 종단 등록
• 사찰 등록
• 비구니스님이 되고저 원하시는분
서울 총무원 02)579-3690
연락처 010-2606-5121

국제불교지도자 협회
종단기입 및 봉사단 회원 모집
일불 제자의 기치로 사찰 운영 및 모든 행사에 품앗이 정신으로 함께하고자 합니다
종단을 불문, 불교인이면 누구나 환영
전화 02)733-5665

부전스님 모십니다.
사무직원도 모십니다
▷대전
042)282-9270

비구 부전스님 구함
▷45세 미만, 마산
016-428-6665

비구니 스님 모십니다
행자님도 모십니다
▷부산
011-830-9540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기도 포천
010-4015-9494

공기좋고 고요한 암자에서 천일기도 입재하실 참신한 비구니 스님을 원합니다.
▷홍천
010-4735-8993

수행정진하실 비구니 행자 스님 모십니다
▷경기도 지역
010-9409-5001
011-9762-3672

기도 스님 모십니다
011-314-9848

부전스님 모십니다
▷시흥, 50세미만
011-314-9848

직원구함
(도서출판사)
만20세부터 45세까지의 여직원을 구합니다.
▷급여는 면담 후 결정
010-3094-7774

부전스님(비구, 비구니) 모십니다
공양주 보살 모십니다
▷강원도 대덕사
010-9219-7695

비구니 기도스님 모십니다
▷도심 포교당
02)338-2158

남여 행자 모집 합니다
▷50세 미만
달마선원 대현사
011-223-3334

비구스님 모십니다(부전스님)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기 여주
010-8819-8988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충남천안 / 작은암자
011-701-8248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50대 전후
서울 정릉 보덕선원
02)914-4235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강원도 속초
033)633-2920

대방등 대집경 대승기도
● 어떠한 소망도 이루어지는 기도법을 배우려는 스님
● 위치 : 백선사 절 (전철 1호선 부천역 소명사거리 3층)
☎ 032)664-0048 / 011-741-0867

침 술 秘 法 무 료 강 의
초종파! 본강의와 因緣되어 佛事에 도움 되소서!
제1강 : 빙의(최면), 신병, 용신의활용, 초간단명리(적중율90%)
제2강 : 오행과 침술, 따주기 비법, 내몸내가고친다.
제3강 : 정골요법, 일침요법, 각종처방(견비, 허리, 무릎, 중풍, 심장질환)
"침, 특수활용법 (한의학 박사 강의)
강 의 : 매주 화~수요일 10시~16시(1박2일) 장 소 : 경남 마산시 법향사 법당
연락처 : 야간 070)8861-3359 팩스 : 221-3358
핸드폰 : 스님 010-9027-3117
함께 나누는 세상을... - 좋은날 되소서 - 의암 합장

생활역학강의 : 전문교육처 (주간반) (야간반)
1)초급4개월 : 중급4개월 : 연구4개월 : 실증철학 고자강 이석영 고단원 이병렵 선생의 정통학문
2)정규야간반신설 월요일 오후7시~10시,수시접수
3)특강 사주통변실전반 : 수요일 오전9~12시 수시접수 역학은 배웠으나 통변이 어려우신 분들의 특강반 핵심적인 용신법을 바로 알아낼 수 있는 비법전수한 눈에 오행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전수
4)작명학 연구반 : 실증성명학전서 : 수시접수 본명사주의 격국법 조후법 통관법 병약법 억부법 오행균형법 부족된 원형이정의 수리법 자원보충법 음령법 호성법의 체계적인 이론과 사상체질법 등 정통작명 비법을 전수 합니다
5) 종합 개인지도 : 수시모집 명리정통 정규반 + 작명 + 관상 + 수상 + 타로
단원역리학회 동대문구 T : 2243-9598. H.P : 018-470-6314
지현역리학연구원 http://kr.blog.yahoo.com/han10305

사무장 보살님 모십니다
▷김해소재, 조계종 사찰
010-4615-1951

구직
50대
1종 대형면허
011-262-6861

유 명 표 구 사
불자가 운영하는 유명표구사에서는 불자님은 물론 스님의 작품을 삼보전에 공양 올리듯 정성껏 표구해 드립니다.
대표장인 이 종 부 합장
문의 ☎ 02)374-9886
▷전국 택배가능◁
서울 은평구 응암3동 응암5거리 (지하철 6호선 새절역 1번출구)
BBS 퀴즈대장경 신행상담 코너 - 달마도 표구 협찬(8년)

사주운세 10초 내 맞추면 수강(여자)신청하세요
통장입금하시고 상담하세요
이름 · 상호 팔자에 맞게끔 찾아드립니다. (사주첩경) 이석영 통달, 수월정사
011-498-5067 / 02)826-5067
031)774-5067 (주말)
〔통화관계로 방문 사절〕 농협 064-02-379867 김진동

한국불교대학 신입생모집
대구큰절,경산,칠곡,구미,포항,서울,뉴욕,감포 동시모집
▶ '저거는 맨날 고기묵고' 저자 우학스님 직강!
• 목 · 금요일 오전반, 화요일 저녁반 / 주1회 공부
• 실참(기도,참선)하는 불교대학 - 누구든 입학가능!
• "기도의힘"책과 가방을 선물로 드립니다.
• 입학문의: ☎ 053)474-8228
• 다음카페 :불교인드라망 - 홈페이지 : 한국불교대학
행자(예비스님)모집: ☎ 010-2488-8228
<대구도심사찰 최초! 납골당 운영>

종무소에서 일하실 분(50~60세) 모십니다.
공양주 보살(50~60세) 모십니다.
010-3738-0338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기도 성남
011-212-9810

불자정보
786호 |
TEL 02) 2004-8215(直) 732-1522
FAX 02) 737-0696

포교원안내
• 위치: 경남 창원시 서산동 453번지,서답시장 내
• 창원불교사 2층 44평
• 내부 목재, 기와로 꾸며짐
• 시설 최고 A급
• 보증금 1천만원 시설비 500만원
055)256-6488
010-5384-6797
010-4576-0476

사찰안내
• 위치 : 부산 동구 좌천동
• 대지: 300평
• 건평: 법당 (60평), 요사채(20평),(15평)
• 가액: 7억 8천만원 (가격절충가능)
010-3118-4901
010-4506-8742

포교원안내
• 위치: 부산시 기장읍 아파트 빌라주택밀집지역
• 4층건물 중 2층
• 법당30평, 삼존불 외 소불500불
• 방2칸, 주방1, 화장실 주차장완비
• 보증금 500만원, 월 35만원 시설비 1800만원(절충가능)
010-5427-6443

포교원안내
• 위치: 고양시에서 10분거리 서울, 일산, 의정부 구파발 30분거리
• 3층건물에 2층,3층 (3층은 요사로 사용 큰방1, 다용도로 활용가능 옥상)
• 실내 70평, 베란다 30평, 주차시설 50여대 가능
• 상시 입주 가능
• 포교원으로 최적지임(오후에만 통화가능)
• 가액: 전세 6000 및 월세가능
010-8330-2251

사찰부지안내
• 위치: 포천시 화현리 운악산 (휴양림 인천 특 A급)
• 서울 - 1시간 경관수려함
• 부지 1만 6천평
• 가액: 25억 <상담환영>
010-9281-7255

사찰안내
• 위치 : 경북 영천
• 영천터미널에서 10분거리
• 대지 196평(종교용지)
• 주차장, 텃밭 175평
• 방 5개, 법당 15평(목조)
• 심야전기보일러
• 가액: 2억 1천만원
054)338-0048
011-769-7029

암자터안내
• 위치 : 강릉시 주문진읍 792번지
• 평수 80평
• 가액: 7천 5백만원
010-5201-8338

사찰안내
• 위치 : 부산시 사하구 감천1동 감천사거리 재래시장 정면 앞 2층 법당
• 100㎡ 방2칸, 공양간 1칸, 화장실 2칸, 샤워장 1칸
• 스님 건강상
• 가액: 전세 1500만원 월 20만원 (시설비 3500만원)
010-2660-4090

포교원안내
• 위치 : 경남 양산 재래시장 부근
• 평수: 54평, 4층건물 중 3층
• 법당 약 25평, 방 4칸 (불교대운영장소)
• 아미타, 관음, 약사, 지장 부처님, 소불 100불
• 보증금 3천만원, 월 30만원(관리비 無)
• 시설 및 집기일체 2천5백만원
• 장소 시설 A급. 몸만 오시면 바로 법회
055)372-3563
010-2553-8827

사찰터안내
• 위치: 울산 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두산리,
• 대지: 526평 , 바로 뒤 산
• 1급 주거지역
• 가액: 평당 90만원 (절충가능)
사찰터, 전원주택지도 좋음
017-855-6717
017-856-2344
052)247-7344

사찰안내
• 위치: 부산시 남구 황령산 자락
• 대지 130평, 법당, 주지실, 대중방
• 공양간, 산신각, 기타 시설 일체
• 전세 5000만원(시설비 포함)
• 인연있는 스님 기다립니다.
011-871-1547

포교원안내
• 위치 : 대구시 중구 시내 중심지
• 4층건물 중 4층
• 평수 70평, 옥상 넓게 쓰고 있음
• 보증금 500만원, 월 30만원
• 시설비 3,000만원
010-3131-1094
053)427-5477

도심속의 사찰 포교원 안내
• 위치: 부산 해운대구 달맞이 부근
• 평수 140평, 법당 60평, 모든시설완벽
• 방사두칸, 공양간, 종무소, 기타등등 부산시내에서 최고의 위치와 시설을 갖춘 법당으로 불교학교 개설되어 있음
• 현재 법회진행중, 몸만 오시면 됨
• 시설비 직접 보시고 상담 후 결정 보증금 2억 (최소한 5천~7천의 보증금으로 월세가능
010-3868-7435

토 굴 안 내
• 위치: 충북 단양군 영춘면 만종리(삼태안)
• 대지 200평, 전 포함 755평 기역자형태의
• 방2개 아궁이방포함 18평형의 미완성 상태 건축비 부담으로 급 안내, 허가 정상
• 이전가능 공정율 약 80% 상태, 자연동굴에서 흐르는 물 단독사용, 2차선 도로에서 약 1,000미터 끝지점, 건축비 부담으로 급 처분
• 급 안내가 7,500만원
010-6460-1316

국내 승려트롯트가수 제1호
(나훈아 노래 등)
서울 및 인근의 절이나 포교당을 맡겨 주시면 책임지고 큰 불사를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소납은 아래와 같은 수행력을 가진 승려입니다
• 59년생 신체 건강하고 신원 확실한 비구입니다.
• 대학원 졸업 등 수행
• 사단법인 가수 및 영화배우
• 트롯트 및 염불독경 3집 출시
• 나훈아씨 노래 등 음반취입 준비 중
• 사찰음악회 등 재미있는 신포교 활성화
• 노무현 대통령 서거한 날부터 국내 단독스님으로 봉하 마을과 정토원(사)에서 천도재 봉행함 (SBS 생방송)
◆ 현재 서울시 종로구 무악동 산2-13 인왕산 인왕사에서 기도중으로 절이나 포교당을 맡겨 주실 스님이나 불자님은 연락 주세요.
◆ 종단과 관계없이 대학졸업과 상당한 불교지식 및 설법, 염불 잘하시는 비구스님 연락주세요.
인왕산 인왕사(본원정사)
02)3436-0797. 010-8008-9937
노래하는 청산 스님 합장하고 아룀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기본 규격 – 50.000원
  규격 가로 7cm – 70.000원
  규격 가로 10cm – 100.000원
- 계좌번호 : (주)현대불교신문사
  국민은행 222-25-0005-381
  농 협 053-01-269088
- 문의전화 : 02)732-1522 / 02)2004-8215
- 원고접수 : jabi82@naver.com
  FAX 02)737-0696

※ 매주 수요일 마감. 다음주 수요일 게재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
- 법당 : 27평
- 요사 : 30평외 1동
- 부지 : 260평
- 가액 : 7억

- 위치 : 경남
- 법당 : 20평
- 요사 : 20평
- 부지 : 280평
- 가액 : 2억 8천

토 굴

- 위치 : 강원 강선 건물 1동(2층)
- 부지 : 300평
- 가액 : 2억 8천

- 위치 : 강원 주문 건물 3동
- 부지 1300평
- 가액 :5억 5천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청 송 기 획 02)998-1994 011)713-5634

사찰 토굴 도량터

- 저희 대력불사는 스님 및 수행자를 위하여 전국의 좋은 수행처를 시세의 절반가격으로 불사 해드리고 있습니다
- 원하시는 지역 · 원하시는 사찰 · 원하시는 토굴 · 원하시는 도량터 이 모든 것을 맞춤형으로 수행의 길을 열어 드리겠습니다.

수행자를 위한 대력불사

031)775-8110. 011-531-5562
팩스 031-775-8910

사찰 및 토굴안내

부산 금정산 자락 사찰

- 총 대지 : 약 230평
- 법당 30평, 주지실 15평(1동)
- 요사채 50평(2층 건물)
- 부산 온천장(금정산) 부근
- 남향, 텃밭 50평, 주차장 확보
- 총금액 : 5억 8천

대 가람터

- 총 평수 : 8만 6천평
- 4만여평 평지, 1만평 (약초재배)
- 위치: 진주, 단성 근처
- 산세 및 주변풍광 최고, 계곡물 철철
- 평당 1만원

사찰전문 부산연산공인중개소 직011)560-8522,051)863-6622
※부산 시내 암자, 토굴, 사찰부지 소액 및 고액 다량확보

광진 사찰 안내

- 위치 : 서울
- 부지 : 100평
- 법당 : 20평
- 요사 : 30평
- 가액 : 6억

- 위치 : 서울산사
- 부지 : 280평
- 법당 : 20평
- 요사 : 25평
- 가액 : 5억 5천

- 위치 : 서울시내
- 부지 : 150평
- 법당 : 30평
- 요사 : 60평
- 가액 : 18억

※ 30년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전국 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운영, 구하는 사찰 있습니다.
※전국사찰 암자 포교당 부전스님 공양주 처사 소개합니다.
고불, 석불, 골동품 위탁알선판매 합니다.

광진불사 02)723-4082

사 찰 안 내

- 사찰,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 은행 · 일반융자 좋은 조건으로 알선해 드립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사찰, 암자, 기도원, 연수원, 명당터 확보함

명상기도원절터 (급) 안내

- 소백산 전체 산하가 펼쳐보이는 곳입니다.
- 위치: 충북 단양군 적성면
- 자연식수가 풍부함,
- 토지 1600평, 이용토지 2400평
- 조경, 토목공사, 전기완료
- 시설하우스 110평, 장뇌산삼 30만뿌리 식재
- 된장, 간장 공장으로도 적합 ,사업 자금이 필요해서요

010-3173-0045 / 043)421-3325

최고의 명승 사찰터

- 위치 : 경북 영주시 봉현면 한천리 (서울에서 2시간 거리)
- 평수 :31,500평(임야20,600평, 전10,900평)/ 3억2천만원(평당10,000원)
- 풍기 IC에서 7분거리로 조망권이 우수하고 계곡이 본 부지앞으로 흐르고 있음
- 토종 산림이 울창하며 임야 곳곳에 샘이 있고, 수자원이 풍부하며 약수가 솟아남
- 테라피한방공원조성지 주변에 위치하며, 경치가 우수하며 최적의 등산로 코스
- 봉현 한천은 예로부터 물이 차고 깨끗하며 명명되어 온 지역이며, 본 부지 터는 예로부터 명승 사찰로부지로 전래되어 내려오는 토지임.
- 소백산 비로봉, 옥녀봉 등 등산로 입구까지 10~ 20분 소요
- 풍기온천까지 10분 소요
- 용도 : 사찰부지, 휴양지, 펜션, 수련원, 요양원, 사회복지시설

010-2037-7288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북 영동 시내
- 대지 약 54평, 건평 약 28평
- 법당, 요사(방 2)
- 주방, 욕실, 심야보일러
- 가액: 8천 2백만원 (시설비포함)

010-7325-1259

포교원안내

- 위치: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 평수 70평(4층 건물중 3층)
- 법당: 20평, 방4개, 창고1개, 공양간 및 화장실 2개(남,여) 아미타불, 관음, 대세지, 지장보살, 신중단, 산신
- 보증금 1,000만원, 월 55만원 시설비 1,300만원

010-5800-3210

포교원안내

- 위치 :부산시 동래구 안락2동
- 2층 30평 ●소불 100분, 인등 270등, 각단탱화
- 보증금 500만원, 월 35만원 시설비 1,800만원
- 주택가 횡단보도 신호등사거리 1층은 불교용품점 온천천 공원이 근거리에 있습니다.

010-2446-2626

포교원안내

- 위치 : 시흥시 정왕동
- 상가건물 1층, 전체 20평
- 삼존불, 신중, 산신, 영단
- 가액: 보증금 시설비 포함 1,700만원 ,월세 37만원

010-3107-1244

사 찰 안 내

- 위치: 경북 영천시 청통면
- 대지 210평, 전 220평 (실평수 600평)
- 법당20평,요사채A 30평,요사채B 15평
- 석불법당 15평, 각방 화장실 (총6개)
- 청통 IC에서 5분거리, 관광특구 지정지역
- 절벽, 연못, 잔디정원
- 예쁘고 아담한 사찰
- 가액: 3억 2천만원

010-2537-0541

포교원안내

- 위치 : 울산시 남구 신정 3동 487-36번지
- 평수 : 50평. 반지하
- 위치 아주 좋음. 시장 인접
- 삼존불, 산신님, 독송님 원만히 다 갖춰져 있음
- 포교하기 적합
- 보증금 500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1000만원

010-4040-3588

포교원안내

- 위치: 부산 구포시장 내
- 평수: 54평. 2층건물 중 2층
- 1층 허가된 주차장
- 보증금 3천만원 월 60만원 (주차장 사용비 35만 포함)
- 주차장 완비
- 시설비 답사 후 결정

051)364-4889

사 찰 안 내

- 위치 : 경주시 안강읍
- 대지 87평, 2층건물
- 1층 요사채 34평
- 2층 법당 24평
- 특징: 안강읍 시장, 대형마트 각각 5분거리
- 1,2층 모두 도시가스 설치
- 가액 : 2억 3천만원 은행융자 6천가능

054)763-6655

암자 · 토굴 안내

- 위치 : 경남 거제시
- 대지 344㎡, 104평
- 아궁이, 황토방, ●단독주택 2채
- 방3, 공양간 1, 인법당
- 가액: 1억 5천 5백만원

055)632-3840

농가주택(급)안내

- 사찰암자적지
- 전북 장수군 장수읍 덕산리 23번지
- 장안산 덕산 계곡 상류
- 면적 1792㎡, 목조 79㎡×목조66㎡ = 2동
- 상담후 가격절충가능

011-644-2563

사 찰 안 내

- 위치 : 양천구 신정 4동
- 지하철역에서 도보 3분거리
- 대지: 80평
-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 시멘트 2층 사찰
- 법당 30평, 2층 요사 40평 1층 지하 15평
- 주차장 완비, 실외화장실 2
- 시가 평당 1700만원
- 가액 : 13억

011-236-6273

사 찰 안 내

- 위치 : 밀양시 국도변
- 대지 약 200평
- 요사채 65평 1동 (단층양옥)
- 법당 20평(아미타 삼존불)
- 스님, 법사님 적격
- 가액: 2억 3천만원
- (은행융자 7000포함)
- 전세 가능(1억 1천만원)

010-8675-8011
055)328-4886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경주시 조양동
- 법당 목조 18평
- 요사채 콘크리트 40평
- 종각 약 1평
- 대지 380평(기타부지 500평)
- 가액: 4억 5천만원(조정가능)

010-3112-3513

포교원안내

- 위치: 성남 모란시장 뒤
- (공설운동장 후문)
- 전철 8호선
- 법당 40평, 방2
- 주차 다량 가능
- 가액: 보증금 1천만원, 월65만원

070-7717-9303
011-857-3775

포교원안내

- 위치 : 천안전철역에서 도보 5분, 천고사거리 위치
- 3층건물 중 2층
- 약 40평
- 법당, 방2, 주방, 화장실(욕실)
- 980만원(보증금+시설비) 월 40만원

010-5154-7019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충북 제천 시내
- 평수 25평, 법당 10평, 큰방 1, 주방 거실 大
- 보증금 500만원, 월 25만원 시설비 상담 후 결정

010-8840-6887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남 장흥
- 법당 20평, 요사채 25평, 부지 350평
- 공양실, 삼성각, 선방 총 5동, 전체 동 기와단청
- 건물 뒤 거대 바위산 있음, 바위 모양이 달마 형상
- 가액: 1억 5천만원 (웅자 3천 포함)

018-603-1456

사찰(급)안내

- 위치: 경북 봉화군 상운면
- 대지 200평(전 3천평)
- 법당 30평(삼존불)
- 좋은 약수샘 있음
- 가액: 1억

054)672-8231
010-9004-7212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김해시 어방동 531-5
- 태양빌딩 5층 중 4층
- 평수 45평 육합
- 삼존불, 탱화, 후불, 신중, 지장, 칠성
- 가전제품 등 일체 완비
- 인등 100등, 연등 165등
- 몸만 오시면 됩니다
- 보증금 2000만원, 월 40만원 시설비 1200만원

011-742-8458

암 자 안 내

- 위치 : 밀양 얼음골
- 자연관광지
- 계곡물 철철,경관수려함
- 법당, 요사채 산신각,
- 각 1동
- 부지 임야 10,000평

011-877-7677
010-4876-5535

사찰터 및 공장안내

- 된장공장 인수하실 분
- 위치: 강원도 영월 근교 동강 앞
- 산좋고 물좋고, 경치 좋은곳
- 땅 2,200평, 고급주택 1동
- 공장 1동, 시설완벽함
- 가액 : 5억 5천만원 (절충 가능함 _주인직접)

011-792-8969

포교원안내

- 위치: 부산 감만동
- 4층 상가건물● 동불 삼불
- 4층 요사, 3층 법당
- 보증금 1천만원, 월 40만원
- 시설비 1천2백만원(주인인정)

051)638-1134

포교원안내

- 위치 :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 계산시장입구
- 4층건물 중 3층, 65평
- 보증금 2천만원, 월 60만원
- 시설비 1,800만원

010-9773-9980

암 자 안 내

- 위치 : 부산시내 대지 66평
- 사용평수 100평 이상
- 건물 1층 36평, 2층 법당 20평
- 법당 뒤 대나무밭 채소밭
- 주차가능
- 가액: 3억 2천만원

주인직 010-3133-0018

포교원안내

- 위치 : 울산시 북구 정자동
- 바다가 보이는 전망좋은 아름다운 절
- 4층 65평, 법당 30평, 방3개, 주방, 삼성각
- 보증금 1천만원, 월 60만원
- 시설비 절충가능
- 몸만 오시면 즉시 가능합니다

011-832-7322
052)293-7328

포교원안내

- 위치 : 부산시 남구 문현동
- 대지 약 160평
- 건평 80평(1,2층)
- 방 6개, 목욕탕 2개, 주가능
- 보증금 1천만원, 월 70만원
- 시설비 내방 절충

010-3302-1821
051)632-1821

포교원안내

- 위치 : 대구시 서구 비산동
- 평수: 약 30평
- 보증금 2백만원, 월 20만원
- 시설비 3백만원

010-7131-5528

임야 사찰터

- 위치 : 창녕군 창녕읍 여초리
- 44,120평
- 화왕산 주령 사찰터
- 가액: 3억 8천만원
- 관리지역, 농림지역

017-570-1600

포교원안내

- 위치 : 서울 강동구 길동(역세권) 3층건물중 3층 45평
- 방2, 상담실1, 주방, 화장실 옥상전체사용, 음향시설완비
- 삼존불, 후불탱화, 신중탱화 시설A급
- 보증금 2,000만원, 월 60만원 시설비 답사 후 절충

010-5607-0108

사 찰 안 내

- 위치 : 여수 돌산 분전리
- 여수에서 돌산까지 20분거리
- 대지 총 250평, 대웅전 1, 2층건물 1
- 요사채 1동
- 가액: 2억 3천만원(절충가능)

011-9765-5302

전망좋은 전원주택

- 위치: 양평 청운면
- 아름다운 산속, 사계절 물이 흐르는 곳
- 대지 198평 건물(조립식) , 29.8평 외 1필지 38평 (무료증정)
- 가액: 3억 7천만원(가격절충)

010-3088-3133

포교원(급)안내

- 서울 화곡역1분거리 번화가
- 버스정류장앞 시장입구
- 3층건물 중 3층 옥상사용 ●법당 20평
- 후불탱화, 백의관음불, 후불,산신탱화
- 현 성업중, 시설완비, 즉시 법회가능
- 보증금 1000만원, 월 70만원 / 시설비 1500만원 . 확장불사관계로 급 임대함

010-3552-3351

깔끔하고 아담한 주택 사찰안내

- 비구니 스님, 보살님, 불자님께
- 전주 중심, 대지 67평
- 건평 35평, 큰방 2개, 작은방 2, 화장실 2
- 집안조경 잘 되어 있음
- 가액: 1억 4천 3백만원
- 저금리 대출 가능

011-650-8481

사 찰 안 내

- 위치 : 인천 주안
- 대지 50평, 2층건물
- 1층 요사채 25평, 2층 법당 25평
- 3층 옥상 삼성각
- 아파트, 재래시장, 여성복지관 인접
- 교통편리. 법단 원목시설
- 가액 : 4억 1천만원

010-8941-1484

사 찰 안 내

- 위치: 부산 남구 대연동 (최요지) 전철 3분거리, 시장 2분거리
- 부지 130평, 건평 150평
- 1,2,3층 ●주차 6~7대 가능
- 1층 50평, 大방1, 큰거실1, 2층 대웅전, 방1
- 3층 천불전, 주지실, 방2, 다실별도1
- 2, 3층 베란다 사용가능 ●가액: 11억

017-572-3714/011-419-3714
051)556-9530 (야간)

포교원하실분

- 현포교원(60평)인수하실분
- 가액: 전세 5천만원 (월세가능)
- 위치: 시장입구 전망최고
- 부산시 북구 구포2동. 시장통입구
- 지하철 2호선, 구명.구남역에서 3분거리

주간: 051)338-8607 /야간: 051)338-8606
폰 011-9515-8606

포교원안내

- 위치 : 부산 수영구 망미동
- 평수 31평, 4층건물 중 3층
- 시설: 원목단, 동불 삼존불, 방 2 . 공양간 1, 시설완벽, 에어컨 2
- 위치: 최고 요지, 몸만 오시면 됩니다
- 보증금 2천만원, 월 35만원 시설비 6백만원

010-8268-9880
010-5361-5294

의령 자굴산 토종오가피 및 사찰터 안내

- 위치 : 경남 의령군 부림면 막곡리 181-3
- 농장 인수 하실분, 건물 100평
- 공장 특허, 늘푸른 식품
- 산 좋고 경치 좋은 곳, 공장 1동 집포함
- 시설완벽, 교환가능
- 대지 1만 1천평
- 가액: 11억 7천만원

010-8791-5655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 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40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 FAX: (031)470-3116



대행 스님

제 786호 현대불교
2010년 6월 2일(음 4월 20일) 수요일 / 불기 2554년

행주좌와 일거수일투족을 관하면서 일생을 살아라

오늘 울산의 여러분과 같이 한자리 하게 된 것을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겪어 보지 않으신 분들은 이해가 안될 겁니다. 임진왜란 때의 일들을 얘기로만 듣고 책으로만 봐 가지고는 그렇게 실감이 나지 않듯이 말입니다. 그러나 일제 치하의 역사를 낱낱이 봐 왔고 6 · 25의 참변을 낱낱이 봐 왔습니다. 직접 당하고 너무나 생생하게 봤기에 저 국기만 보면…, 국기라는 이름을 떠나서 나라에 대한 우리들 전체의 진실한 마음들이 국기 하나에 응집돼서 모두 걸음들을 걷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임진왜란 때는 평민으로서 의병을 조직해서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 순국했던 호국 영령들이 많았고, 당시 평민이 수없이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또 일제 치하에서는 총알받이로 끌려간 군인들도 많았고, 징용당해서 탄광으로 끌려가거나 또 그것도 모자라서 힘이 약하고 먹지 못해서 지치면 실험대로 끌려가고, 또는 정신대로 끌려가서 말로 다 할 수 없으리만큼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총으로 그냥 팍 쏴서 죽이는 것 같으면 얼마나 다행이겠습니까마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역사라고 이름을 해서 그렇지 어제 오늘 내일도 없는 오늘의 그 아픔을 어찌 말로 다 하리까.

그리고 6 · 25가 났을 당시에는 한강 다리가 끊어지면서 수없는 사람들이 차와 함께 그대로 그냥 물로 들어갔습니다. 모래톱에서 총을 맞아서 다리가 떨어져 나가고 이래도 그냥 뜁디다. 아무 정신 없이, 살아 있기만 하면 팔이 떨어져도 그냥 뜁디다. 군인들도 평민들도,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 갔습니다. 한강 저쪽과 한강 이쪽에 장작개비 던져 놓듯 쌓아 놓아서 둑이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난 생생하게 봤습니다.

그랬을 때 그 어머니 아버지 형제들 모두가 얼마나 아팠을 것이며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그러나 그뿐입니까? 손바닥만한 나라에 전세를 겨우 모면해서 인제 내 집인가 했더니 그것도 반쪽으로 갈려서 나눠졌습니다. 이런 통탄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영령들을 위해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겁니다. 여러분이 보기에는 그저 염불 몇 번 하고 만 것 같지만, 10년 전이니 20년 전이니 30년 전이니 40년 전이니 몇천 년 전이니 이걸 떠나서 오늘 우리 마음속에 생생히 살아 있는 사실을 아마도 부정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진짜로, 진짜로 정말 오늘 이 자리에서 그분들을 위해서 모두 공한 속에, 모두 한마음으로 생산처에다가 연결시켰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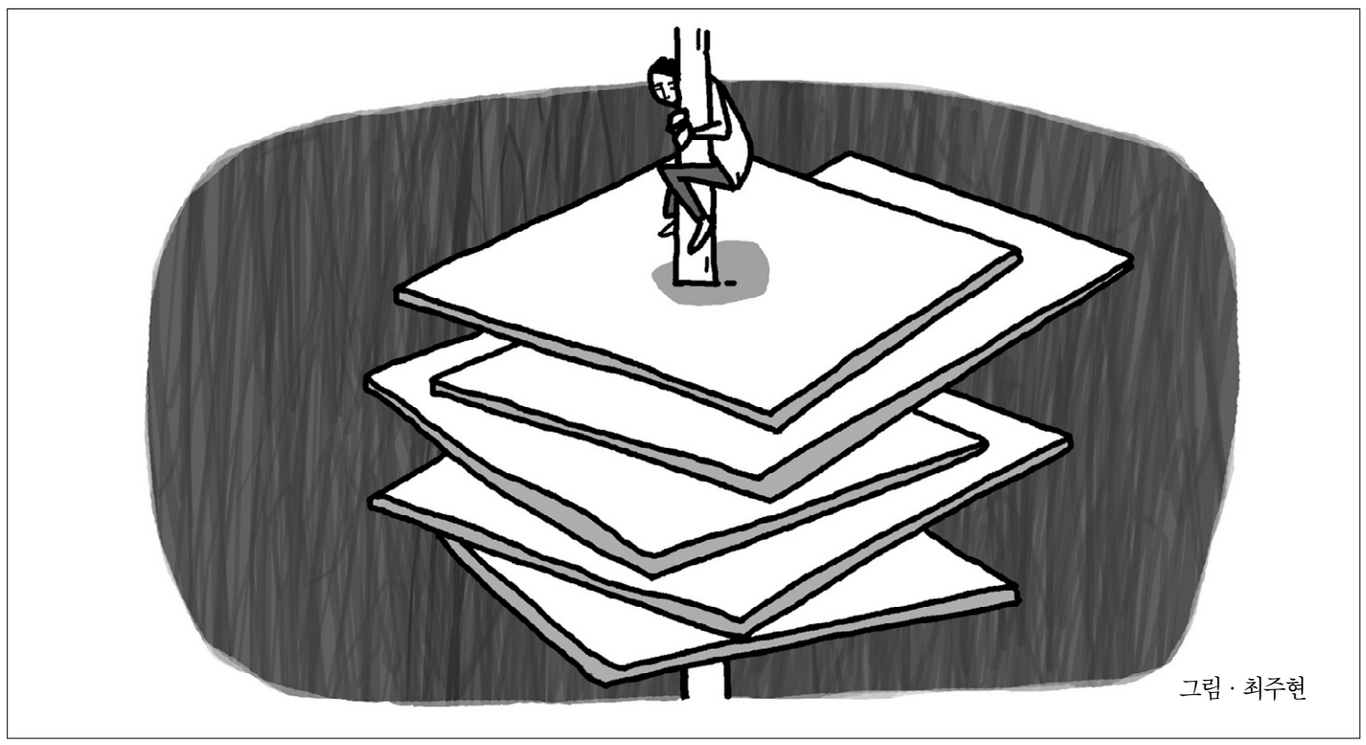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제주도에 법회가 있어서 엊그저께 갔었습니다. 거기도 자리를 꽉 채웠습니다. 제가 거기에 처음 들어섰을 때에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4 · 3 변고가 생겼을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골골마다 숨어서 살려고 애를 쓰고, 어떤 바윗굴이든지 흙굴이든지 들어가서 살 양으로 애를 쓰다 죽은 영령들이, 보니까 전부 뱀으로 화했어요. 이거 거짓말 아닙니다. 이 마음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마음을 그냥 함부로 해도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게 아닙니다. 한생각을 잘해서 말을 잘하고, 한생각을 잘해서 이끌어 가는, 바로 다스리는 마음의 선장이 얼마만큼 중요한지 모릅니다. 머리에는 오직 '숨어야 산다' 하는 생각으로 꽉 차서 다른 거는 보이지 않고 그런 것만 보였던 것은 저쪽으로 인해서 죽고 이쪽으로 인해서 죽고 그랬기 때문입니다. 그때 제주도에서는 수효를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이 참변을 당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가 "천도재 세 번을 했는데, 오늘 마지막으로 지냈는데 뱀이 이젠 나오지 않더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장속에 들어가 있고 방 아랫목에 와서 앉아 있고 지붕 꼭대기에 와 앉아 있고, 다섯 마리 여섯 마리 열 마리씩 뭉쳐서 그냥 부엌에도 있고 뭐, 말도 못했는데 이제는 그런 게 다 없어졌다고 하더군요.

오늘 내가 눈물을 금치 못하는 것은, 여러분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무시하고 눈에 보이는 물질세계만이 다인 줄 알고 살고 있습니다. 지금 발전이 됐다 하더라도 물질계의 발전이지 정신계의 발전은 아닙니다. 알고 보면 본래 정신과 물질이 같이 돌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자기 정신계를 무시하고 가기 때문에 천체물리학을 연구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심성천체물리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정신계와 물질계가 같이 돌아가야만이 자유인으로서 자유스럽게 진행할 수 있을 겁니다.

내가 더더욱 아픈 것은 '사람이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하고 나쁜 짓, 사기, 도둑질, 그거 뭐 말로 어떻게 다 하리까마는 그렇게 마구 사는 분들이 있지요. 요즘 젊은이들이 더욱 더 그렇고요. 그러나 그런 사람이 그래도 많지는 않겠지요. 하지만 우리가 정신계 50%를 모르고 산다면 바로 반쪽만 사는 격이 됩니다. 반쪽만 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걸리고 걸려서 자기 마음들을 가지고도 자기 마음대로 살지 못하고 항상 자유스럽지 못하게 삽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살다가 눈 깜짝할 사이에 모습을 바꿉니다, 또.

걸망 하나 짊어지고 캠핑 갔다가 거기서 서로 만나서 인연이 돼 가지고 같이 놀다가 저녁이 되면 집으로 돌아오는 것과 같이 우리는 지금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여러분이 지금 마음의 선장으로서 자기를 다스린다, 다스려서 놓는다, 일임한다, 맡긴다고 하는데 이것이 관하는 것입니다. 행주좌와 일거수일투족 관하면서 일생을 살아라. 그러면 생활이 즉 부처님 법이요 우리들의 법이다. 생활이 도고 생활이 참선이지 딴데 가서 도를 찾는 것은 아닙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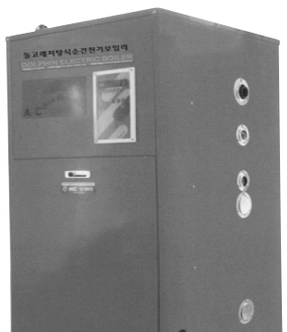
여러분은 과거를 찾고 미래를 찾고 그러는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악업 선업의 인연이 주어지고 영계성 유전성 세균성 업보성 윤회성, 이 다섯 가지가 다 내 몸뚱이 속에 헤아릴 수 없는 모습과 생명으로 들어 있습니다. 업이 딴 데 있는 것도 아니고 애고가 딴 데서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과거는 지나갔으니까 없고 미래는 오지 않았으니까 없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몸 떠나면 그 자체도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 부처도 있는 것이고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 바로 중생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뚱이 속에 헤아릴 수 없는 생명의 의식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 많은 의식들이 왜 그렇게 고(苦)와 윤회성 영계성 업보성 인과성 세균성 모두를 가지고 그 속에 있느냐 이런다면,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컴퓨터를 쓸 정도로 발전이 됐지마는 자동적인 컴퓨터가 여러분 개개인에게 다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알고 짓고 하는 것이 자동적으로 입력이 됐다가 입력된 대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입력이 된 것이 현실에 지금 나오는 것입니다. 그대로 입력된 대로 말입니다. 그래서 팔자 운명은 독 안에 들어도 못 면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는 그렇게 여러분을 이끌어 드리지 않습니다. 그것을 무마시킬 수가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입력이 돼서 나오는 바로 그 자리에다가 다시 입력을 한다면 앞서 입력이 없어진다.' 하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 생활 자체를 그대로 바로 자동적인 컴퓨터에서 하는 것입니다. 오신통이라는 그 자체가 바로 자동적인 컴퓨터입니다. 심안으로

☞22면으로 계속

기름값의 1/5 이하로 절약되는
슈퍼에너텍 순간전기보일러
국내개발1호!
기름값 대비
80% 이상 절감
심야전기 대비
1/2 이상 절감 효과
국내특허 제0751485호
세계특허출원 PCT/KR2007/006534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00,000 원
Sale!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생활이 곧 참선이고 道이니 딴 데 가서 도를 찾지 마세요

☞21면에서 계속

보는 거 천안통, 마음으로 듣는 거 천이통, 가고 옴이 없이 가고 오는 그것이 바로 신족통, 남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그 마음이 바로 타심통입니다. 자기 영혼의 뿌리가 자기를 형성시키기 위해서는 남녀의 정자 난자를 빌려서 바로 삼합이 한데 합쳐짐으로써 형성을 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형성을 시켜서 자기가 지금 이끌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육의 부모를 빌려서 내가 나왔다고 하죠, 인연에 따라서. 그래서 오신통이라는 그 자체를 바로 내가 나왔으니까 갖춰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내가 어디서 나온 것을 아는 것이 바로 숙명통입니다. 이거는 다섯 가지가 다 포함돼야지 거기서 한 가지만 떨어져도 자동컴퓨터가 될 수 없는 거지요. 다섯 가지가 다 한데 합쳐서 하나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자동적인 컴퓨터입니다. 인간에게 다 주어져 있는 자동적인 컴퓨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팔자, 운명, 고라는 것을 어떻게 해야 면할 수 있느냐? 삼천 년 전이나 몇억 겁 전이나 어저께나 조금 아까 전이나 일초 전이나 똑같습니다. 우리가 그 습에 끄달리고 관습에 끄달려서 그렇지 한번 생각을 넓고 깊게 해 보십시오. 시공을 초월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본래 여러분이 시공을 초월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그렇게 착을 두고 붙잡고 늘어지고 '이렇게 살아야 한다, 저렇게 살아야 한다, 이거를 가져야 한다, 내가 망했다, 내가 벌었다, 이건 나다' 이러니까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지 지금 여러분이 그렇게 시공을 초월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하던 말을 마저 이어야죠?

오신통이라는 그 자체가 바로 여러분의 자동적인 컴퓨터예요. 그래서 과거에 자기가 살아온 것이 그대로 입력이 돼서 지금 현실에 그대로 또 나오는 것입니다. 나오면서 연방 입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나오지 않았더라면 상대성의 원리도 없을 것이고, 이 세상이 벌어지지도 않았을 것이고 종교도 없었을 것이다. 부처 중생이 어디 있느냐? 당신이 없다면 무효다. 당신이 이 세상에 났으니까 잘하고 잘못하는 것도 생긴 것이고 모든 게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부터 믿고 너부터 알아라. 싹은 뿌리로 인해서 살고 있는 것이다. 싹은 뿌리에게 태양열과 공기력을 공급하고 뿌리는 철분 지분 수분, 이 모두를 공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싹이 푸르르게 살 수 있는 것이지 만약에 뿌리와 싹을 똑 잘라 놓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벌써 송장이 될 겁니다. 영혼의 뿌리란, 여러분이 몸뚱이가 죽는다고 해서 죽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뭐냐? 가을이 되면 낙엽이 져서 잎만 떨어질 뿐 그 이듬해 봄이 오면 다시 이파리가 싱싱하게 나듯이 이와 똑같은 삶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마음을 먹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관습에도 끄달리지 말고 '내가 업보가 얼마나 많아서 이렇게 고생을 할까?' 이런 마음도 가질 필요가 없죠. 모든 마음 자체가 어제도 없고 내일도 없으니 오늘 내가 그냥 용도에 따라서 닥치는 대로, 안에서 일어나는 대로 그것을 몽땅 용광로에다 넣듯이 그냥 자가발전소에다 일임하는 겁니다. '응, 네가 이렇게 형성시켜서 살게 했고 네가 이 몸뚱이를 이끌어 가는 것이니까 너만이 잘 이끌어 갈 수 있잖아!' 하고 거기다 놨을 때에 바로 용광로에다 넣은 거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죠? 잘못된 거든 잘된 거든 부스러기든 찌꺼기든 다 용광로에다 넣으면 자동적으로 재생이 돼서 나갑니다. 금도 반지 목걸이 귀걸이, 잘못된 거 닳은 거 할 것 없이 용광로에다 넣어서 바로 금으로 다시 만들어서 반지와 목걸이 귀걸이 여러 가지를 다 생산시켜서 내보냅니다. 그와 같이 인생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거든 잘된 거든 부스러기든 찌꺼기든 다 용광로에다 넣으면 자동적으로 재생이 돼서 나갑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고가 있느니 없느니 이런 것은 따질 것도 없습니다. 바로 나를 형성시킨 고놈이 나를 이끌어 가지고 지금 가고 있는 거니까, 내면세계의 정신계를 파악하고 정신계와 물질계가 같이 시공을 초월해서 저 우주하고도 직결이 돼 있고 이 세상하고도 가설이 돼 있구나 하는 것을 믿는다면 아무 염려가 없을 것입니다. 걱정 근심 할 것도 없어요. 하늘이 무너진대도 눈 하나 깜짝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학술적으로만, 이론으로만 배운다고 그래서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걸 배우지 말고 보지 말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선(禪)과 교(敎)는 둘이 아닙니다. 천지도 둘이 아니요 남녀도 둘이 아니요 늙음과 젊음도 둘이 아니요 모두가 둘이 아닙니다. 일체가 다 둘이 아닙니다.

우리가 암흑세계로부터 생각을 해 본다면, 지수화풍이 한데 모여서 검은 지평선의 에너지가 이루어졌었고 그것이 또 우주를 형성시켰고, 우주가 형성되는 동시에 은하를 형성시켰고 또 불바퀴를 형성시켰고, 지금은 블랙홀이라고 합디다마는 큰 별을 이루었다 이겁니다. 즉 말하자면 어느 회사 같으면 회장님을 하나 이루었다 이거죠. 그 회장으로 인해서 모든 은하의 별들이 서로 조직적으로 움죽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냈다 들였다 하는 작용을 말입니다.

여러분도 모두들 냈다 들였다 하는 작용을 하시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들이고, 또는 그것을 가지고 움죽거리고 작용하고 이러죠? 그거와 같이 일체 우주 전체 모든 태양계와 모든 외성과 모든 별성들이 모두 그렇게 움죽거리고 있습니다. 내고 들이고 내고 들이고, 그 작용으로 인해서 모두가 생산이 되고 모두가 옷을 벗고 다시 새 옷을 입고 이러한 작업을 지금 쉴 사이 없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마음이 발전해서 창조력을 기르고 마음을 자유스럽게 쓸 수 있다면 우리나라는 물론이거니와 세계의 어느 곳에, 돌에다 세워 놔도 살 수 있습니다. 바로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뜻으로써 연결이 되고 마음으로 연결이 되고 말로 해서 연결이 되고 통하고 하는 것이 교예요. 풀 한 포기의 생명도 바로 불(佛)입니다, 불! 불교라는 것은 어느 한 군데에 국한돼 있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뿐만이 아닙니다. 우주 삼천대천 세계가 그냥 여여하게 돌아가는 이 자체가 바로 불교입니다. 스님만이 불교를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작용하고 먹고 살고 죽고 살고 하는 그 자체가 바로 불교입니다.

요즈음 종단에서 이러쿵저러쿵한다고 해서 신심들이 떨어진다고 그러는데 그건 여러분의 마음이죠. 여러분의 마음의 차원입니다. 무슨 불교가 망했네, 불교가 다했네, 이런 소리들을 하시지만 어림 반푼어치도 없는 소립니다. 여러분, 넓게 생각을 해 보십시오. 지금 태양열이 바다 밑바닥까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반밖에는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바로 파도가 일어서 위의 것이 아래로 가고 아래 것이 위로 오고 이렇게 순환을 거듭거듭 해야만이 위의 것은 아래 걸 먹고 아래 것은 위의 걸 먹고, 서로 찬 기운을 온기로, 또는 먹을 것을 물이 비타민C처럼 공급함으로써 모든 생물들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우리 스님네들 계신 종단도 역시 그와 똑같습니다. 그런 작용이 없다면 어떻게 개선이 되며 어떻게 개혁이 되며 어떻게 발전을 이루며 어떻게 창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어리석은 생각은 아예 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서 하늘이 무너져서 다 죽는다 하더라도, 풀 한 포기만 살아도 불교는 살아 있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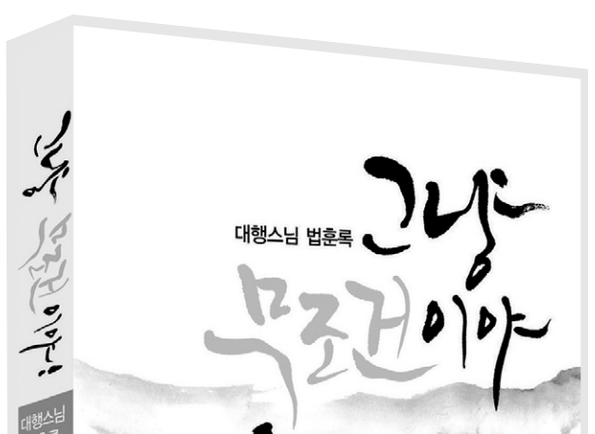
여러분은 마음이라는 그 자체가 얼마나 귀중한지 모르시죠? 어느 날 한 신도가 울면서 이렇게 물어 왔습니다. "스님, 지금 우리 아들이 나가서 며칠째 안 들어오고 있고 공부도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그냥 정신이 어지럽고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3학년이 다 되도록 꼴찌만 하고 있는데, 그것도 학교 가서 사정을 하고 해서 간신히 간신히 다닌다고 그러면서 울고불고 그래요. 목이 메어서 말입니다. 아들은 그거 하나뿐이라고 그러면서 그래요. 대의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참 우습게 생각을 할는지도 모르지만 나한테는 조그마한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아주 소중합니다. 왜냐?

지금 이 말을 하다가 또 요거 한마디를 더 해야 되겠습니다. 수억겁 광년을 거치면서 요만한 모기가 딱정벌레로다가 화하고 이러듯이 그 모든 것이 자꾸자꾸 진화되고 바뀌고 이래서 인간까지 창조가 된 겁니다. 그래서 다른 거는 다 먼저 되고 맨 나중에 인간이 됐다고 하지요. 그런데 알고 본다면 구름이 모였다 흩어졌다가 또 딴 구름하고 모이고 이러듯이 때에 따라서는 그냥 딴 집의 자식이 됐다가 또 그 집의 부모가 됐다가 또 딴 집의 자식이 됐다가 또 부모가 됐다가, 연방 이러고 돌아가다 보니까 올챙이에 이르기까지 자식 부모가 안 됐던 일이 없었기 때문에 모두가 내 부모 아님이 없고 내 자식 아님이 없고 내 형제 아님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모두가 내 자식같이, 내 아픔같이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 주었어요. "욕을 하고 때리고 나가서 뭐지라는 둥 이렇게 마구 한다면 오히려 반항심이 생겨서 더 문제가 커진다. 그렇게 마음으로 고장난 것은 바로 마음으로 그 업보를 면하게 해 줘야 된다." 그러면서 자꾸 관하라고 그랬죠. 그것은 왜냐하면, 여러분은 믿지 않겠지요. 그러나 전력과 같은 겁니다. 그 아이한테도 자가발전소가 있고 나한테도 자가발전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발전소의 그 전력은 다 똑같습니다. 용도에 따라서 그 전력을 끌어 쓰는 데 달려 있는 거지 전력이라는 자체는 다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마한테 '당신 주인공과 걔 주인공이 뿌리가 둘이 아니니 그 뿌리만이 걔를 잘 이끌어 갈 수 있다.' 하는 그 믿음을 진실하게 가져 보시라고 그랬죠. 그러면 한 방에 전등을 세 개씩 달아 놓았다고 해서, 여기도 그렇죠? 이것이 따로따로, 전력이 따로따로 있어서 들어오는 게 아니죠. 전력은 한 군데 있으면서 전구만 여러 개 있는 거죠. 그와 같이 "자식과 부모가 둘이 아니다. 전력이 둘이 아닌 까닭에 전구만 여러 개가 있는 거와 같으니까 진짜로 믿고, 전력은 둘이 아니니까 그 전구를 이끌어 가는 것도 둘이 아니다. 그러니 그렇게 자꾸 관해라." 이랬습니다. 그렇게 관하라고 하니까 울며불며 그냥 가고는 얼마를 안 나와요. 그러더니 하루는 아주 심기가 좋아서 왔어요. 그래서 "어쩐 일이오? 또 울 일이 생겼소?" 그러니까 "아닙니다. 아들이 그렇게 착해질 수가 없습니다. 글쎄 어느 날 하루는 안 들어와서 그냥 아주 속이 상해서 불같이 일어나는 거를 참고 그렇게 관하고 있으면서 장독을 닦는데 부시시 들어오더니 '엄마, 화나셨죠? 무거운데 제가 좀 들어 드릴까요?' 하면서 그걸 같이 닦아서 장독대에 놓더니 그날서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착해졌습니다." 이러는 겁니다. 아마 여기도 경험한 분들이 많이 있으시리라고 믿습니다.

(다음 호에 계속)

※위 법문은 1994년 6월 12일 국내지원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한마음 선원장 대행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그냥 그대로가 부처이다



불자 세상보기

이강렬
극작가 · 한국문인협회 상임이사

투표, 우리의 미래 위한 선택

살다 보면 때때로 선택에 직면할 때가 있다. 판단은 순간이지만 선택에 따라 10년 20년, 아주 먼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 크고 작은 선거에서의 투표가 그러하다. 특히 지방선거는 우리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미국의 기상학자 에드워드 로렌츠가 생각해 낸 나비효과는 북경에 있는 나비의 날갯짓이 태평양 건너 뉴욕에서 허리케인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이론이다. 나비의 작은 움직임이 대기에 영향을 주고 시간이 지날수록 증폭되어 커다란 폭풍을 일으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것은 작은 선택이 커다란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뜻이다. 만약 나비가 아무른 행동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면 어떤 변화도 일으킬 수 없었다는 의미도 된다. 스스로 불규칙 하게 변화하는 성질과 그 속에 숨어 있는 나비효과 때문에 우리는 쉽게 미래를 예견할 수 없는 것이다.

'6 · 2지방선거' 쟁탈전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선거운동 현장에는 각기 독특한 아이디어로 유권자들의 이목을 끌고자 노력하고 있다. 후보의 이름을 두고 3행시가 나오는가 하면 실용성을 강조하여 점프 상의와 등산바지 차림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상하리만큼 선거에 참 무관심하다. 어지러운 확성기소리나 한 표를 부탁하며 내미는 명함에도 별 시선을 주지 않는다. 왜 그럴까.

애초부터 이번 선거를 유권자들은 노풍(盧風) 보다는 북풍(北風)의 위력이 상대적으로 클 것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천안함이 북한의 어뢰에 의해 침몰했다는 조사결과를 신뢰하고 있다. 한나라당 후보들은 천안함 같은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한나라당 후보들이 압도적으로 당선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선거에서 천안함 사태에 기대려는 인상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어떻든 집권여당으로서 국가 안보의 허점을 드러낸 책임이 있지 않은가.

민주당은 북풍차단과 함께 노풍을 타고 싶어 한다. 경남 김해시 봉화마을에서 열린 노 前 대통령 1주기 추도식에는 친노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모두 집결했다. 이들은 그날 저녁 서울광장에서 열린 추모문화제에도 참석했다. 한 후보는 이날 "지방선거를 통해 노 전 대통령의 꿈을 꼭 이루고 싶다"고 말했다. 그리고 천안함 사태에 대한 대국민 담화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제1야당으로서 북한의 도발을 단호히 하기 위한 방안은 뒷전이고 선거에만 매달리는 듯한 행태는 분명 자제해야 할 것이다.

여당의 정권 안정론일지 야당의 정권 견제론이 될 지 모두 한번쯤 숙고하여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 우리는 꼭 한 표의 권리를 행사하여 유능하고 깨끗한 인물들로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를 채워 풀뿌리민주주의를 확립하는데 기여해야 한다. 한편으로 16개 시도 교육감과 교육위원 선거도 우리아이들의 공교육을 책임질 인물을 선택하는 중요한 선거이다. 우리가 한 표를 포기해버리는 순간 이 나라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다. 정치권에서는 상대방의 의견을 좀처럼 들으려 하지 않는다. 오만이 도움이 되는지 한번 쯤 생각해보면서 살아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 사람은 원래 겸손한 존재이기에 자기만이 옳다는 아집과 독선만 버리면 저절로 지혜가 드러나고 바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유권자들은 현명한 지혜로 국민들에게 희망을 갖게 하는 인물을 선택해야만 한다.

발심은 마음을 내는 것이다. 깨닫고자 하는 보리심을 내는 첫 마음이 초발심(初發心)이다. 초발심은 매우 중요한 마음이다. 발심하면 궁극적인 중생으로서의 고뇌를 타파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자비의 세계로 나아가게 된다. 마음을 내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여 나라의 미래에 힘이 되자. 뜻과 이상을 함께 한다는 것은 곧 마음의 합일일 것이다. 보살의 마음으로 투표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하고 따뜻한 사회가 만들어 질 것이다.



사부대중 칼럼

염석훈
아세아항공전문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밝은 사회를 만드는 기도

불교, 천주교, 기독교 할 것 없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신앙의 대상에게 축복과 가호를 비는 기도를 한다. 쌀쌀한 겨울 대학 수능시험 때가 되면 어김없이 자녀의 대학입학을 기원하는 부모들의 간전할 기도가 법당과 성당 및 교회를 가득 메우곤 한다. 그리고 남편의 사업성공과 번창, 가족의 건강, 자녀의 학업 성취 및 고시 합격을 기원하는 기도소리가 매일 매일 새벽부터 잠들기 전까지 끊이질 않는다.

여러 종교의 모든 사람들은 축복과 보호를 기원하는 기도를 한다. 불교도 마찬가지이다. 불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은 단순하게 복을 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마지막은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자 회향을 한다는 점이며 또한 종교적 체험 넘어 스스로가 여래의 씨앗을 가진 존재로서 불보살의 마음으로 회복하는 과정 즉 수행이라는 점이다.

경전을 읽는 독송, 스스로를 낮추며 하심(下心)의 자세를 갖게 하는 108배 · 3000배, 불보살의 명호를 부르는 염불, 경전을 한자 한자 정성들여 쓰는 간경, 스스로를 관하며 본질을 찾아가는 참선 등은 불교의 수행방법이자 기도방법이다.

선수행하는 스님들이 기거하며 용맹정진하는 사찰로 유명한 봉암사가 1년 중 유일하게 일반 재가신도들에게 사찰을 개방하는 날인 부처님 오신 날 수좌스님을 찾아 뵈었다. 스님은 37조도품을 설명하며 37조도품이 각각 별개가 아니라 하나하나 모든 것을 전부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쉽게 말해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보시, 인욕, 지계, 정진, 선정, 지혜의 육바라밀이 따로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육바라밀 각각이 나머지를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참선 수행을 함에 있어서 다리 아프고 오래 앉아 있기 힘든 것을 참아 냄으로서 인욕을 하고 올바른 수행을 위해 계율을 지키게 되며, 올바른 수행력을 쌓게 됨으로서 주변 사람을 편안하게 만들게 되어 자연스럽게 보시를 하게 되고, 항상 부지런히 닦아 꾸준히 나감으로 정진하게 되고, 선정에 들어 지혜를 얻게 됨으로 6바라밀을 닦게 된다는 것이다.

기도 또한 마찬가지이다. 매일매일 <천수경>을 독송하고자 마음을 먹고 잠자기 전 경전을 독송하며 기도를 하면 할수록 밖에서 일하고 늦게 들어온 날, 피곤한 날 등 이런 날에는 천수경을 독송하기가 무척 힘들다.

하지만 참아내고 경전을 읽음으로서 인욕하게 되고,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를 함으로서 계를 지키게 되며, 기도 끝에는 항상 남을 위해 회향함으로서 보시를 하고 꾸준하고도 부지런하게 지켜나가니 정진이며 점차 잡념이 사라지고 일심으로 독송하니 선정바라밀이며, 궁극적으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바탕이 되니 지혜바라밀이 된다. 즉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한 걸음 한 걸음 부처의 길을 걸어가며 불보살이 마음으로 회복되어가는 것이다.

처음으로 기도가 개인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된 것은 대학을 다닐 때이다. 불교 종립대학인 동국대에서 당시 정각원장 법산 스님의 강의를 통해서였다. 당시 스님은 모든 사람들이 본인의 얼굴을 보면 편안해지고 목소리를 들으면 즐거워지고, 이름을 통해 믿음과 신뢰가 되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라고 가르쳤다. 이것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고 미래를 나를 만들어가는 모태이자 오늘도 매일 <천수경>을 읽으며 기도하는 주된 내용이다.

모든 사람들이 내 얼굴을 보면 편안해지고, 모든 사람들이 내 목소리를 들으면 즐겁고 모든 사람들의 내 이름을 알고 듣게 되면 신뢰하고 믿음이 가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는 기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기 위해 스스로를 책려하고 공부하며 노력하게 된다.

모든 사람들이 내 얼굴을 보면 편해질 수 있도록 항상 웃음을 머금고, 모든 사람들이 내 목소리를 들으면 즐거워질 수 있도록 바른 말과 좋은 말을 하려고 노력하게 되며 모든 사람들이 내 이름을 알고 들을수록 믿음과 신뢰를 주기 위하여 매사에 겸손하고 성실하게 임하게 됐다. 이것이야 말로 언제나 불보살의 보호를 받고 사는 것으로 아침저녁 외우는 예불문에 나오는 명훈가피력(冥熏加被力)이 아닌가 싶다.

남에게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는 자세로서 공덕을 쌓게 됨으로 재난이 절로 피해가고 항상 기쁘고 편안하고 즐거움이 가득하게 됨으로서 주위를 환하게 하고 주변을 기쁨과 즐거움에 물들이니 우리 사회, 더 나아가 우리나라가 일류국가가 되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사 설

평화는 종교의 책임이다

지난 5월 27일 미국의 <타임>지는 인터넷판을 통해 '한반도에서의 전쟁,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생각하기'란 제목의 기사에서 한반도에서의 국지전 시나리오를 소개했다. 남북간의 긴장이 고조된 때에 나온 보도라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

이 기사에 따르면, 서해상에서 남북 해군간 충돌 가능성을 가장 높게 꼽았다. 이어 우리측이 대북 심리전 방송을 재개하고, 이에 북한이 강경하게 대응할 경우 국지적 교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우발적인 충돌이나 교전이 자칫 통제할 수 없는 국지전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이 기사에서는 또 팽팽한 긴장 상황에서 남북간의 소통수단이 단절되었다는 점도 지적했다. 우리는 이 기사가 상상일 뿐이길 바란다.

전쟁은 참혹하며, 전쟁이 일어날 경우 스스로 제어할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달을 위험성이 상존한다. 일부에서는 전쟁을 두려워해서는 안된다면서 대북 응징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선거를 앞둔 포석이라고 비판하는 목소리도 들린다. 국민들이 평정심을 잃지 않고 있는 것이 그나마 다행이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은 죽임이 아니다. 원한은 원한으로써 갚아지지 않으며, 상대는 나를 비추는 거울이라고 가르치고 있다. 토머스 머튼은 미국과 소련이 핵무기 경쟁을 벌이던 냉전시기에 "평화는 종교의 책임"이라고 갈파했다. 천안함 침몰의 책임은 물어야 하되 전쟁으로써는 분명 아니다. 과정도 결과도 살림과 평화이어야 한다.

한일불교 공동선언의 후속조치

31회를 맞은 한일불교문화교류대회가 5월 25~29일 일본의 천태종 총본산인 히에이산 엔랴구지(延曆寺)를 주대회장으로 하여 열렸다. 양국의 회장인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과 일본 천태종 종정 한다 고준 스님 등 300여 명이 동참해서 세계평화기원법회를 봉행하고 '양국 불교를 배우다'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진행했다. 함께 성지순례도 했다.

한일불교문화교류대회는 매년 두 나라가 번갈아가며 개최한다. 31회 대회를 치렀으니 한 세대를 이어온 연륜을 쌓았다. 두 나라 불교계는 이 대회를 통해 우의를 다지고, 나아갈 길을 찾았다. 경복궁에 있었던 관월당을 반환키로 한 것도 두 나라 불교계가 다져온 우의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럼에도 아쉬운 점은 매번 대회를 마치면서 발표하는 공동선언문의 실천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번 대회에서도 두 나라 불교계는 자연과 인류가 공존공생할 수 있는 그 지속을 바라며 헌신 노력한다는 등의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이런 내용은 전혀 새롭지 않다. 매년 비슷한 내용이 반복된다. 공동선언문을 실행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하나의 예로, 사찰의 에너지 효율을 몇 %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수치로 설정하고, 달성도를 다음 대회 때 서로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한국측 회장인 자승스님은 "이제는 생명존중, 자연환경 보호, 세계평화 기원 등에 중점을 두고 지구적인 문제에 구체적 해법을 제시할 때다"고 말했다. 매우 적절한 진단이다. 이번 대회의 선언문이 공허한 문구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후속 조치가 요구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최낙관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붓다뉴스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충청지사 : (043)732-5560
전북지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주지국 : (054)634-3429
부산지사 : (051)632-0064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불자의 긍지 · 신행의 기쁨
현대불교신문사 전국 지사 안내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신문.
보다 편리한 구독신청 · 광고게재 · 기사제보... 연락주십시오! 달려가겠습니다.

지 사 명	지사장명	연 락 처
부산지사		박지원(객원기자) 051)632-0064 / 010-8544-0351
대구지사	손 문 철	053)768-8008 / 016-813-8008
충청지사	혜철스님	043)732-5560 / 010-9422-8453
광주전남지사	양 행 선	062)384-3009 / 016-629-1508
전북지사	조 동 제	063)910-8977 / 011-9642-7733
영주지국	박 영 애	054)634-3429 / 011-9373-3778
경남 남부지사	청운스님	055)746-9778 / 011-870-0021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안 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